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양재섭 남선희

A Planning Monitoring Study on the Community Plan of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연구책임

양재섭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남선희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외국사례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
정일지 일본 가나가와대학 교수

자문위원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백운수 미래이엔디 대표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생활권계획의 역할 명확화·실현전략 마련 자치구단위 활용해 지역생활권계획 세워야

생활권계획은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이란 「2030 서울플랜」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 여건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권계획은 공간적으로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되며, 내용상으로는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생활권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별 계획’과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공공(서울시·자치구)·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며, 주민들은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권역별 발전계획」, 「권역별 르네상스」 등 권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한 경험은 있지만, 지역생활권처럼 작은 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권계획은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는 최초의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처음 수립하는 만큼 계획수립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생활권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쟁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사전기획·계획착수·계획수립·주민참여 4단계로 수립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준비하였고 2014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4,000여 명의 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했고, 계획이 완료되는 2016년 12월

까지 총 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은 ① 사전기획, ② 계획착수, ③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④ 주민참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1]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단계 구분

사전기획: 공감대 형성... 계획착수: 시·자치구 추진팀 구성, MP 선정

사전기획 단계(2012.4.~2013.11.)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생활권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자치구 설명회 등을 열어 생활권계획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계획착수 단계(2013.12.~2014.7.)에서는 권역별 기술용역사를 선정하고,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4인)를 위촉하여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전담할 '생활권계획추진반', 도시관리 원칙·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국 추진팀(TF)'을 구성하였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자치구도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였다. 13개 자치구가 '생활권계획 추진팀(TF)'을 구성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생활권계획 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계획수립: 권역·지역생활권계획, 이슈별 계획, 공간계획으로 구성

권역 및 지역생활권 계획수립은 2014년 8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권역계획은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총괄 및 부문계획가, 기술용역사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이슈별 계획’에서는 권역별 미래상과 일자리·산업, 도시공간·정비, 교통, 공원·녹지 등에 대한 ‘이슈-목표-전략’을 제시하였다.

‘공간계획’은 중심지·용도지역·경관·생활기반시설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당초 ‘서울시 전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가 권역·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획내용의 표현 방식과 수준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권역계획과 차이가 있다.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주민들은 워크숍에서 생활권의 미래상과 자원, 개선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초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 주도로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자치구는 주민참여단 모집과 워크숍 운영을 담당할 뿐 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있다.

주민참여: 지역생활권별로 30~50명 주민참여단 구성하여 2회 워크숍

주민참여단은 행정동별 10명씩, 지역생활권별로 30~50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모를 통한 ‘일반 주민’을 5:5의 비율로 구성하고 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각 자치구는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받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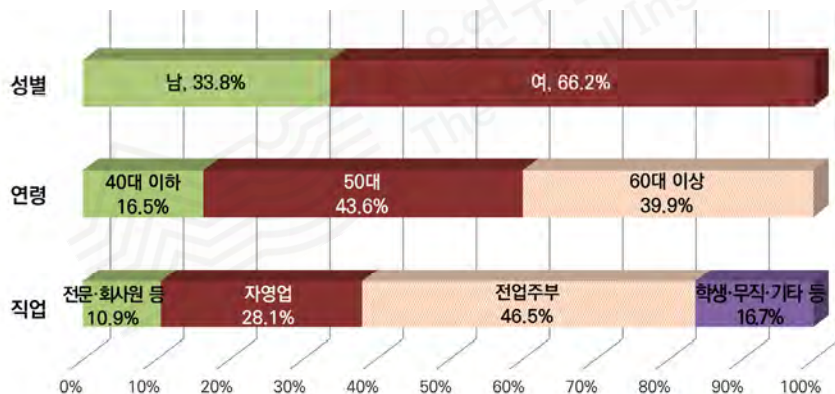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생활권별로 4시간씩 2차례 개최되었고, 워크숍 진행자(facilitator)가 진행을 맡았다. 1차 워크숍에서는 생활권계획과 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현황과 장래 모습에 대해 토론하였다. 2차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2014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후에 개최하였으나, 개인적인

행사와 모임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해지자 2015년에는 평일 오후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동별 대표모임, 현장투어, 전문가 특강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단, 대표성·자발성 미흡… 워크숍 만족도·재참여 의향은 높아

주민참여단(53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50~60대이며, 지역활동 경험자들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중 여성이 66%, 50~60대가 84%를 차지하는 등 20~40대 젊은 층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했다. 직업은 전업주부(47%)와 자영업자(28%)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회사원과 학생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또한 응답자 중 91%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지역활동 경험이 있었고,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6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성별, 연령별 응답자 비율

주민참여단 참여경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주민자치센터 등의 추천을 받았고, 공모를 보고 직접 신청한 응답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중 52%가 참여단에 지원하기 전에 생활권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사전 인지도는 낮았지만,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0%가 워크숍이 잘 진행되었다고 응답했고, 96%가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32%), 지역의 자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29%)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했다.



[그림 3]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복수응답)

주민들은 생활권계획 중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30%)과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15%)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생활권계획이 향후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98%)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다시 참여할 것(93%)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생활권단위로 도시기본계획 구체화 등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 전기’

생활권계획은 계획의 내용과 형식, 수립과정 등의 측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상향식 계획’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상과 생활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주택, 경관, 교통 등 부문별 계획과 사업들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하고, 자치구 발전계획구청장 공약사항 등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생활권계획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마을이나 사업단위 계획수립에 주민들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생활권계획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중간단위계획인 생활권계획 위상·역할 모호, 주민참여단 대표성 미흡

하지만 생활권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생활권계획은 ‘중간단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 서울시, 자치구 등 관련주체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둘째,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이 우려된다. 일부 지역생활권에서는 특별한 지역자원이나 문제가 없어 계획이슈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셋째, 서울시-자치구-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지만, 실제 수립과정에서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할 뿐 계획수립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권역별 총괄계획가의 역할도 모호한 편이다.

넷째, ‘상향식 계획’으로서 4,000여 명의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워크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추진반,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구성했지만, 계획수립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어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과제1: 생활권계획의 역할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전략 마련

생활권계획이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분되지만, 핵심은 지역생활권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으로서 지역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 계획내용과 표현방법, 활용방안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역할을 규정하고, 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와 실행근거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어떻게 운영·실현해 갈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과 사업, 시책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실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가 추진하는 계획이나 사업 중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내용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제2: 자치구단위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하고 명소화 전략 활용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을 최소화하고 권역과 지역생활권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단위로 지역생활권별 이슈를 파악하고, 자치구의 발전방향에 따라 균형감 있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 도쿄 네리마구처럼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명소화 전략을 통해 지역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민원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명소화 전략 등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제3: 자치구가 계획수립 주도… MP에 총괄계획가 실질 권한 부여

당초 권역계획은 서울시가,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했지만, 실제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지역여건을 잘 아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계획내용을 조정·승인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구의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괄계획가에게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계획수립과정을 총괄하되, 총괄계획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자치구·주민의 의견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과제4: 주민참여단 워크숍 횟수 늘리고 사전교육·피드백과정도 강화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일회성으로 개최되어 실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참여단 워크숍 횟수를 늘려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교육을 통해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정보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등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평일 오후에 개최되어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개선해야 할 점

과제5: 계획수립과정의 총괄 기능 강화해 계획체계 일관성 유지

생활권계획이 다루는 공간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므로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 계획 추진반과 총괄계획가가 중심이 되어 총괄기능을 담당하되, 생활권계획 자문단을 운영하여 생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 같이 권역별로 자치구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 간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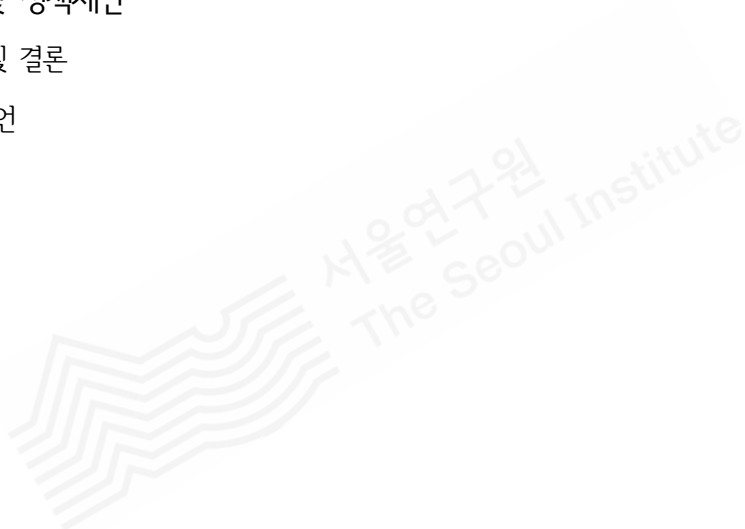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서울시·자치구 생활계획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활성화하여 자치구가 생활권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_연구의 범위와 방법	3
02 생활권계획의 이해와 추진경과	10
1_생활권계획이란?	10
2_생활권계획의 구성과 내용	15
3_계획수립 방법과 주민참여	17
4_생활권계획 추진경과	20
03 생활권계획 단계별 수립과정 모니터링	26
1_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구분	26
2_사전기획 및 계획착수 단계	27
3_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단계	34
4_주민참여 단계 및 의견 분석	47
5_계획수립과정 모니터링 종합	75
04 외국의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과정과 시사점	80
1_일본 도쿄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80
2_미국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97
3_시사점	110

05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쟁점과 과제	114
1_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문제	115
2_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문제	119
3_자치구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122
4_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127
5_계획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136
06 결론 및 정책제언	140
1_요약 및 결론	140
2_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7
부록	149
Abstract	191



표

[표 2-1] 주민참여단 워크숍 프로그램	19
[표 2-2]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및 추진경과	23
[표 3-1] 사전기획단계 주요 진행사항	27
[표 3-2] 서울시-자치구 간 역할분담 계획	29
[표 3-3] 계획착수단계 주요 진행사항	30
[표 3-4] 2014년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 및 예산 현황	33
[표 3-5] 권역계획 수립과정	34
[표 3-6] 동북권 이슈와 목표(예시)	37
[표 3-7] 동북권 이슈별 목표와 전략(예시)	37
[표 3-8] 지역생활권계획 수립과정	41
[표 3-9] 1차 워크숍 프로그램(2014년 영등포생활권)	51
[표 3-10] 2차 워크숍 프로그램(2014년 영등포생활권)	51
[표 3-11] 2014년 주민참여단 워크숍의 주요 주민의견	54
[표 3-12] 2015년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 및 예산 현황	59
[표 3-13]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개요	60
[표 3-14]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63
[표 3-15] 생활권계획 참여경로	65
[표 3-16] 워크숍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67
[표 3-17] 워크숍 참여도	67
[표 3-18] 워크숍 횟수 평가	69

[표 3-19] 워크숍 시간 평가	69
[표 3-20] 워크숍 참여인원 평가	70
[표 3-21] 워크숍 수당 평가	71
[표 3-22]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의 재참여 의향	73
[표 4-1] 네리마구 자치구계획의 구성	86
[표 4-2] 네리마구 지역생활권별 면적과 인구 현황	88
[표 4-3] 네리마구 지역생활권계획 내용	88
[표 4-4]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워크숍 일시 및 프로그램	92
[표 4-5]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워크숍 프로그램	93
[표 4-6] 네리마구 계획안 설명회 일시	96
[표 4-7] 포틀랜드시의 계획체계	98
[표 4-8]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 수립현황	99
[표 4-9] 포틀랜드시 CAC 개요	101
[표 4-10] 포틀랜드시 CAC 활동사례	102
[표 4-11] Central City 2035 계획과정	104
[표 4-12] 도심부 자문위원회 회의 일시 및 내용	107
[표 4-13] 센트럴시티플랜 2035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행사	108
[표 5-1]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관련 주요의견	116
[표 5-2]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 관련 주요의견	120
[표 5-3] 역할분담 계획 및 현황	122
[표 5-4] 자치구 역할 관련 주요의견	123
[표 5-5]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권한 관련 주요의견	124
[표 5-6] 주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 관련 주요의견	130
[표 5-7] 워크숍 진행자 및 주민참여단 추가의견	131
[표 5-8] 계획수립과정의 일관성 관련 주요의견	137

그림

[그림 1-1] 생활권계획의 도입	2
[그림 1-2] 연구의 주요내용	4
[그림 1-3] 연구방법	5
[그림 2-1]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	11
[그림 2-2]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2	11
[그림 2-3]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3	12
[그림 2-4] 생활권계획의 위상	13
[그림 2-5] 생활권계획의 역할	13
[그림 2-6] 서울시 생활권 구분(권역 및 동북2권 지역생활권)	14
[그림 2-7]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15
[그림 2-8] 생활권계획의 내용구성	16
[그림 2-9] 동선 지역생활권 종합구상도(예시)	16
[그림 2-10]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예시 : 성북구 장위석관 생활권)	18
[그림 2-11]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성북구 정릉생활권)	19
[그림 2-12]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보도자료(2013. 9. 9.)	20
[그림 2-13] 22개 시범지역생활권 위치와 워크숍 일정(2014년)	21
[그림 3-1]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단계 구분	26
[그림 3-2]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모습(2013. 3. 18.)	29
[그림 3-3]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중랑구 예시)	32
[그림 3-4] 동북권 미래상과 주요 이슈	36

[그림 3-5] 동북권 중심지 협의 모습(2015. 3. 24.)	39
[그림 3-6] 공간계획의 부문별 조정내용	39
[그림 3-7] 권역계획(안) 도면 예시 : 동북권	40
[그림 3-8] 정릉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과 주민대표 모임 결과	43
[그림 3-9] 정릉생활권 계획의 목표와 전략(안)	44
[그림 3-10] 지역생활권계획 도면 예시 : 성북구 정릉생활권	45
[그림 3-11] 생활권계획 홍보물	47
[그림 3-12]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48
[그림 3-13] 시범지역생활권 워크숍 모습	50
[그림 3-14] 1차 워크숍 결과물(2014년 영등포 생활권)	52
[그림 3-15] 2차 워크숍 결과물(2014년 영등포 생활권)	53
[그림 3-16] 주민참여단 워크숍 매뉴얼 예시	55
[그림 3-17] 2015년도 워크숍 개선방안	56
[그림 3-18] 2015년도 주민참여단 워크숍 모습(성동·강북·성북구 등)	58
[그림 3-19]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모습(강북구)	60
[그림 3-20] 성별, 연령별 응답자 비율	61
[그림 3-21] 지역활동경험, 거주기간별 응답자 비율	62
[그림 3-22] 주택유형, 거주유형별 응답자 비율	62
[그림 3-23] 생활권계획 참여 경로	64
[그림 3-24] 지원 전 생활권계획 인지도	65
[그림 3-25] 워크숍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6
[그림 3-26] 워크숍 참여도	66
[그림 3-27]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복수응답)	68
[그림 3-28] 워크숍 횟수 및 시간 평가	68
[그림 3-29] 워크숍 참여인원과 수당 평가	70

[그림 3-30] 생활권계획 중 관심 있는 내용	72
[그림 3-31] 생활권계획에 대한 기대	72
[그림 3-32]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의 재참여 의향	73
[그림 3-33]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주요 쟁점 도출	77
[그림 4-1] 네리마구 위치	80
[그림 4-2] 도쿄도 도시계획체계	81
[그림 4-3] 네리마구 자치구계획(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위상	82
[그림 4-4]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절차	84
[그림 4-5]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체계	84
[그림 4-6]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보고서(안)	85
[그림 4-7] 네리마구 지역생활권 구분도	87
[그림 4-8] 네리마구 1지역 장래지역구조도	90
[그림 4-9] 네리마구 1지역 토지이용지침도	90
[그림 4-10] 네리마구 1지역 마을 만들기 방침도	90
[그림 4-11]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워크숍 모습	93
[그림 4-12]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지역별 종합의견	94
[그림 4-13] 네리마구 ‘지금부터 집회’ 모습	95
[그림 4-14] 네리마구 계획안 설명회 모습(2015. 5. 23.)	96
[그림 4-15] 오리건주 위치	97
[그림 4-16] 오리건주 내 포틀랜드시 위치	97
[그림 4-17] 포틀랜드시 커뮤니티 구분	99
[그림 4-18] 포틀랜드시 주민참여체계 예시	101
[그림 4-19] 포틀랜드시 도심부	103
[그림 4-20] 포틀랜드시 센트럴시티플랜 2035의 위상과 구성	104
[그림 4-21] 포틀랜드시 도심부 자문그룹의 구성	105

[그림 4-22] 포틀랜드시 워크숍 모습	108
[그림 5-1]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주요 쟁점	114
[그림 5-2]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연령 및 직업 구성	127
[그림 5-3] 여성 위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마포구 용강·상암생활권)	128
[그림 5-4]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개선해야 할 점	133
[그림 5-5] 주민설명회 필요성	133



01

연구개요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_연구의 범위와 방법

01 연구개요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서울시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 필요

서울시는 2014년 5월 확정·고시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계획을 지향한다.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 서울연구원과 사전 연구를 수행했고, 2013년 9월부터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2016년 말까지 5개 권역계획과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 4,000여명의 ‘주민참여단’이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등 3년간 총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림 1-1] 생활권계획의 도입

이번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자치구·지역주민들과 함께 수립하는 최초의 상향식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30 서울플랜」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역할, ‘상향식 계획’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참여단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활권계획이 당초 도입 의도에 맞게 수립되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수립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와 내용

-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계획수립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

이 연구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준비했던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을 분석한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를 수행했고, 2014년부터 4개 권역·10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¹⁾ 여기서는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을 ‘사전 기획-계획 착수-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주민참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립과정을 분석하였다.

- 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참여주체별 역할을 집중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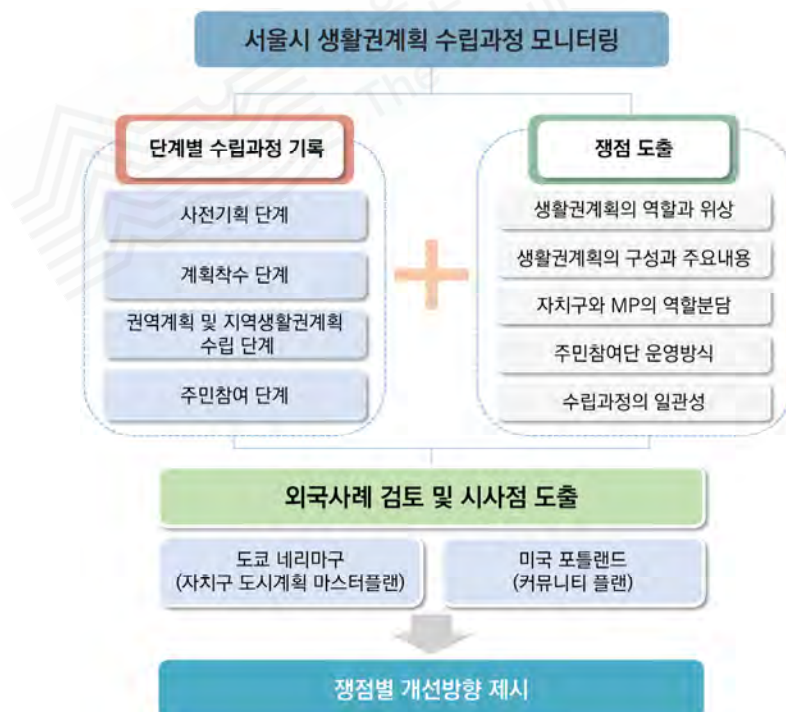
생활권계획은 현재 수립중이며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의 내용을 평가하기 보다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쟁점을 파악하고, 주민참여단 등 참여주체별 역할을 모니터링하는데 중점을 둔다.

1) 4개 권역(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외에 도심권은 2015년 수립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권역계획의 역할을 대신하며, 역사도심기본계획의 공간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용산구 등에 대한 지역생활권계획(11개)이 추가로 수립되고 있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은 ①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② 생활권 계획의 내용구성, ③ 서울시·자치구·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등의 역할 분담, ④ 주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방식, ⑤ 계획수립과정의 일관성 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쟁점별로 서울시, 자치구, 총괄계획가와 부문계획가, 주민 참여단 등 계획수립에 참여한 주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외국의 생활권계획 운영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일본 도쿄 네리마구(練馬区)의 자치구 계획과 미국 포틀랜드(Portland)시의 커뮤니티계획 등 외국의 생활권계획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리마구 사례에서는 자치구 역할과 주민참여단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포틀랜드 사례에서는 주민자문위원회 운영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방법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을 기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① 문헌조사와 계획안 검토, ② 총괄계획가 회의 및 주민워크숍 참관, ③ 외국의 주민참여사례 조사, ④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면담조사, ⑤ 총괄 및 부문계획가·기술용역사·워크숍 진행자(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간담회, ⑥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3] 연구방법

○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공문서, 회의록, 주민참여단 워크숍 결과,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등을 검토하였다. 2013년 3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생활권계획 관련 문서와 공문,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시, 총괄 및 부문계획가, 기술용역사 등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록을 활용하여 단계별 진행상황과 쟁점사항을 파악하였다.

○ 서울시 및 자치구 면담조사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과 목적, 계획수립 체계와 역할분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생활권계획추진반 공무원을 면담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22개 자치구를 방문하여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 주민참여 및 계획수립과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²⁾

- 참여주체별(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워크숍 진행자) 간담회

생활권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권역별 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워크숍 진행자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내용,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주민참여단 워크숍 등 계획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였다.

권역별 총괄계획가(4인)는 자문회의로, 10여명의 부문계획가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술용역사는 대표진과 실무진으로 나누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외국의 생활권계획 운영사례 조사

일본 도쿄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도심부 커뮤니티플랜(communitiy plan)의 수립과정과 주민참여단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권역별 총괄계획가회의의 참여 및 주민워크숍 참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북권 총괄계획가 회의³⁾에 참석하여 계획의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참관하면서 워크숍 운영방식과 내용, 주민들의 참여도와 반응을 파악하였다.

- 주민참여단 설문조사(535부)

서울시 최초로 시도되는 생활권별 주민참여단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25개 지역생활권의 2차 워크숍 종료 시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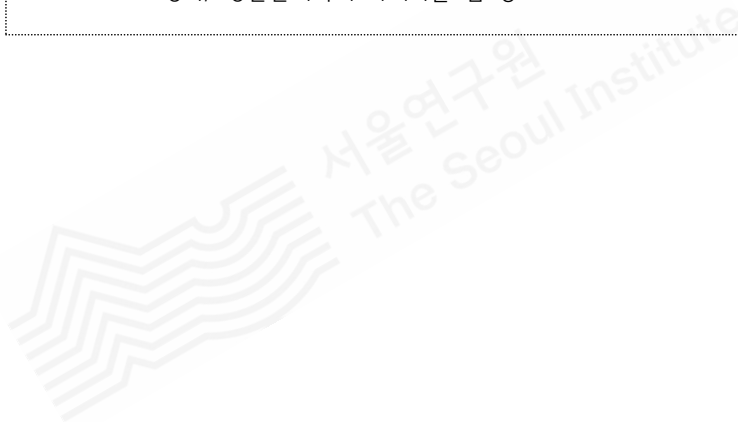
2)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이 수립되어 후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3개 자치구(종로, 중, 용산구)는 제외하였다.

3) 권역별 총괄계획가와 기술용역사 간 회의는 월 1~2회 개최되었는데, 2014년 9월부터 이 연구의 책임자가 동북권 부문계획가로 참여하면서 계획수립과정을 파악하였다.

설문내용은 생활권계획 참여경로와 인지도,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생활권계획의 문제점과 기대하는 점 등으로 구성되어 총 535부를 조사·분석하였다.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개요>

- 목적 :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조사
- 기간 : 2015년 5월 27일 ~ 10월 21일
- 대상 : 20개 자치구 25개 지역생활권계획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 총 535명
- 방법 : 주민참여단 2차 워크숍 종료 시점에 설문지 배부 후 수거
- 주요내용: 생활권계획 참여경로 및 인지도,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및 운영방식 평가, 생활권계획에 기대하는 점 등



02

생활권계획의 이해와 추진경과

- 1_ 생활권계획이란?
- 2_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내용
- 3_ 계획수립 방법과 주민참여
- 4_ 생활권계획 추진경과

02 | 생활권계획의 이해와 추진경과

1_생활권계획이란?

1)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과 목적⁴⁾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된 계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을 도입한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시·군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체계는 인구수가 적은 중소도시에는 적합하지만, 인구가 천만에 이르고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거대도시 서울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목표연도, 계획내용, 법적 구속력, 도면 축척(scale)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개별 필지단위로 작동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31~33쪽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31쪽

[그림 2-1]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

둘째, 지역과 주민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울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상의 불편함과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시민생활과 밀착된 작은 단위의 도시계획을 통해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사업을 연계하는 작은 단위의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32쪽

[그림 2-2]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2

셋째, 주민참여와 합의, 자치구의 협력에 기초한 상향식 도시계획을 도입하여 기존의 하향식 계획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전문가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향식 계획은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와 협력으로 수립된 도시계획은 집행과정에서도 큰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생활권계획을 계기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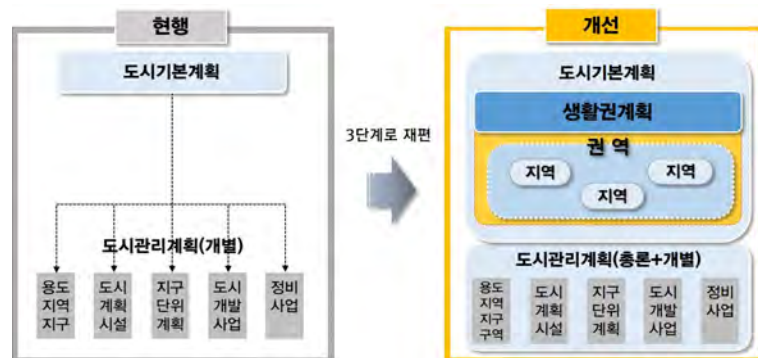
[그림 2-3]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3

2)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이자,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건의로 2014년 10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 여건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로, 전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계획이다.⁵⁾ 따라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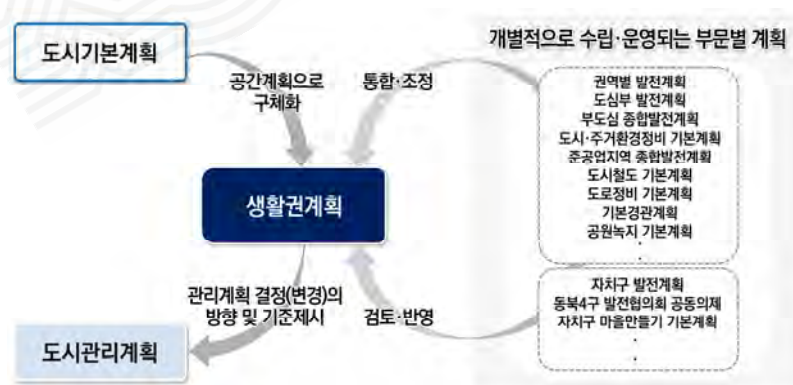
체화하며,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35쪽

[그림 2-4] 생활권계획의 위상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실국별로 수립되는 다양한 계획들을 권역별로 통합·조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과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192쪽

[그림 2-5] 생활권계획의 역할

- 5) 2014년 10월에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권역생활권계획과 일상생활권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자치단체가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으며, 생활권 단위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경우에 수립할 수 있다.(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제13절 참조)

3) 생활권의 구분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도시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이라는 2개의 위계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있다. 권역생활권(대생활권)은 자치구 3~7개를 포함하는 범위이며, 지역생활권(소생활권)은 3~4개 행정동을 합친 인구 10만 명 정도의 규모이다.

권역은 ‘도심·광역중심 등 고차중심지와 배후 주거지’로 이루어지며,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뉜다. 지역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로, 지구중심·역세권 등의 생활중심지와 배후주거지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행정구역·지형·토지이용·인구규모·행정동 간 통행량 등에 따라 총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된다.⁶⁾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42쪽

[그림 2-6] 서울시 생활권 구분(권역 및 동북2권 지역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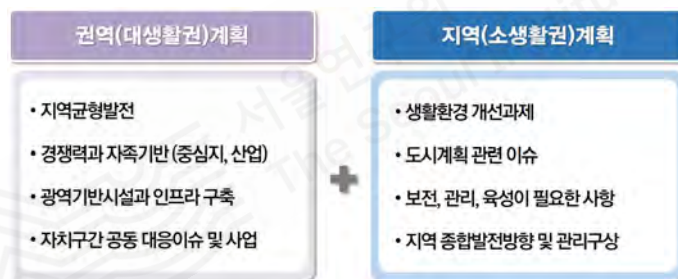
6) 현재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을 제외한 4개 권역, 105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도심권은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을 토대로 11개 지역생활권계획이 추가로 수립될 예정이다.

2_생활권계획의 구성과 내용

1)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은 공간범위에 따라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이루어진다. 권역 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하여 권역 발전의 목표와 전략 등을 제시한다. 주로 지역 균형발전, 광역기반시설, 권역의 경쟁력과 자족기반, 자치 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권역(대생활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슈들을 다룬다.

한편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관리구상을 제시하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주로 지역생활권(소생활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다룬다.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48쪽

[그림 2-7]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2)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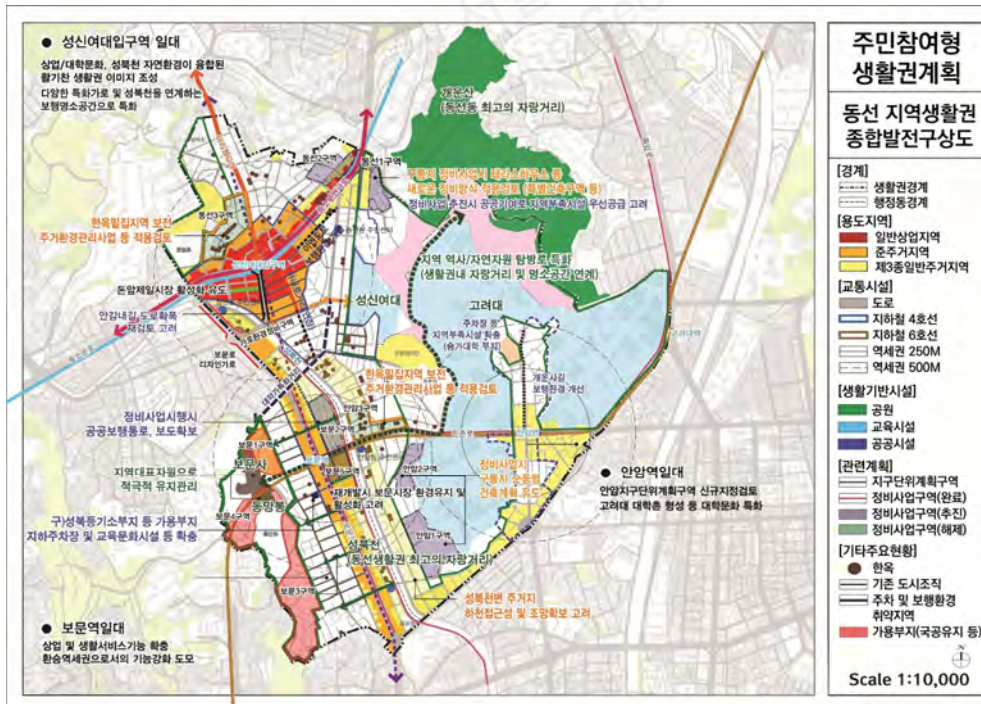
생활권계획의 내용은 크게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슈별 계획은 지역의 미래상과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주거·교통·생활서비스, 환경·안전·공공성 등 지역의 핵심이슈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략계획 형식으로 계획의 내용과 항목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여 수립할 수 있다.

공간계획은 이슈별 계획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등의 계획방향과 지침을 도면과 함께 제시한다.

생활권계획에서는 이슈별 계획의 최종도면으로 ‘발전구상도’를, 공간계획의 최종도면으로 ‘공간계획도’를 제시한다. 각 도면은 A4 용지에 생활권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며, 권역은 대략 1:20,000, 지역생활권은 1:15,000정도의 축척으로 표현한다.



[그림 2-8] 생활권계획의 내용구성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178쪽

[그림 2-9] 동선 지역생활권 종합구상도(여시)

3_계획수립 방법과 주민참여

1) 수립주체별 역할

생활권계획은 전문가(총괄계획가·부문계획가), 서울시·자치구, 주민참여단(행정동별 10인 내외 구성), 기술용역사 등이 참여하여 수립한다.⁷⁾ 전문가는 4인의 권역별 총괄계획가와 10인 내외의 부문계획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생활권계획의 수립 방향과 계획내용을 검토·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였다. 서울시에 는 ‘생활권계획 추진반’을, 자치구에는 ‘생활권계획 추진팀(TF)’을 조직하여 생활 권계획 수립과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권역계획은 서울시가, 지역생활권계획은 각 자치구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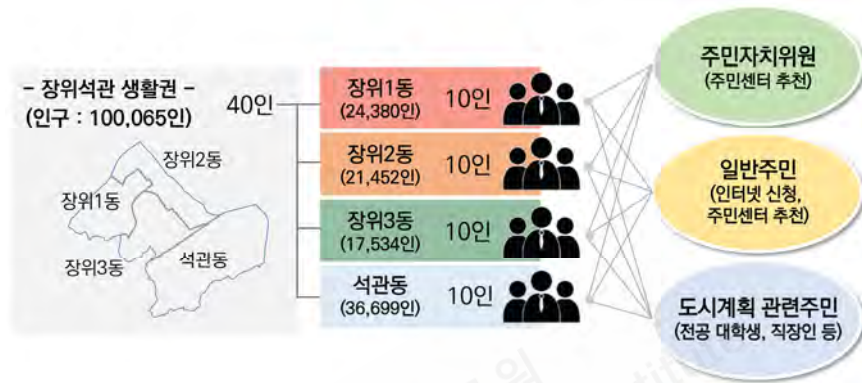
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별 총괄계획가 회의’와 ‘조정회의’에서 조정한다. ‘권역별 총괄계획가 회의’는 권역별 총괄계획가가 주재하는데, 부문계획가와 기술용역사 등이 참여하여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 이슈와 전략을 논의하였다. 한편, 서울시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는 서울시, 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등이 참여하여 권역별 계획내용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역생활권의 문제점과 강점, 개선사항 등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자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래상과 발전과제를 논의하였다.

7)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planning.seoul.go.kr>) 참조.

주민참여단의 인원은 행정동별 10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생활권 내 행정동 수에 따라 30~50인으로 구성한다. 주민참여단은 공모와 추천으로 모집되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 공모한 일반주민과 자치구·행정동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이 5:5의 비율로 참여하게 하였다.



[그림 2-10]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예시 : 성북구 장위석관 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지역생활권별로 2차에 걸쳐 4시간씩 개최된다. 1차 워크숍에서는 ‘생활권계획 이해하기, 우리 지역 그리기, 우리생활권 자원 찾기, 2030 우리생활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권계획과 지역 현황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2차 워크숍에서는 ‘우리 생활권 살펴보기, 우리 생활권 좋게 더 좋게, 생활서비스 시설 선호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자치구별로 워크숍 횟수를 늘리거나 사전 교육·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의 진행상황과 주민참여단 워크숍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다.

[표 2-1] 주민참여단 워크숍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1차 워크숍	생활권계획 이해하기	생활권계획 및 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 설명
	우리 지역 그리기	생활권 지도 함께 그리기(생활권 살펴보기)
	우리생활권 자원 찾기	지역자원 발굴
	2030 우리 생활권	2030년의 생활권의 미래상 설정
2차 워크숍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	1차 워크숍 결과 리뷰, 2차 워크숍 안내
	우리 동네 살펴보기	동별 문제점 도출 및 분류,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모색
	우리 생활권 좋게 더 좋게	지역생활권 단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추가 탐색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조사	중/소규모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및 이유 조사

자료 : 서울시, 2015,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운영 매뉴얼



[그림 2-11]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성북구 정릉생활권)

4_생활권계획 추진경과

서울시는 2012년 4월 사전연구를 시작으로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검토하고, 2013년 12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현재는 권역별 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2016년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사전연구를 통한 생활권계획의 도입

2012년 4월,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권계획의 필요성과 수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2013년 8월 도시계획국 내 ‘생활권계획팀’을 신설하고,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2013년 4월이다. 4월 1일 ‘미래 서울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이라는 기자설명회에서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알렸고, 같은 해 9월 9일 ‘서울시, 생활권계획 최초 수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 09. 09(월) 보도자료
 (일) 보도자료는 2013년 9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
 사진담당 : 사진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 2133-4305
 생활권계획팀 : 2133-4345
 주무관 : 김우영 : 2133-4346

서울시, '2~3개 행정동' 단위 생활권계획 최초 수립

- 5개 권역, 140개 지역 단위로 세분화된 정교한 도시계획 체계 마련
 - 지난 4월 발표한 '100년 도시계획'에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이래 적용
 - 도시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 사회적 합의에 의한 도시 만들기 추진
 - 9일(월)부터 2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중역 및주, 도심권역은 '15년'에 추진
 - 시, "도시기본계획 실현성 강화하고 지역과 생활밀착형 이슈 담아낼 것"

□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대성권역), 2~3개 행정동 단위의 140개 지역(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해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일괄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해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 이번 생활권계획은 도시계획현장 -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도시계획틀을 완성하게 된다.

○ 인구 천만의 서울시는 인구 10만의 도시와 동일한 도시계획체계로 인해 정교한 도시관리와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애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획 내용의 자외적 해석 등의 혼란으로 이어져 도시계획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와 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

□ 때문에 이번 생활권 계획은 지난 4월 발표한 '100년 도시계획'에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이래 이뤄지게 된다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9월(월) 통보권과 서남권, 10월에는 서북권과 동남권에 대한 생활권계획 수립 절차를 순차적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 입찰참가자격은 도시계획 전문 고등기술자 일체 인두 또는 3개 영역 개 분야이행방식으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 참여권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집터(www.a2b.go.kr)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입찰공고에 게시된다.

□ 나머지 도심권역은 현재 진행중인 역사도시관리 기본계획 완료 후 2015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생활권계획은 기존의 읍면설계 방식이 아닌 상향식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진행, 일반주민들이계획 수립과정~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12]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보도자료(2013. 9. 9.)

○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체결 및 2014년 시범 생활권계획 수립

2013년 11월부터 권역별로 용역을 체결하고 2014년 4월에 권역별 총괄계획가, 8월에는 부문계획가를 위촉하였다. 생활권계획은 권역별 총괄계획가의 주도로 수립하였고, 권역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계획의 형식과 기준을 조정해 나갔다.

또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2014년 6월과 9월, 자치구와 2차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참여단 운영방식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지역생활권계획을 처음 수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4년은 자치구당 1개의 지역생활권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했고, 2015년에 전체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모집을 홍보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22개 시범 지역생활권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료 : 서울시, 2014,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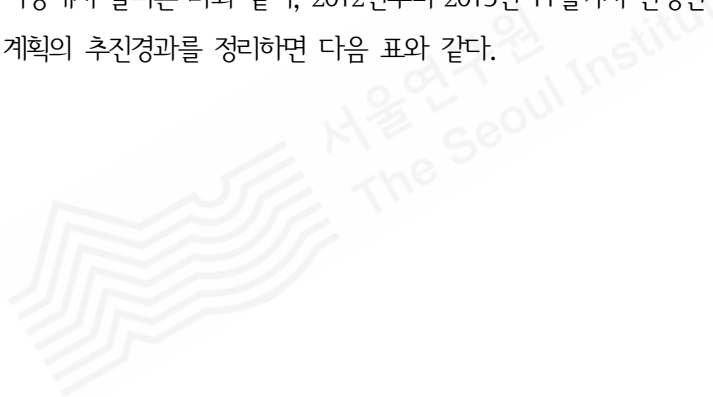
[그림 2-13] 22개 시범지역생활권 위치와 워크숍 일정(2014년)

- 2015년 83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2016년 전체 계획 완료 예정

2015년 1월, 서울시는 ‘권역별 생활권계획 추진계획’과 ‘주민참여단 모집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2015년 3월부터 83개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다시 모집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5년 11월 현재, 4개 권역의 이슈별 계획과 22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의 초안이 완성되어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3개 지역생활권계획도 주민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한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된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추진경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및 추진경과

연도	주요 일정
2012년	4. 5. 서울연구원 사전연구 착수
2013년	3. 18. 자치구 설명회 및 의견수렴 4. 1. 미래 서울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 발표 5. 31. 서울연구원 사전연구 종료 7. 25. 자치구 부구청장 간담회 8. 9. 생활권계획 수립·운영방안 시장보고 8. 서울시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 신설 8. 26. 자치구·용역사 생활권계획 교육 9. 9.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보도자료 배포 11. 29.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시작
2014년	4. 3.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도시계획국 합동 실무회의 4. 21. 권역별 총괄계획가 위촉 6. 10. 서울시·자치구 합동회의 7.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신설(생활권계획팀 확대·개편) 7. 30. 생활권계획 홍보계획 수립 8. 1. 부문계획가 위촉 8. 11.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운영계획 수립 8. 25.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시작 9. 3. 서울시·자치구 합동워크숍 9. 20.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시작 10. 31. (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12. 9. 생활권별 주민참여단 워크숍 최종 보고서 제출 12. 10. 서울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2015년	1. 26. 2015년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1. 30. 2015년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홍보계획 수립 2. 13.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매뉴얼 제작용역 추진 3. 3.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시작 3. 6. 서울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4. 17.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시작 5. 15. 생활권계획 부시장보고 10. 6~9. 생활권계획 주민참여활동 전시회 개최 10. 28. 중심지 범역설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 11. 18~19. 서울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03

생활권계획 단계별 수립과정 모니터링

- 1_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구분
- 2_사전기획 및 계획착수 단계
- 3_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단계
- 4_주민참여 단계 및 의견 분석
- 5_계획수립과정 모니터링 종합

03 | 생활권계획 단계별 수립과정 모니터링

1_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구분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진행과정을 ① 사전기획, ② 계획착수, ③ 권역계획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④ 주민참여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3-1]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단계 구분

1단계 ‘사전기획’ 단계는 생활권계획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가 시작된 2012년 4월부터 기술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한 2013년 11월까지이다. 2단계 ‘계획착수’ 단계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원칙과 조직·예산 등을 마련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다.

3단계는 ‘권역계획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단계로, 2014년 8월부터 시작되어 2016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4단계는 ‘주민참여’ 단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 2014년 8월~12월과 2015년 3월~10월이다. 주민참여과정은 지역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포함되지만,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수립한 최초의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2_사전기획 및 계획착수 단계

1) 사전기획 단계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2년 사전연구를 통해 생활권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자치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표 3-1] 사전기획단계 주요 진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전연구	-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2012. 4.~2013. 5.) - 생활권계획의 도입 필요성과 수립·운영방안 마련 - 동북2권과 성북구 동선생활권 대상으로 예비계획 수립 - 시장보고(2013. 8. 9.) - 생활권계획 관련 대외발표 및 전담조직 마련 요청
전문가 자문	-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자문회의(2013. 3. 14.) - 생활권계획의 명확한 법적 위상 설정 필요 100여 개 지역생활권계획의 단계별 수립방안, 자치구의 역할강화 방안 검토
자치구 설명회	- 자치구 도시계획 과장 등 설명회(2013. 3. 18.) - 생활권계획 설명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자치구 부구청장 간담회(2013. 7. 25.) -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 및 예산확보 요청 - 자치구-용역사 설명회 및 의견수렴(2013. 8. 29.) - 용역발주 방식 및 자치구 역할 설명
생활권계획 전담팀 신설 및 수립용역 발주	- 생활권계획팀 신설(2013. 8.)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내 1팀 체제 - 권역별 수립용역 발주 - 생활권계획 수립체계 및 역할분담 계획 등 마련 - 총 64억 원 예산계획 마련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보고 결과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결과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자치구-용역사 생활권계획 교육 결과보고 등을 참조하여 정리

○ 사전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⁸⁾

서울시는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생활권계획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간단계 도시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필요성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생활권의 구분, 계획내용의 구성,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였다. 사전연구에서는 동북2권(권역)과 동선지역생활권(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전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3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자문회의⁹⁾’를 개최하였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는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생활권계획의 법적인 위상을 명확히 할 것과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에 대해 단계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자치구 설명회 및 협조 요청

서울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3년 3차례의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3월) 설명회에서는 25개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의 필요성과 수립·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후 부구청장(7월)과 실무진(8월)을 대상으로 개최된 두 차례의 설명회에서는 구체화된 생활권계획의 수립방안을 설명하고, 자치구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과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다.¹⁰⁾

8)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세부 시행계획
서울시, 2013, 서울시 「2~3개 행정동」 단위 생활권계획 최초 수립 (보도자료)

9) 2012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위한 상시자문그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 심의기구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도시계획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의 발굴과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서울시 보도자료, 2012. 8. 16.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으로 미래 서울 설계한다')

10) 2013년 7월 부구청장 회의에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생활권계획 전담조직 및 추진팀(TF)을 구성하고,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자치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8월 설명회에서는 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 주민참여단

[표 3-2] 서울시-자치구 간 역할분담 계획

계획수립주체	역할
서울시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기준 제시 • 권역계획 수립 추진팀 구성 등 계획수립과정 총괄
자치구	•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추진팀 구성·운영 •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주관 •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세부 시행계획

**[그림 3-2]**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모습(2013. 3. 18.)

○ 서울시 생활권계획추진팀 신설 및 용역발주¹¹⁾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서울시는 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2013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생활권계획팀’을 신설하고,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을 권역별로 발주했다.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는데, 권역별 자치구 수에 따라 동북권 20억, 서남권 약 18억, 동남권 약 13억, 서북권 10억, 도심권 3억¹²⁾ 등 총 64억 원이 책정되었다.

운영방안, 서울시-자치구-용역사간 역할분담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11) 서울시 내부자료,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세부 시행계획

12) 도심권은 당시 수립 중이었던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할 예정이어서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2) 계획착수 단계

계획착수 단계에서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사를 선정하고, 총괄계획가와 부문계획가를 위촉하였다. 서울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추진팀을 구성하고, 생활권계획 전담조직을 확대하였다. 자치구도 서울시 요청에 따라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구성하고,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표 3-3] 계획착수단계 주요 진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기술용역사 및 총괄 및 부문계획가 위촉	- 기술용역사 선정(2013. 12.) - 권역별 총괄계획가(4인) 위촉(2014. 4.) - 부문계획가(12인) 위촉(2014. 8.)
서울시 도시계획 추진팀 구성 및 전담조직 확대	- 도시계획 추진팀 구성(2014. 4.) - 중심지, 용도지역, 밀도, 경관, 높이, 기반시설 관련 부서 간 협의체계 구성 - 도시계획과 내 생활권계획추진반 신설(2014. 7.) - 기존 생활권계획팀 확대 신설(1팀 → 1반 2팀)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 및 예산확보	- 서울시·자치구 합동회의(2014. 6.) -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 및 예산확보 요청 -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 2014년 예산확보(2014. 8.) - 13개 구가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3개 구 전담팀 신설) - 시범지역생활권(구당 1개) 워크숍 운영예산 확보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수립 도시계획국 협업체계 구성 운영방안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수립 조정회의(1차) 개최 알림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수립 서울시·MP단 워크숍 개최 알림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수립 시·구 합동회의 개최 계획 등을 참조하여 정리

○ 권역별 기술용역사 및 총괄계획가 선정

서울시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개 권역별로 기술용역사¹³⁾를 선정하고, 총괄 및 부문계획가¹⁴⁾를 위촉했다. 총괄계획가¹⁵⁾는 권역별 1인이며, 부문계획가는 권역별로 2~4인이 선정되었다. 권역별 총괄계획가는 생활권계획의 전체 내

13) 동북권은 건화와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서북권은 동림파엔디와 선전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다. 서남권은 미래이엔디와 주엔지니어링,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동남권은 제일엔지니어링과 희림종합건축, 동일기술공사가 담당하였다.

용을 총괄하고, 부문계획가는 교통·경관·부동산 등 분야별 검토를 담당했다. 또한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권의 총괄계획가가 생활권계획의 전체 내용을 조정하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 서울시 도시계획국 추진팀(TF) 구성¹⁶⁾ 및 생활권계획추진반 설립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중심지, 용도지역과 밀도, 높이 및 경관, 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국 차원의 추진팀(TF)을 구성하고,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시설계획과 등의 팀장과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할 도시관리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기존에 1개팀 체제였던 ‘생활권계획팀’을 2014년 7월부터 ‘생활권계획추진반’으로 확대·개편하여 2개팀 체제로 운영하였다.

○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TF) 구성 및 예산확보

2014년 6월 서울시는 자치구에 생활권계획 수립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치구로 하여금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하고,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음 수립하는 지역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생활권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만큼 1단계인 2014년에는 자치구별로 1개씩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인 2015년에는 자치구 주도하에 나머지

14) 총괄 및 부문계획가는 권역별 총괄계획가 4인, 부문계획가 12인, 총 16인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총괄/부문계획가 순)

동북권 : 이인성 교수(서울시립대) / 이재선 교수(연세대), 박태원 교수(광운대), 양재섭 박사(서울연구원), 김승배 대표(피데스기법)
서북권 : 이승주 교수(서경대) / 김찬호 교수(중앙대), 손동욱 교수(홍익대, 2014년), 이동훈 교수(서울과기대, 2015년)
서남권 : 백운수 대표(미래이앤디, 2014년),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2015년) / 고진수 교수(광운대), 김도경 교수(서울시립대)
동남권 : 남진 교수(서울시립대) / 이동민 교수(서울시립대), 이광환 대표(해안건축), 유천용 대표(엠펜아이엔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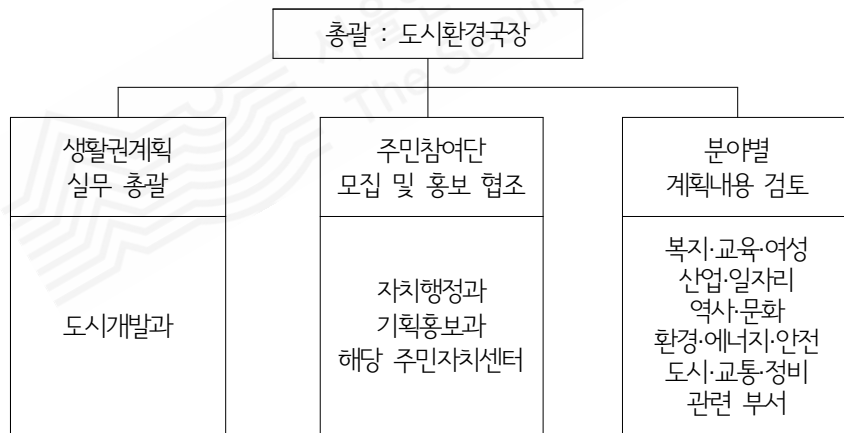
15) 총괄계획가는 도시계획·건축 등의 실무경험과 학식이 뛰어나고 서울시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다른 업무에 주요하게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16)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국 협업체계(TF) 구성·운영계획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자치구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추진팀(TF)을 구성하고,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다.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은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행정국·복지환경국·문화관광국 등 자치구 내 관련부서로 구성되어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사업을 검토하였다. 예컨대, 중랑구는 도시환경국장의 총괄 하에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분야별 계획내용 검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구성하였다([그림 3-3] 참조).

2014년 13개 자치구에서 생활권계획 추진팀이 구성되었고, 광진·마포·동작구 등 3개 자치구에서는 생활권계획 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자치구 예산은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참여단 인원·운영방법 등 자치구 여건에 따라 최소 460만 원에서 최대 2,160만 원까지 편성되었다.¹⁷⁾



자료 : 중랑구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수립계획'

[그림 3-3]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중랑구 예시)

17) 당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약 2,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3-4] 2014년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 및 예산 현황

자치구	전체 생활권 개수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시범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예산 (만 원)
성동구	4	-	성수 생활권	740
광진구	4	전담팀 신설	중곡 생활권	960
동대문구	4	-	장안 생활권	500
중랑구	4	○	신내·망우생활권	1,000
성북구	5	○	정릉 생활권	1,000
강북구	4	-	수유 생활권	900
도봉구	5	○	창동 생활권	1,200
노원구	7	-	노원 생활권	1,400
은평구	5	○	불광 생활권	640
서대문구	4	○	홍제 생활권	1,600
마포구	5	전담팀 신설	합정·서교 생활권	1,900
양천구	3	-	화곡2 생활권	460
강서구	6	○	목동1 생활권	700
구로구	5	○	오류·수궁 생활권	1,000
금천구	3	○	독산 생활권	800
영등포구	5	-	영등포 생활권	500
동작구	5	전담팀 신설	상도 생활권	960
관악구	5	○	난곡 생활권	2,000
서초구	4	○	방배 생활권	1,000
강남구	7	○	논현·역삼 생활권	2,160
송파구	7	○	가락 생활권	2,000
강동구	5	○	천호·성내 생활권	1,280

자료 :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정리

3_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단계

1) 추진경과

생활권계획은 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된 2013년 12월에 시작되어 2016년 12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계획의 형식과 원칙, 주민참여방안 등을 구체화하면서 권역별 기초조사를 수행했고 2014년 9월부터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립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며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생활권계획의 형식과 내용, 표현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동북권(권역)과 성북구 정릉지역생활권(지역생활권)을 사례로 생활권계획의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권역계획 수립

권역계획은 ① 기초현황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② 이슈별 계획 수립, ③ 공간계획 수립, ④ 자치구 의견수렴 및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수립되고 있다.

[표 3-5] 권역계획 수립과정

구분	2014. 4.~	2014. 9.~	2015. 4.~	비고
기초현황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필요 시 추가보완
이슈별 계획 수립				• 초안마련 후 자치구의견 수렴 중
공간계획 수립				• 중심지 부문 진행 중 • 그 외 부문은 형식과 내용 조정 검토
자치구 의견수렴				• 이슈별 계획(안)과 지구 중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자료 : 동북권 담당 기술용역사 담당자 면담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기초현황 분석 및 관련계획을 검토했고, 9월부터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이슈별 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간계획의 계획내용과 수립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기초현황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권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동북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자치구 수가 많고(8개) 지역별로 특성이 달라서 동북1권과 동북2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권역의 입지여건·자연환경·연혁 등 ‘기초 현황’과 용도지역·용도지구·정비사업·대규모 개발지 등 ‘도시계획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인구·주거·건축물 용도·사업체 및 종사자·사업체 업종 등의 ‘여건 변화’, 특화산업·주요 시설현황과 계획·안전재난 등 ‘부문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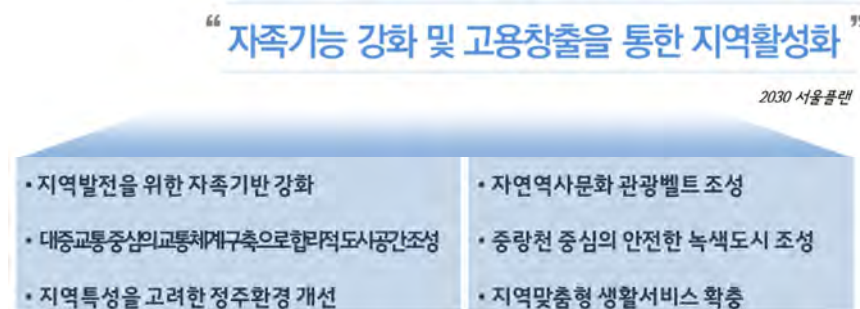
다음으로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였다. 「2030 서울플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4. 8),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4. 12) 등의 주요 내용과 동북권에 해당하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장과 구청장 공약사항, 현장시장실의 주요 이슈, 자치구 계획과 주요 사업계획 등도 함께 분석하였다.

동북권은 다른 권역과 달리, 2014년 10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권역 내 8개 자치구 주민 총 3,88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생활환경과 시설 평가, 자랑거리와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 이슈별 계획

권역계획의 이슈별 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권역별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슈-목표-전략’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일자리·산업, 도시공간·정비, 교통, 공원·녹지 등을 필수부문으로 하고, 그 외 항목은 권역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북권의 미래상은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일자리, 도시공간·교통, 정비(주거),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6개 부문에 대한 17개 목표와 36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11월, 동북권 권역계획(안)

[그림 3-4] 동북권 미래상과 주요 이슈

예컨대 산업·일자리 부문의 이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족기반 강화’이며, 이를 위해 ‘중심지 육성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 ‘창동·상계 신 경제중심지 조성’, ‘성수 준공업지역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육성’, ‘이전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별로 세부 전략이 제시되는데, ‘중심지 육성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에 따른 전략은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활성화’, ‘망우지역중심 활성화’ 등이 있다([표 3-7 참조]). 각 전략은 「2030 서울플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우선추진 사항과 육성·관리 방향 등을 담고 있다.

2015년 3월경 이슈별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내부 보고와 협의를 거쳤고, 4월부터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¹⁸⁾

18) 이슈별 계획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수렴은 공문을 통해 계획안을 전달하고, 기한을 정해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3-6] 동북권 이슈와 목표(예시)

부문	이슈 및 목표
산업·일자리	지역발전을 위한 자족기반 강화 목표 1. 중심지 육성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 목표 2.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 목표 3. 성수 준공업지역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육성 목표 4. 이전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공간·교통	교통체계 정비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 목표 5. 경전철 신설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강화 목표 6. 지역 내 도로교통체계 개선 목표 7. 녹색교통체계 구축(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등)
정비(주거)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주환경 개선 목표 8. 주거지 특성별 관리 및 발전방향 제시 목표 9.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주거지역 관리 목표 10. 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
역사·문화·관광	특화자원 활용 목표 11.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활성화 목표 12. 청록4구 자연역사문화길(청록길) 명소화 목표 13. 낙후된 동북권 지역이미지 제고
환경·안전	중랑천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 목표 14. 중랑천 등 지천을 녹색중심공간으로 조성 목표 15.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등과 연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복지·교육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목표 16.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목표 17. 생활기반시설의 서비스 불균형 해소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11월, 동북권 권역계획(안)

[표 3-7] 동북권 이슈별 목표와 전략(예시)

목표	전략
중심지 육성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	전략 1-1.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활성화 - 서울플랜에서 '지역 간 철도교통 및 환승역세권 잠재력 활용하여 상업문화 중심 기능을 집적시키는 방향' 제시 - 이에 따라 '역세권 입체복합 및 상업, 업무기능 도입확대', '대중 교통 환승시스템 정비 등 교통체계 개선', '주변 전통시장과 연계한 쇼핑, 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등 필요 전략 1-2. 망우 지역중심 활성화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11월, 동북권 권역계획(안)

○ 공간계획

생활권계획의 공간계획은 ‘권역별로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서울플랜」에서는 ‘지구중심 이하’의 중심지를 생활권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중심지 조정이 필요한 여러 자치구들의 관심이 공간계획에 집중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공간계획을 ‘중심지’, ‘경관과 높이’, ‘용도지역과 밀도’, ‘생활기반시설’ 등 4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별 계획팀(용역사)이 한 부문씩 담당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중심지는 동북권, 경관과 높이는 서북권, 용도지역은 서남권, 기반시설은 동남권 계획팀이 검토하였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조정회의¹⁹⁾’에서는 공간계획의 4개 부문에 대한 수립방안을 논의하였다. 초기에는 신규 지구중심의 지정을 요구하는 자치구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최근에는 중심지 범역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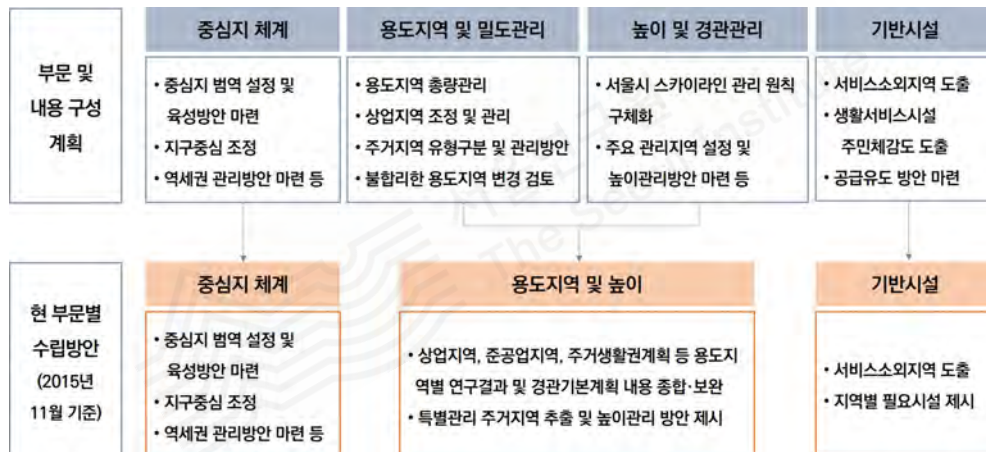
용도지역, 경관, 생활기반시설 등 공간계획의 나머지 3개 부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용도지역의 총량관리와 변경, 경관 및 스카이라인 관리, 생활기반시설 공급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항인데다가 권역별·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워낙 달라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계획 실현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거나 지원이 동반되는 계획내용을 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로 인해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도면을 어떤 수준에서 어디까지 서술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월 1회 간격으로 개최되는 공식회의로, 4개 권역의 총괄계획가와 기술용역사가 모두 참여한다.



[그림 3-5] 동북권 중심지 협의 모습(2015. 3. 24.)



[그림 3-6] 공간계획의 부문별 조정내용

■ 동북권 권역발전구상도



■ 동북권 공간관리지침도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11월, 동북권 권역계획(안)

[그림 3-7] 권역계획(안) 도면 예시 : 동북권

3)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서울시는 도심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지역생활권을 105개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개 자치구별로 1개씩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나머지 83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는 시범생활권인 성북구 정릉지역생활권을 사례로 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본다.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은 총 6개 단계로 구분되는데, ① 생활권 구분, ② 시범 지역생활권 선정, ③ 기초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④ 주민참여단 의견 수렴, ⑤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 수립, ⑥ 자치구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표 3-8] 지역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단계	기간
지역생활권 구분	2014년 4월~6월
시범지역생활권 선정	2014년 6월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2014년 7월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2014년 7월~12월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 수립	2015년 1월~3월
자치구 협의를 통한 보완	2015년 4월~현재

자료 : 동북권 담당 기술용역사 담당자 면담결과를 토대로 작성

○ 생활권 구분 및 시범 지역생활권 선정

서울시는 먼저 자치구별로 지역생활권을 구분하였다. 지역생활권은 자치구 내에서 행정동 경계를 기준으로, 인구, 지형·지세, 중심지 특성, 통근·통행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이후 자치구의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생활권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이름을 변경하여 지역생활권 구분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치구별로 1개씩 22개의 시범 지역생활권을 선정하였다. 시범 지역생활권은 인구구조·토지이용 특성이 자치구 특성을 대표하거나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 기초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2014년 7월부터 지역생활권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와 관련계획 검토가 시작되었다. 동북권은 지역생활권별 특성과 이슈를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로 지역생활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생활권별 인구·용도지역·토지·건축물·산업·교통·기반시설·재개발 현황 등을 자치구 평균과 비교·분석하고, 역사문화유산·대학·지역축제 등 지역특화자원을 조사하였다.

또한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한 ‘2020 성북비전’과 ‘정릉 발전 추진 종합계획’, 구청장 공약사항 등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정릉지역의 발전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정릉지역생활권은 북한산이 인접해 있고 한옥이 산재해 있어 산사태, 한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및 의견 반영

생활권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릉지역생활권(정릉1·2·3·4동)의 주민참여단은 동별 10명씩 총 40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워크숍을 2014년 9월 27일(토)에, 2차 워크숍은 11월 8일(토)에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정릉지역의 자연과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버들잎 축제, 김두한 문화거리, 고사리농원 등 지역자원 발굴과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정릉지역생활권은 다른 자치구와 달리 행정동별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1·2차 워크숍이 끝난 후 두 차례(10월 21일과 11월 27일) 주민대표 모임을 개최하였다. 주민대표와 성북구 담당공무원, 워크숍 진행자 등 6~7인이 참여하여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고 주민 의견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릉지역의 주차장 설치, 북한산 주변 가로환경 정비, 정릉천 주변 체육시설 보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참여단 워크숍 결과

워크숍 개요

• 1차 워크숍

- 일정 : 2014.09.27(토), 13시~17시
- 참석인원 : 36인(총40인, 참석률 90.0%)

• 2차 워크숍

- 일정 : 2014.11.8 (토), 9시~13시
- 참석인원 : 24인(총40인, 참석률 60.0%)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항목	소규모 시설
1순위	어린이집
2순위	소공원
3순위	소규모 공영주차장

항목	중규모 시설
1순위	다목적체육센터
2순위	공영주차장
3순위	문화예술회관

주요이슈

항목	주요이슈
중심지	• 아리랑 시장 재정비
주거지	• 스카이라이프 철거 • 한옥집 보존
도로및 교통	• 주차문제 교통체증 • 내부순환도로 소음
생활 서비스 시설	• 청소년시설 • 주민센터 노후화 • 우범지대 가로등 설치
지역특화	• 버들잎 축제 활성화 • 활터복원 • 어수정복원 • 정릉 활성화 • 옛가로수 스토리 팻말을 담은 스토리텔링 문화거리 조성 • 김두한 문화거리 • 정릉천길(길음역~북한산 입구) 완성 • 정릉4동 고사리농원 활용 • 예술가 테마마을

■ 정릉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대표 모임

1차 모임	
• 개요 - 일정 : 2014.10.21(화) 10:00~11:00(60분) - 장소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 참석자 : 총 7명(주민대표 4, 상임기획팀 2, 파실리테이터 1) • 회의내용 - 주민대표 모임 취지 및 역할 - 주민워크숍(1차) 토의 결과 토론회 - 주민설문조사 결과 토론회 - 서울시, 성북구 향후 일정 설명 등 - 주민워크숍(2차), 전문가 특강 운영 관련 협조	
구분	주요내용
정릉1동	- 생활편의시설이 다른 동네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여 개선책 필요
정릉2동	- 정릉(신덕왕후 강변로) 실리기 관광지와 주차장 조성, 역사테마를 반영한 가로등 설치, 역사관련 벽화조성, 도로정비, 핸드메이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장터 조성 - 정릉~북한산 관광코스 조성 - 북한산 경국사 주변 차별화(가로정비 필요) - 내부순환로 주변 소음 문제 해결방안 필요 - 아리랑시장 활성화 필요
정릉3동	- 숲길로 주변 방음벽 설치 필요
정릉4동	- 단체활동을 위한 공간필요(개천부지를 활용하여 바비큐장 조성) - 정릉동 대표 축제인 버들잎축제를 위한 대규모 공간 필요 - 지역 내 사업은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마을만들기, 소상공살리기와 연계) - 마을만들기 사업 절차가 어려움에 따라 주민참여가 힘들

2차 모임	
• 개요 - 일정 : 2014.11.27(목) 15:00~16:30(90분) - 장소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 참석자 : 총 6명(주민대표 3, 상임기획팀장, 실무자) • 회의내용 - 주민대표 모임 취지 및 역할 - 주민워크숍(1차, 2차)에서 도출된 주민건의도론 - 서울시, 성북구 향후 일정 설명 등	
구분	주요내용
정릉1동	- 송덕초등학교 인근 쓰레기 하차장 자중화 및 상부 녹지공간 조성요청 - 정릉천을 정릉1~4동까지 연결하고, 주변으로 차전거도로 및 주민체육 시설 보강(개문신까지 연계) - 지역축제(버들잎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등 - 생활기반시설부족에 따른 대책마련
정릉2동	- 신각별마 주변 폐물야채 철거 후 어린이공간으로 활용 등 개선방안 필요 - 스카이라이프 철거 등 대책마련 필요 - 아리랑시장~정릉까지의 테마가 있는 지역특화 전통거리 조성 - 아리랑시장 내 도로보강, 상가입구 정비 등 미관상 문제 해결 - 어수정 복원 등 지역의 스토리텔링 구축을 통한 정릉동 관광화 - 정릉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정릉4동	- 송정길로 인한 교통체증 심각함에 따라 해결책 필요 - 정릉천 주변을 활용하여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서경대를 중심으로 문화거리 조성(상가활성화, 차없는거리 운영 등) - 지역축제(버들잎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 정릉초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등경사를 정릉초고지로 이전 후 등주민센터를 스포츠센터, 미로시설 등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활용) 등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7월, '성북구 정릉 지역생활권계획(안)'

[그림 3-8] 정릉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과 주민대표 모임 결과

○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완료된 2014년 말부터 동북권 총괄 및 부문계획가와 기술용역사가 시범 지역생활권의 계획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역현황, 관련계획,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미래상과 5개 목표를 정하고,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릉지역생활권은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을 오게 하고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정릉생활권’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산 및 정릉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릉천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발전동력 마련’ 등 5가지 목표와 15가지 전략을 마련하였다. 공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공시설의 공급 등 각 전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도시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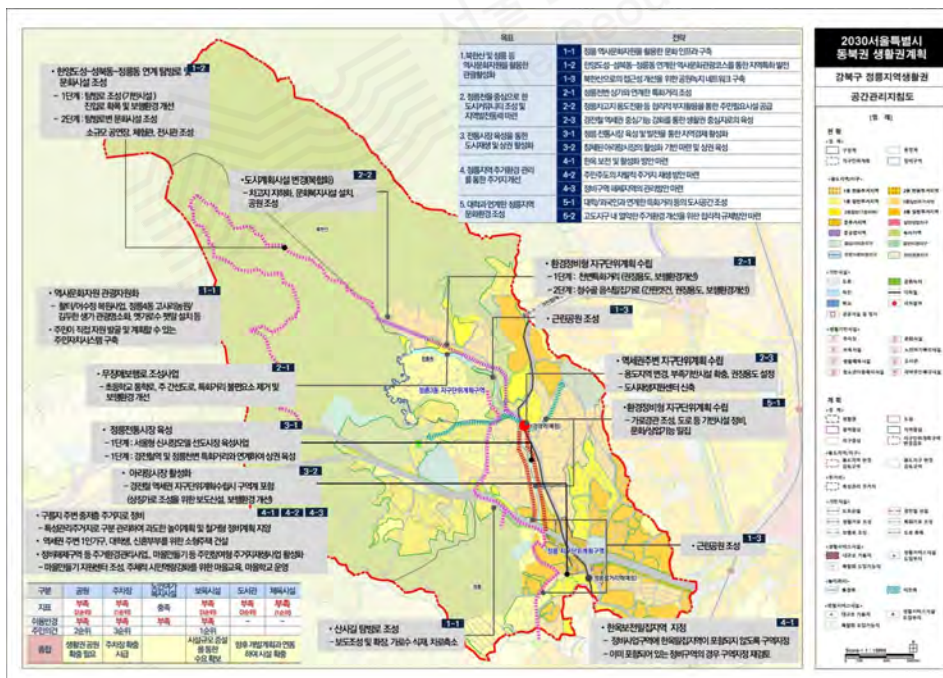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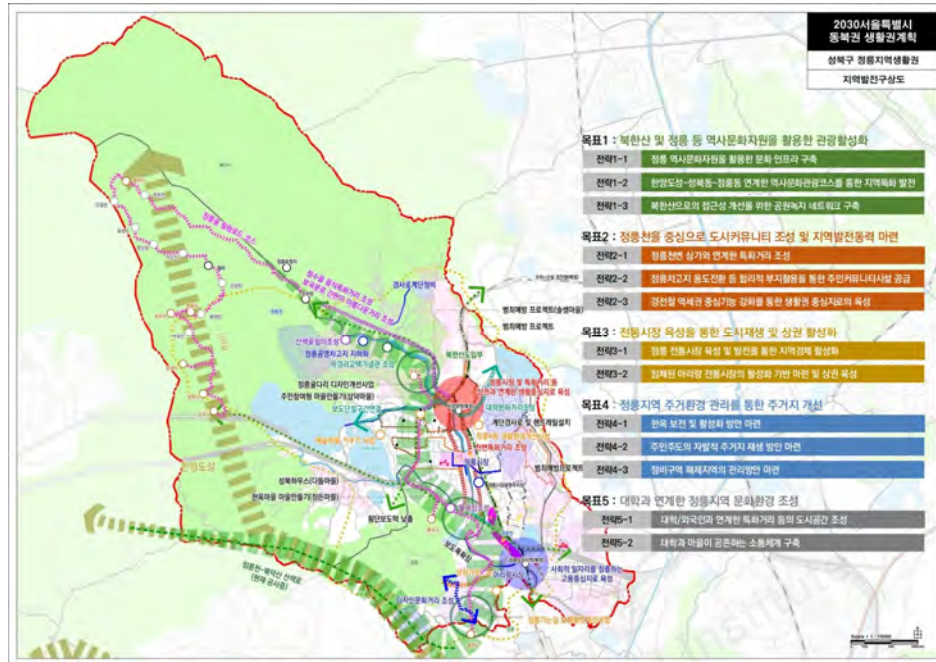
정릉생활권계획의 내용은 월 2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총괄계획가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특히 성북구의 경우에는 2014년 9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구청장 보고를 거치면서 계획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였다.²⁰⁾

목표	전략
목표1 북한산 및 정릉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1-1. 정릉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 구축 1-2. 한암도성-성북동-정릉동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코스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 1-3. 북한산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목표2 정릉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발전동력 마련	2-1. 정릉천변 상가와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2-2. 정릉차고지 용도전환 등 합리적 부지활용을 통한 주민커뮤니티시설 공급 2-3. 경전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생활권 중심지로의 육성
목표3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3-1. 정릉 전통시장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 참체원 아리랑 전통시장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상권 육성
목표4 정릉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통한 주거지 개선	4-1. 한옥 보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4-2. 주민주도의 자발적 주거지 재생 방안 마련 4-3.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마련
목표5 대학과 연계한 정릉지역 문화환경 조성	5-1. 대학/외국인과 연계한 특화거리 등의 도시공간 조성 5-2. 대학과 마을이 공존하는 소통체계 구축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7월, ‘성북구 정릉 지역생활권계획(안)’

[그림 3-9] 정릉생활권 계획의 목표와 전략(안)

20) 성북구 외에도 송파구, 서초구, 강북구, 구로구 등 자치구나 구청장의 관심이 많은 자치구에서 구청장 보고를 거쳤다.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7월, '성북구 정릉 지역생활권계획(안)'

[그림 3-10] 지역생활권계획 도면 예시 : 성북구 정릉생활권

○ 계획안 보완 및 2015년 2단계 계획 수립

서울시는 22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 4월 공문을 발송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검토하고 부서별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사의 설명이나 구청장 보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을 자치구의 발전계획이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내용 중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하거나 부연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일부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의 실현전략과 재정지원 방안까지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83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운영하고, 계획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당초에는 2단계 지역생활권계획(83개)을 자치구가 주도하여 수립하도록 했지만,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과 표현방식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자치구가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의 모집과 운영, 서울시 요청에 따른 자료 협조와 계획안 검토 등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05개 지역생활권 중에는 특별한 변화나 해결해야 할 계획이슈가 없는 생활권도 있다.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주거지역은 학교·생활편의시설·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특별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없어서 계획이슈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역생활권별 이슈를 균형있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생활권 단위의 개별적인 검토보다 자치구 차원에서 각 지역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_주민참여 단계 및 의견 분석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주민참여단 모집 및 워크숍 운영과정을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또한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총 535부)에 나타난 워크숍 및 주민참여단 운영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분석한다.

1) 2014년 22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의 참여과정

○ 생활권계획 홍보 및 홈페이지 개설²¹⁾

서울시는 2014년 8월부터 생활권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였다. 버스, 지하철 등에 약 2,800여장의 포스터를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지하철 영상물·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단 모집을 홍보하였다. 그 외 라디오 인터뷰, TBS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단에 지원하도록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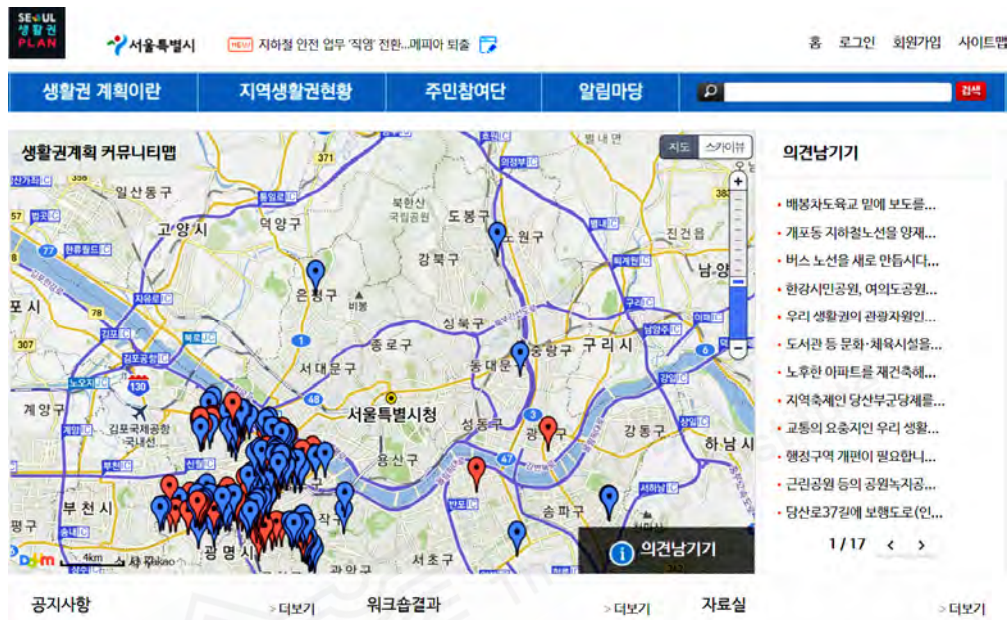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홍보 모니터링 시행 계획

[그림 3-11] 생활권계획 홍보물

한편, 생활권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4년 8월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planning.seoul.go.kr>)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

21)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홍보계획,
서울시 내부자료, 2014, 생활권계획 홍보 모니터링 시행 계획

이지를 통해 생활권계획과 지역에 대한 정보와 자치구별 주민참여단 워크숍 일정,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권 계획 홈페이지는 이후 계획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 <http://planning.seoul.go.kr/>

[그림 3-12]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 주민참여단 운영방안 마련 및 자치구 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워크숍 진행업체의 자문을 받아 2014년 9월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워크숍 진행자들은 워크숍 프로그램의 순서와 명칭,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한 준비물 등 매뉴얼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대한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자치구 합동 워크숍²²⁾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자치구와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주민참여단

22) 서울시, 자치구 55인과 권역별 총괄계획가기술용역사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자의 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참여단을 구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범위,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자치구는 시비 지원 및 홍보 강화, 자치구에 계획수립 권한이양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주민참여단 모집

각 자치구는 2014년 9월부터 시범 지역생활권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였다. 포스터·현수막과 구청 홈페이지·소식지·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단 모집을 홍보하였다. 22개 지역생활권(87개 동)의 주민참여단으로 총 913명이 모집되었는데, 이 중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참여의사를 밝힌 자발적 참여자는 지역생활권별 5명 정도로 매우 적었다.

당초 주민참여단은 ‘일반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을 5:5 비율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반주민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은 통·반장이 상당수 참여했다.

○ 22개 시범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2014년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22개 시범 지역생활권별로 2회씩 총 42회가 개최되었다.²³⁾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에 개최되었고, 지역생활권별로 4시간씩 두 차례 진행되었다.

1차 워크숍에서는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의 현황과 장래 모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숍에서는 현황과 미래상을 토대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워크숍은 행정동별 분임토의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자치구가 선정한 워크숍 진행자

23) 도봉구와 노원구에 인접한 2개 지역생활권이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퍼실리테이터)²⁴⁾가 진행을 담당했다. 가급적 많은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장 투어, 전문가 특강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정릉생활권 및 신내망우생활권 워크숍 결과보고 자료

[그림 3-13] 시범지역생활권 워크숍 모습

24)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회의·워크숍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진행자를 말한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는 '총괄 진행자'와 동별로 배치된 '테이블 진행자'가 워크숍 진행을 담당하였다.

[표 3-9] 1차 워크숍 프로그램(2014년 영등포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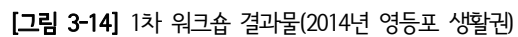
항 목	시간(분)	주요 내용
환영과 안내	10	- 인사말씀 및 워크숍 일정 안내
같이 보는 서울시 도시계획	20	-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방향 - 생활권계획 소개
함께하는 시작 한마당	30	- 자기소개, 기대 및 다짐 나누기
소중하지 아니한가! 생활권계획 참여단	10	- 주민참여의 의미 - 주민참여단의 역할 - 권역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이해
(분임토의1) 우리 생활권 자세히 보기	50	- 각 동네지도, 마을 자원 지도 그리기
(분임토의2) 우리가 생각하는 살기좋은 곳	40	- '살기 좋은 지역/살고 싶은 지역의 조건' 탐색
(분임토의3) 다시 그리는 미래지도	60	- 조건 탐색 이후 미래의 모습을 마을 자원 지도에 그리고 지도 이름짓기
폐회	20	- 2단계 워크숍 일정 및 과제 (사진 찍기) 안내
총 8개 세션	240	<휴식시간 포함>

자료 : 영등포구, 2014, 영등포구 1차 주민워크숍 추진결과

[표 3-10] 2차 워크숍 프로그램(2014년 영등포생활권)

항 목	시간(분)	주요 내용
함께 하는 기운내기	10	- 구청장님 인사말씀 - 개최 및 워크숍 일정 안내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20	- 1단계 워크숍 결과물 리뷰 - 1단계 과제 및 2단계 아젠다 공유
(분임토의1) 우리 생활권 좋아요, 아쉬워요!~	60	- 이슈별 자원 및 시설 평가
(분임토의2) 우리 생활권 좋게, 더 좋게!	90	- 이슈별 자원 및 시설 평가 - 이슈별 동/생활권/구 단위의 개선방안 모색 - 시민누리공간 찾기
(분임토의3)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정하기	40	- 지역 미래상 리뷰 - 지역 발전방안 모색 -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조사
축하와 마무리	20	- 추진과 다짐 나누기 및 기념촬영 - 향후 계획 안내
총 6개 세션	240	<휴식시간 포함>

자료 : 영등포구, 2014, 영등포구 2차 주민워크숍 추진결과





자료 : 영등포구, 2014, 영등포구 2차 주민워크숍 추진결과

[그림 3-15] 2차 워크숍 결과물(2014년 영등포 생활권)

○ 워크숍의 주요 결과²⁵⁾

22개 시범 지역생활권 워크숍에서 주민들은 총 650여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주차공간 부족, 도로 확폭, 도서관·체육시설·노인복지관 등 교통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가시설의 설치, 지역 축제 및 지역특화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동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성 의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 등 생활권계획과 무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표 3-11] 2014년 주민참여단 워크숍의 주요 주민의견

분 야	개수	주요 내용 예시
중심지	59	• 대기업본사 유치, 대규모 쇼핑몰 조성 • 준공업지역 정비 등 • 침체된 로데오거리, 상업지역의 문화기능 활성화
주거지	90	• 노후 아파트 철거, 한옥 보존 • 주거환경 저해하는 섬유공장 이전 및 편익시설 확충
교통·생활기반시설	334	• 주차장 부족문제 및 교통체증 해결 • 도로 및 자전거도로 확폭·확충 등 •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공간 확충
안전	45	•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등 • 공장주변 대기오염 관리, 노숙자 및 집장촌 정비 • 산사태, 도로의 침수 예방 • 미활용 지하도 시설 철거 등
기타	127	• 상업지역 지정 및 준공업지역 해제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축제 등 지역특화 방안 마련 • ○○변전소의 녹지공간에 캠핑장, 텐트촌 등 휴식공간 조성 • 마을 명소나 먹거리 등을 알리는 마을지도 제작 • ○○거리 특성화 강화(상징 조형물 설치)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국, 2015, 2014년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개최결과

25) 서울시 도시계획국, 2015, 2014년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개최결과

22개 시범 지역생활권 워크숍이 종료된 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평가하고 2015년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주민참여단 모집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어렵고, 생활권계획 진행상황이 자치구에 공유되지 않아 주민들의 질문이나 민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단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워크숍 진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2015년 2단계 83개 지역생활권 참여과정

○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자치구 설명회 개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을 토대로 2015년에는 자치구별로 3~4개씩 지역생활권계획을 위한 주민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서울시는 워크숍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치구가 체계적으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매뉴얼에는 참여단 모집·워크숍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등 워크숍 전 과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자치구 담당자와 워크숍 진행자를 대상으로 배포되었다.

	01 자원의 탐색과 미래상의 도출	02 문제점 탐색 및 발전방안 마련
설명	생활권계획 참여단의 1차 워크숍은 주민들이 모여 참여단으로서의 공식적인 첫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	생활권계획 참여단의 2차 워크숍을 토대로 지역의 주요 문제와 원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목표	-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공 마인드 제고 - 생활권계획 및 참여단 역할에 대한 이해 - 지역의 자원발굴 및 활용방안 탐색 - 지역생활권의 미래상 도출	- 지역생활권 내 현안 문제점과 원인 도출 - 지역생활권 내 문제점 해결방안 탐색 - 생활서비스시설의 선호도와 이유 도출
주요내용	- 우리 지역 그리기 - 우리생활권 자원 찾기 2030 우리 생활권	- 우리생활권 살펴보기 - 우리생활권 좋게 더 좋게 - 생활서비스 시설 선호도 조사
결과물	- 함께 그린 우리 지역지도 - 지역자원 및 활용방안 - 자원 표기 실제 지도 (경관자원 및 시민누리공간 표기) - 생활권 미래상 - 행정동별 참여자 명단	- 지역의 문제점 목록 -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방안 - 문제점 표기 실제 지도 - 생활서비스시설 선호도 및 이유 - 주민 참여 소감

자료 : 서울시, 2015,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운영매뉴얼 27쪽

[그림 3-16] 주민참여단 워크숍 매뉴얼 예시

한편, 2015년이 되면서 9개 자치구에서 생활권계획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여러 워크숍 진행업체가 새롭게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3월 초 자치구 워크숍 진행업체 간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민참여단 운영방식을 설명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참여단 운영과정에서 개선할 점으로 ‘참여주민의 대표성·일회성 주민참여·참여의 진정성’을 꼽았다.

주민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서울시 도시계획 포커스그룹²⁶⁾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일회성 주민참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참여단 대표성	통계적 다양성 확보 젊은층의 참여 확대 홍보 콘텐츠 강화	➡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요청 서울시) 자치구별 홍보콘텐츠(브로슈어, 동영상) 제작 제공
1회성 주민 참여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연계 상시 거버넌스 채널화	➡ 자치구) 참여단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서울시) 포커스 그룹 관리 및 참여 프로그램 마련
참여의 진정성	의사결정 권한 부여(미래상 도출) 주인 피드백 강화	➡ 자치구) 워크숍 결과 정리 및 분석, 주민 피드백 서울시) 서울시 관련 실·국 협의
협력적 계획 수립	서울시·자치구 공동회의 개최 계획 내용 단계별 협의	➡ 자치구) 회의 참석 및 자치구 의견 제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용역사 합동회의 개최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국, 2015, 생활권계획 참여단 운영관련 시·구 합동워크숍 자료, 27쪽

[그림 3-17] 2015년도 워크숍 개선방안

26) 서울시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도시계획국 시민참여단 통합 그룹을 말한다.

○ 자치구의 예산 확보 및 주민참여단 모집

자치구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민참여단 운영계획과 매뉴얼에 따라 2015년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였다. 자치구별 예산은 지역생활권의 개수, 개최방식 등에 따라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책정되었다.²⁷⁾ 그러나 중랑구·노원구·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는 구의회나 예산부서에서 생활권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의 필요성, 워크숍 진행자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해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다.²⁸⁾

2015년 3월부터 자치구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83개 주민참여단에 총 2,890명을 모집하였다. 서울시는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분야 대학과 관련업체에 참여요청 공문을 보냈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였다.²⁹⁾ 2014년에 비해 자발적인 참여자가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³⁰⁾

○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2015년 4월부터 83개 지역생활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2014년 시범 지역생활권 워크숍은 토요일 오전에 개최되었는데, 결혼식·친목모임 등 개인적인 일정과 겹치면서 참석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워크숍 개최시간을 평일 오후 2시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직장인들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27) 예산은 주로 워크숍 진행업체 계약 비용, 주민참여단 교통비 및 식사비, 간식비, 홍보 및 비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28) 중랑구·양천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노원구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일부 받았다.

29) 2014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2015년에는 웹에서 바로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 주민참여단 모집과정에서 행정동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커지면서 구로구는 행정동별 담당자를 선정하고,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금천구는 관내 사업체 종사자를 주민참여단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4시간씩 두 차례 개최되었고, 프로그램도 ‘자원 탐색·문제점 발굴·개선방향 논의’ 등 시범 지역생활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평균 60~70%정도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1차보다 2차 워크숍의 참석률이 낮은 편이었다.³¹⁾

워크숍을 진행할 전문 업체는 각 자치구가 선정했다. 총 4~5개 업체가 자치구별 워크숍을 분담해서 진행했는데, 일부 워크숍 진행자는 생활권계획과 지역 현황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다양한 논의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특색 있게 운영한 자치구도 많았다. 구로구는 담당 공무원이 워크숍 진행자와 함께 지역을 사전답사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성북구와 강북구는 주민과 함께 마을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강동구·구로구·도봉구 등은 자치구 내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3-18] 2015년도 주민참여단 워크숍 모습(성동·강북·성북구 등)

31) 일부 자치구는 2차 워크숍을 위해 주민참여단을 추가 모집하여 결석자를 충원하기도 하였다.

[표 3-12] 2015년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 및 예산 현황

자치구	생활권 개수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2015년)	예산 (만원)		워크숍 운영과정의 특이사항
			전체	생활권별 평균예산	
성동구	3	-	2,400	800	-
광진구	3	(전담팀)	2,100	700	-
동대문구	3	-	2,000	667	• 주민의견 피드백을 위해 의견제시자 실명 제시 요청
종량구	3	○	1,799	600	• 추경으로 예산확보
성북구	4	-	3,000	750	• 동별 대표 답사 프로그램 운영
강북구	3	-	2,700	900	• 동별 마을걷기 프로그램 운영
도봉구	4	○	1,416	354	• 사전교육 개최 • 2개 생활권씩 통합 개최
노원구	6	-	1,400	233	• 2개 생활권씩 통합 개최 •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원
은평구	4	-	2,400	600	-
서대문구	3	-	3,000	1000	• 3시간씩 3회 개최
마포구	4	(전담팀)	2,800	700	-
양천구	2	-	740	370	• 추경으로 예산확보
강서구	5	○	6,000	1,200	• 관내 회의장소가 없어 장소대관비용까지 확보
구로구	4	-	3,125	781	• 사전교육 개최 • 평일 오전에 개최 • 행정동 담당자 선정 및 교육 실시 • 워크숍 진행자와 현장답사
금천구	2	-	1,200	600	• 산업단지 근로자 참여 유도
영등포구	4	-	2,600	650	-
동작구	4	(전담팀)	3,300	825	-
관악구	4	○	4,000	1,000	-
서초구	3	○	3,200	1,067	-
강남구	6	-	4,050	675	-
송파구	6	○	2,500	417	-
강동구	4	○	2,447	612	• 사전교육 개최

자료 :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담당자 면담결과를 토대로 작성

3)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생활권계획 주민참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³²⁾ 주민 입장에서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과 워크숍 운영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는 20개 자치구별로 1~2개씩 총 25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단 2차 워크숍 종료 시 참가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27일부터 10월21일까지 약 5개월이며, 총 535명이 응답하였다.

[표 3-13]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개요

목적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설문대상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강동구·금천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당 1~2개 생활권의 2차 워크숍 참여자
설문방법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2차 워크숍’ 방문 조사
총 설문 부수	535부
설문 기간	2015년 5월 27일~10월 21일(약 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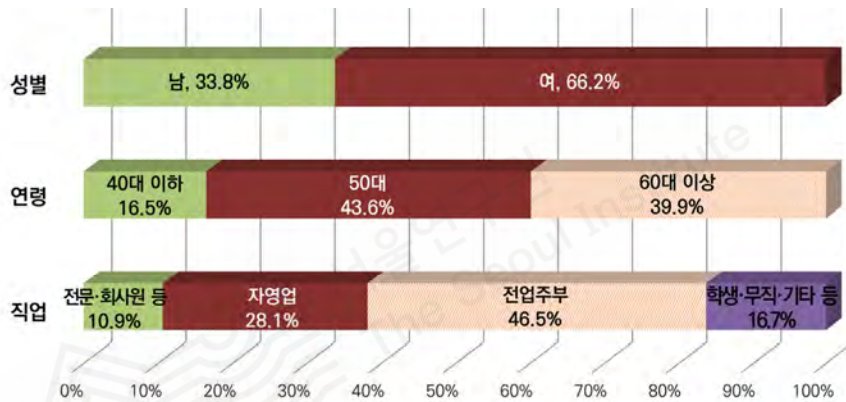


[그림 3-19]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모습(강북구)

32) 주민참여단 설문조사는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자체 진행하였다.

○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535명의 성별·연령·직업 분포를 보면, 주민참여단은 50~60대 여성에 편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전업주부·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³³⁾ 여성이 주민참여단의 66%를 차지하여 남성(34%)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았고,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17%에 불과하지만 50대(44%)와 60대 이상(40%)의 참여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47%)와 자영업(28%)의 비율이 높았고, 전문직·회사원은 11%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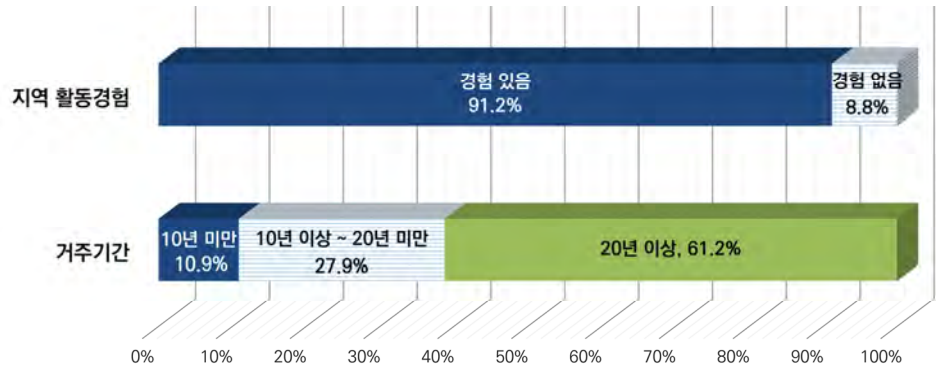


[그림 3-20] 성별, 연령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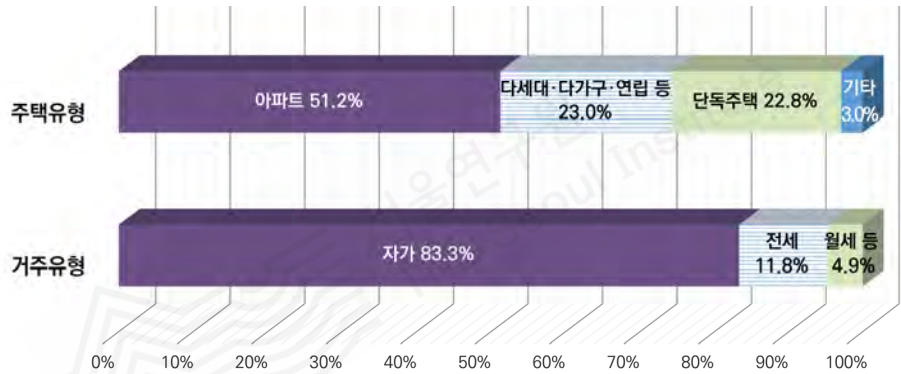
해당 자치구에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61%를 차지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도 28%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의 91%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지역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지역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는 많았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이나 20~40대 등 젊은 층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했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 51%, 단독주택 23%, 다세대·다가구·연립 23%로 서울시 전체 주택유형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점유형태에서는 자가 83%, 전월세는 17%를 차지하여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³⁴⁾

33) 주민참여단 설문조사의 응답자(535명) 특성은 서울시가 파악한 주민참여단의 연령·직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1] 지역활동경험, 거주기간별 응답자 비율



[그림 3-22] 주택유형, 거주유형별 응답자 비율

34)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유형은 아파트 59%, 단독주택 16%, 다세대·연립 34%, 기타가 5%를 차지하며, 점유형태에서는 자가 41%, 전세 33%, 월세 24%, 기타 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4]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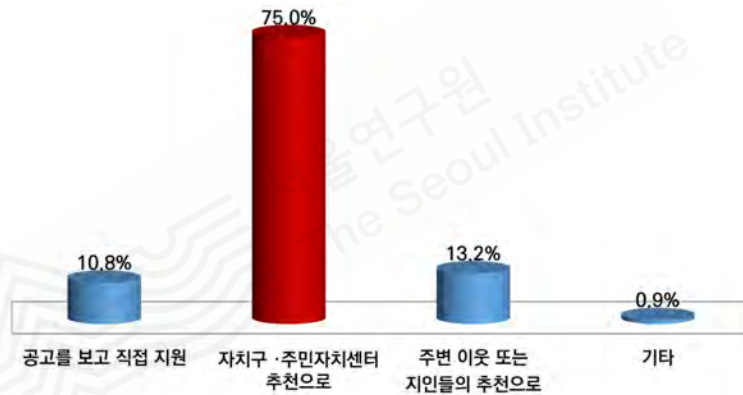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성별	소계	533	100.0
	남성	180	33.8
	여성	353	66.2
연령	소계	534	100.0
	40대 이하	88	16.5
	50대	233	43.6
	60대 이상	213	39.9
직업	소계	533	100.0
	전문직·회사원	58	10.9
	자영업	150	28.1
	전업주부	248	46.5
	시민단체·대학(원)생·무직 등	89	16.7
지역활동 경험 유무	소계	534	100.0
	경험 있음	487	91.2
	경험 없음	47	8.8
거주기간	소계	534	100.0
	10년 미만	58	10.9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27.9
	20년 이상	327	61.2
주택유형	소계	535	100.0
	단독주택	122	22.8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123	23.0
	아파트	274	51.2
	기타	16	3.0
거주유형	소계	533	100.0
	자가	444	83.3
	전세	63	11.8
	월세기타	26	4.9

4) 주민의견 분석 결과

(1) 참여경로와 사전 인지도

- 75%가 자치구·주민자치센터 추천으로 참여

생활권계획에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75%가 자치구·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주변 이웃의 추천으로 참여한 응답자는 13%, 주민참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하여 자발적인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지원한 주민 비율은 40대 이하(25%), 전 문직·회사원(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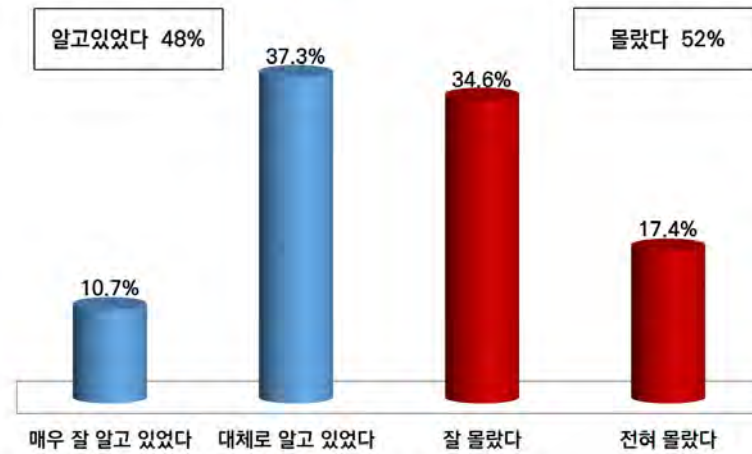


[그림 3-23] 생활권계획 참여 경로

- 52%가 주민참여단 지원 전 생활권계획에 대해 몰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주민참여단에 지원하기 전에는 생활권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주민참여단 지원 전에 생활권계획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고,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했다.³⁵⁾ 반면, ‘전혀 몰랐다’(18%)와 ‘잘 몰랐다’(34%) 등 몰랐다는 응답은 52%를 차지했다.

35) 생활권계획을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37%)이 높게 나타난 것도 주민참여단 활동을 시작할 무렵 자치구에서 사전교육을 받았거나 ‘생활권계획’이라는 이름만 들어 본 경우로 추정된다.



[그림 3-24] 지원 전 생활권계획 인지도

[표 3-15] 생활권계획 참여경로

(단위:%)

구분	계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	자치구 주민자치 센터 추천으로	주변 이웃 지인들의 추천으로	기타
	(인)	(%)				
전체	529	100.0	10.8	75.0	13.2	0.9
연령	40대 이하	88	100.0	25.0	64.8	8.0
	50대	230	100.0	9.6	77.8	12.2
	60대 이상	210	100.0	6.2	76.7	16.2
						1.0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2	100.0	7.1	80.7	11.2
	경험 없음	47	100.0	48.9	17.0	34.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1.0	58.6	10.3
	자영업	148	100.0	6.8	81.1	12.2
	전업주부	244	100.0	6.1	78.7	13.9
	학생·무직·기타 등	78	100.0	17.9	64.1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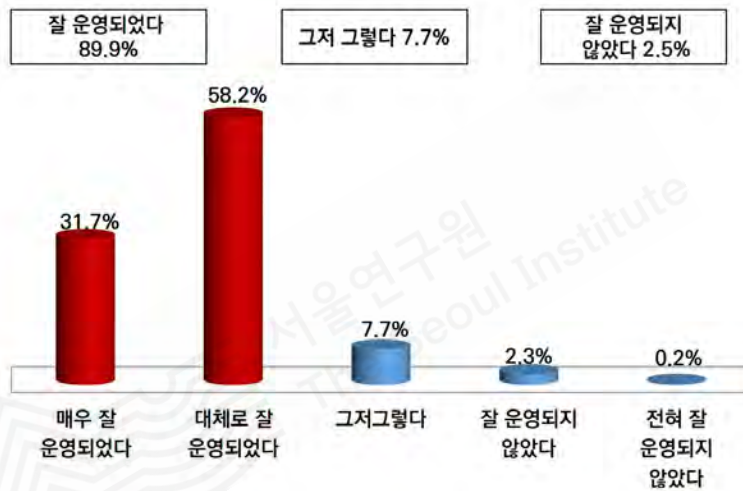
(2) 워크숍 평가 및 좋았던 점

- 워크숍이 잘 운영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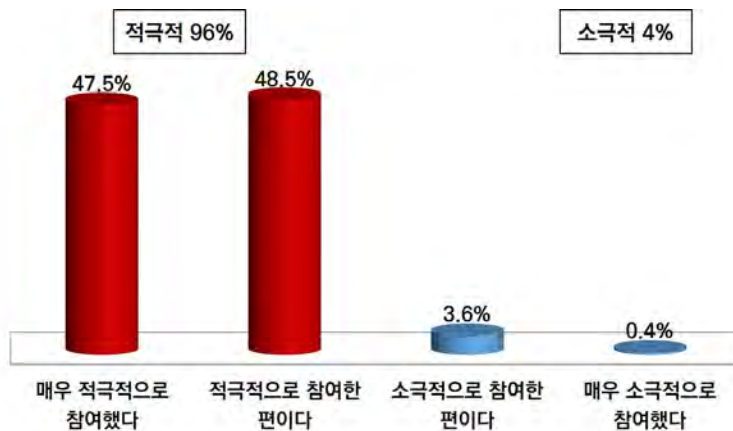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었다’는 응답이 90%를 차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 운영되었다는 응답은

50~60대와 지역활동 경험자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워크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96%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자평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활동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5] 워크숍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림 3-26] 워크숍 참여도

[표 3-16] 워크숍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잘 운영 되었다	대체로 잘 운영 되었다	그저 그렇다	잘 운영 되지 않았다	전혀 잘 운영 되지 않았다
	(인)	(%)					
전체	533	100.0	31.7	58.2	7.7	2.3	0.2
성별	남성	180	100.0	31.7	58.3	7.2	2.2
	여성	351	100.0	31.6	58.1	8.0	2.3
연령	40대 이하	88	100.0	23.9	58.0	13.6	3.4
	50대	232	100.0	35.8	56.0	6.0	2.2
	60대 이상	212	100.0	30.2	60.8	7.1	1.9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5	100.0	33.2	58.1	6.0	2.5
	경험 없음	47	100.0	17.0	57.4	25.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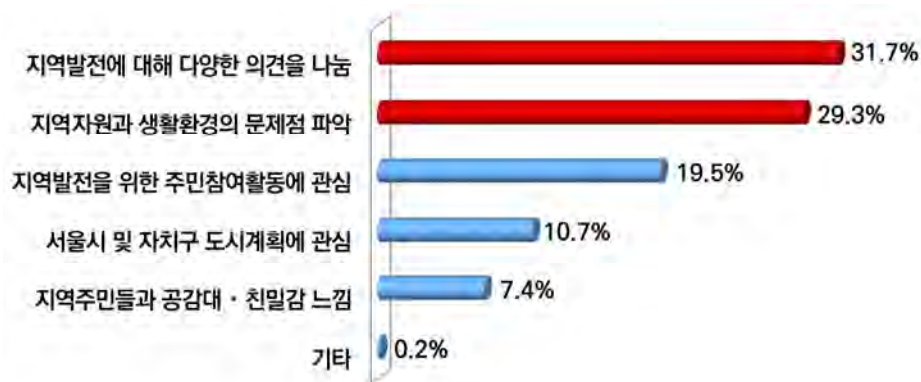
[표 3-17] 워크숍 참여도

(단위 : %)

구분	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	소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인)	(%)				
전체	532	100.0	47.6	48.5	3.6	0.4
성별	남성	180	100.0	45.6	47.2	7.2
	여성	350	100.0	48.3	49.4	1.7
연령	40대 이하	88	100.0	37.5	56.8	5.7
	50대	233	100.0	49.8	46.4	3.4
	60대 이상	210	100.0	49.5	47.1	2.9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4	100.0	49.4	47.1	3.1
	경험 없음	47	100.0	27.7	63.8	8.5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44.8	48.3	5.2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40.9	54.4	4.7
	20년 이상	324	100.0	50.9	46.0	2.8

○ ‘지역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점’이 가장 좋아

주민들은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지역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점(32%)’을 꼽았다. 이어서 ‘지역자원과 생활환경의 문제를 알게 된 점(29%)’,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점(20%)’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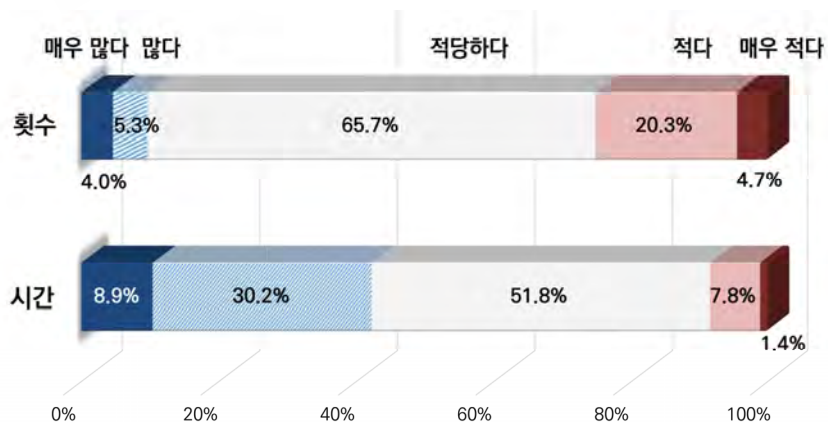


[그림 3-27]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복수응답)

(3) 워크숍 운영방식 평가

- 워크숍 운영방식 적절하지만 상대적으로 횟수 적고 시간 길어

워크숍 횟수(2회)에 대해서는 66%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횟수가 '적다'는 응답도 25%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22%)보다 남성(31%)이, 50대(28%)와 60대(17%)에 비해 40대 이하(38%)에서 워크숍 횟수가 '적다'는 응답이 많았다.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미래상,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워크숍 개최 횟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8] 워크숍 횟수 및 시간 평가

워크숍 시간(4시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지만, 시간이 ‘많다(길다)’는 응답도 39%로 높은 편이었다. 시간이 많다(길다)는 응답은 남성(31%) 보다 여성(43%)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보다 50~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워크숍 횟수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527	100.0	4.0	5.3	65.7	20.3	4.7
성별	남성	179	100.0	4.5	5.0	59.8	27.4	3.4
	여성	346	100.0	3.5	5.5	69.1	16.8	5.2
연령	40대 이하	88	100.0	1.1	1.1	60.2	31.8	5.7
	50대	229	100.0	3.5	5.2	63.8	21.4	6.1
	60대 이상	209	100.0	5.7	7.2	70.3	14.4	2.4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4	1.7	58.6	32.8	3.4
	자영업	149	100.0	4.7	6.0	59.1	23.5	6.7
	전업주부	243	100.0	2.5	6.2	72.8	14.0	4.5
	학생·무직·기타 등	87	100.0	6.9	2.3	63.2	23.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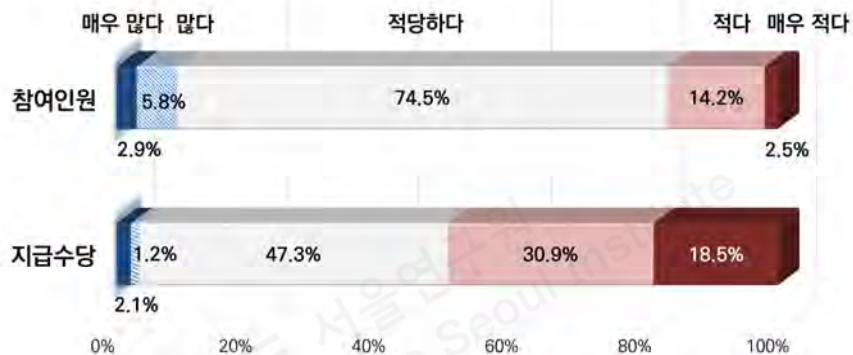
[표 3-19] 워크숍 시간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514	100.0	8.9	30.2	51.8	7.8	1.4
성별	남성	174	100.0	6.9	24.1	56.3	12.1	0.6
	여성	338	100.0	9.5	33.4	49.7	5.6	1.8
연령	40대 이하	88	100.0	8.0	27.3	55.7	5.7	3.4
	50대	228	100.0	9.2	32.5	48.7	8.3	1.3
	60대 이상	198	100.0	9.1	28.8	53.5	8.1	0.5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5.2	29.3	50.0	12.1	3.4
	자영업	143	100.0	7.0	24.5	55.9	11.9	0.7
	전업주부	237	100.0	9.7	38.0	46.0	4.6	1.7
	학생·무직·기타 등	87	100.0	11.5	17.2	63.2	6.9	1.1

○ 참여인원은 적당하고, 수당은 적은 편

응답자의 75%는 동별 10명의 참여 인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참여 인원이 적다는 응답은 17%로 낮은 편이었지만, 전문직·회사원(27%)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워크숍 참석 수당(8천~2만 원 내외)에 대해서는 ‘적다’(31%)와 ‘매우 적다’(19%)는 응답이 50%인 반면, ‘적당하다’는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참석 수당이 적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림 3-29] 워크숍 참여인원과 수당 평가

[표 3-20] 워크숍 참여인원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513	100.0	2.9	5.8	74.5	14.2	2.5
성 별	남성	174	100.0	3.4	4.6	77.0	13.2	1.7
	여성	337	100.0	2.7	6.5	73.3	14.8	2.7
연 령	40대 이하	87	100.0	2.3	4.6	73.6	16.1	3.4
	50대	228	100.0	3.1	5.3	71.9	17.1	2.6
	60대 이상	198	100.0	3.0	7.1	77.8	10.1	2.0
직 업	전문·연구·직·회사원	58	100.0	5.2	5.2	62.1	25.9	1.7
	자영업	142	100.0	2.1	7.7	75.4	13.4	1.4
	전업주부	236	100.0	2.1	5.5	75.8	14.0	2.5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4.5	4.5	73.9	11.4	5.7

[표 3-21] 워크숍 수당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514	100.0	2.1	1.2	47.3	30.9	18.5
성별	남성	174	100.0	2.9	1.7	47.1	31.0	17.2
	여성	338	100.0	1.8	0.9	47.6	31.1	18.6
연령	40대 이하	87	100.0	2.3	1.1	41.4	34.5	20.7
	50대	229	100.0	0.9	1.7	45.4	32.3	19.7
	60대 이상	198	100.0	3.5	0.5	52.0	27.8	16.2
직업	전문·연구·직·회사원	58	100.0	3.4	0.0	41.4	32.8	22.4
	자영업	142	100.0	2.1	2.1	44.4	32.4	19.0
	전업주부	237	100.0	1.3	0.8	49.4	30.8	17.7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3.4	1.1	46.6	31.8	17.0

(4) 생활권계획에 기대하는 점

- 생활권계획 내용 중 주거환경·교통·보행환경에 가장 관심 많아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권계획의 내용 중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29%)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다음으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15%)과 ‘중심지·역세권 등 도시공간관리’(14%), 그리고 ‘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11%),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11%)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용도지역 및 높이관리’에 대한 응답은 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주민들은 중심지·생활서비스시설·용도지역 및 높이 등 공간계획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주거환경·보행환경 등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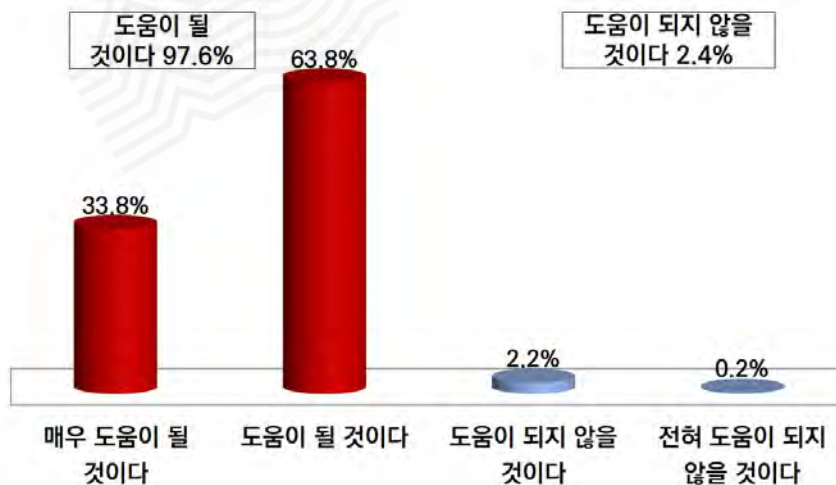
- 생활권계획 지역발전에 도움, 향후 재참여 의향도 높아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활권계획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응답자의 98%가 생활권계획이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4%를 차지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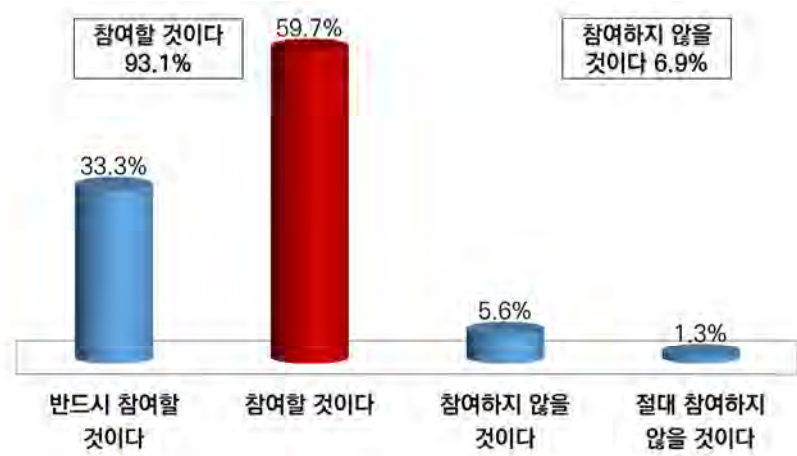
답은 2%에 그쳤다. 특히, 다음번 생활권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나, 생활권계획에 대한 높은 기대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그림 3-30] 생활권계획 중 관심 있는 내용



[그림 3-31] 생활권계획에 대한 기대



[그림 3-32]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의 재참여 의향

[표 3-22]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의 재참여 의향

(단위 : %)

구분		계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인)	(%)				
전체		531	100.0	33.3	59.7	5.6	1.3
성별	남성	180	100.0	31.7	63.9	3.9	0.6
	여성	349	100.0	33.8	57.9	6.6	1.7
연령	40대 이하	86	100.0	19.8	68.6	11.6	0.0
	50대	233	100.0	30.9	63.5	3.9	1.7
	60대 이상	211	100.0	41.2	52.1	5.2	1.4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2.8	62.1	5.2	0.0
	자영업	150	100.0	32.0	62.0	4.0	2.0
	전업주부	247	100.0	31.2	60.7	6.5	1.6
	학생·무직·기타 등	86	100.0	40.7	53.5	5.8	0.0

5)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종합

첫째,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은 50~60대·전업주부 위주로 구성되어 성별·연령·직업면에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535명의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전체의 66%, 50~60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47%, 자영업자가 28%로, 20~40대 젊은 층과 직장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등 지역활동 경험자(91%)와 자가 거주(83%)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주민참여단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생활권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 중 75%가 주민자치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참여했고, 주민참여단 공모에 직접 신청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중 52%가 주민참여단에 지원하기 전에 생활권계획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발적 참여와 사전 인지도는 낮았지만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의 90%가 워크숍이 잘 진행되었다고 응답했고, 96%가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자평했다. 주민들은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과 '지역의 자원과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을 꼽았다.

넷째, 워크숍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2회)에 대해서는 66%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적다'는 응답도 25%를 차지했다. 워크숍 시간(4시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지만, '많다(길다)'는 응답도 39%로 높은 편이었다.

다섯째, 주민들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권계획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계획내용은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30%)과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15%)이었고, 생활권계획이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8%를 차지했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다시 참석할 것이라는 응답도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_계획수립과정 모니터링 종합

1) 생활권계획 수립의 의의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수립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은 계획의 내용과 형식, 수립과정 측면에서 기존 도시계획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도시기본계획을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권계획은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지역별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 계획을 지향한다. 지역생활권단위로 계획과제와 이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주택·경관·교통 등 부문별 계획과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생활권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각 부서와 자치구가 일관성 있게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의 예측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생활권계획을 통해 자치구 발전계획 등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도시관리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부 자치구는 구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생활권계획을 자치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마을이나 사업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것은 생활권계획이 처음이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주민참여단 역시 대부분 워크숍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고,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수립과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과 쟁점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수립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1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타났으며,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형식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 문제, ② 지역생활권계획의 확실성 문제, ③ 자치구의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④ 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등이다.

첫째, 생활권계획은 ‘중간단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 서울시, 자치구 등 관련 주체들이 생활권계획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서로 달라 많은 이견이 있었다.

둘째,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생활권계획의 확실성이 우려된다. 주거지 위주로 되어 있거나 지역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지역은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미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어 계획이슈를 도출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

셋째,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지만, 실제 수립과정에서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할 뿐 계획수립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권역별 총괄계획가의 역할도 모호한 편이다.

넷째, ‘상향식 계획’으로서 4,000여 명의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워크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주민참여단이 대부분 50~60대 전업주부에 편중되어 있고, 주민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4개 권역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형식과 표현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추진반,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구성했지만, 계획수립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어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 모니터링 결과 종합

시행착오는 있지만, 서울에서 최초로
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

그러나 3년간 105개 지역생활권계획을
한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역할/내용 모호

자치구와 주민의 형식적 참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주요 쟁점

쟁점 1.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정체성 문제

쟁점 2.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우려

쟁점 3. 자치구의 역할 미흡, 총괄계획가의 권한 모호

쟁점 4.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형식적인 워크숍 운영

쟁점 5.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그림 3-33]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주요 쟁점 도출

04

외국의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과정과 시사점

- 1_일본 도쿄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 2_미국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 3_시사점

04 | 외국의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과정과 시사점³⁶⁾

1_일본 도쿄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1)_네리마구 자치구계획 개요

(1) 네리마구 개요

네리마구는 도쿄도 서북부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녹지와 물이 풍부한 주거지 위주의 자치구이다.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시가지화가 이루어져 상당량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자치구 면적은 48.2km²이며, 인구는 약 71만 명(2013년 1월 기준)에 이른다. 도쿄도 23개 자치구 중 5번째로 면적이 넓고, 2번째로 인구가 많다.³⁷⁾



자료 : 네리마구 홈페이지(<http://www.city.nerima.tokyo.jp/>)

[그림 4-1] 네리마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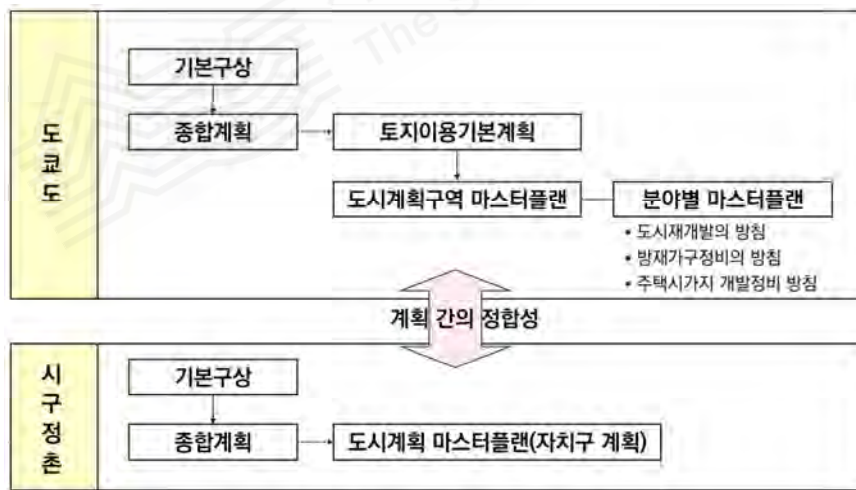
36) 4장은 외부 집필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원고를 요약보완한 것이다. 일본의 네리마구 사례는 정일지 교수(일본 가나가와대학), 미국의 포틀랜드시 사례는 이재선 교수(연세대학교)가 작성하였다.

37) 네리마구 전체 면적의 60%가 주거지이며, 도쿄 23개 자치구 중 농지비율이 가장 높다.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勢概要)

(2) 도쿄의 도시계획 체계와 자치구계획

도쿄도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쿄도와 자치구가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도쿄도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쿄도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에 대한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하 자치구계획)’을 수립한다. 자치구계획은 법정계획이며,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³⁸⁾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2015년 현재 도쿄도 23개 자치구 중 21개 구가 자치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계획은 자치구가 구의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자치구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고 구의회가 승인하여 결정한다. 각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자치구계획의 성격·수립절차·주민참여 방식 등을 정하며, 도쿄도는 주민참여 절차를 거쳐 수립한 자치구계획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자료: 이주알·김인희, 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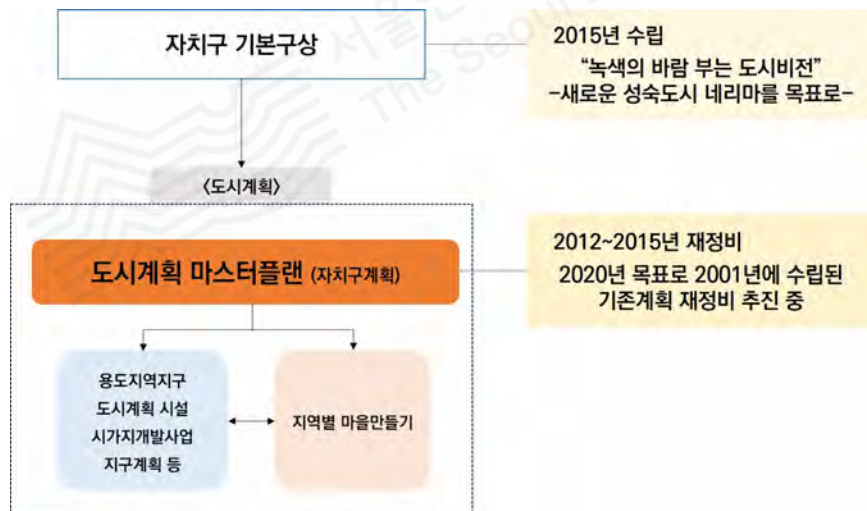
[그림 4-2] 도쿄도 도시계획체계

38) 현재 일본 전체 1,403개 시정촌 중 1,083개(약 76%) 시정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분권 이후 이양된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근거와 동향

네리마구 자치구계획의 성격과 역할, 수립방식 등은 ‘네리마구 마치즈くり 조례³⁹⁾’에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계획(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은 구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마을 만들기 지침’, ‘도시재생계획’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네리마구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재해에 대응한 구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구 기본구상을 새롭게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2001년에 수립된 기존 자치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재정비는 2012년에 시작되어 2015년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주민들이 쉽게 계획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구성과 디자인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1~3쪽.

[그림 4-3] 네리마구 자치구계획(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위상

39) 네리마구 마치즈くり 조례(練馬区まちづくり条例) 제 5조~6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개정절차(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の 変更手続)

(4) 자치구 주도의 계획수립과정

○ 네리마구가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

네리마구 자치구계획은 네리마구, 구 도시계획심의회, 전문용역회사, 마을 만들기 센터 등이 참여하여 수립한다. 이 중 네리마구는 계획수립과정을 총괄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와 작업부회를 구성하여 자치구계획안을 작성하고, 전문가·구의회·구민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회가 계획안의 자문을 담당한다. 전문용역회사와 마을 만들기 센터는 2012~2013년 계획수립 초기에 참여하면서 지역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주민행사 등을 지원했다.

○ 실시상황보고서 작성, 주민참여단 운영 등으로 계획안 개정

네리마구는 마치즈쿠리 조례에서 정한 ‘개정 절차’에 따라 자치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재정비 작업은 3~4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먼저, 2012년(1단계)에는 기존 자치구계획의 실현정도를 평가하는 ‘실시상황보고서’⁴⁰⁾를 작성한다. 2013년(2단계)에는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10차례 정도의 주민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을 만들기 강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2014년(3단계)에는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2015년 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경 자치구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40) 네리마구 마치즈쿠리 조례 제5조는 도시계획마스터플랜(자치구계획) 재정비시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시상황보고서는 기존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목표와 도시계획 사업·시책의 실현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마스터플랜 재정비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네리마구는 2001년 수립된 기존 자치구계획에 대한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시책조사와 구민 설문조사(3,000부 배부, 885부 회수)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자료집, 126쪽)



자료 : 練馬区, 2006, 練馬区まちづくり
条例の あらまし, 5쪽 참조자작성

[그림 4-4]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절차

자료 : 네리마구청 담당자 인터뷰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4-5]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체계

(5) 계획의 구성과 주요내용⁴¹⁾

2015년 새롭게 재정비되는 네리마구 자치구계획(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되며, 크게 자치구에 대한 전체 구상(1부)과 지역별 지침(2부), 실현방안(3부)으로 나뉜다 ([표 4-1] 참조).

1부 전체구상에서는 자치구의 현황을 토대로 과제와 미래상, 분야별 지침을 제시한다. 인구구조·토지이용 변화·도시기반 정비상황을 살펴보고, ‘밀집주택시기지 개선 및 도시형 수해대책 마련’, ‘도시계획도로 정비 촉진’, ‘철도역 주변지역의 정비’ 등 네리마구의 5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2부의 지역별 지침에서는 네리마구를 7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과제와 미래상, 토지이용방침과 마을 만들기 지침을 제시한다. 3부는 추진계획과 모니터링 등 계획의 실현방안을 담고 있다.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그림 4-6]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보고서(안)

41) 네리마구 자치구계획은 2015년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안) 내용은 2015년 8월 공람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4-1] 네리마구 자치구계획의 구성

제1부 전체구상

1장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목적과 평가

- 1)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목적과 평가
- 2)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2장 현황과 과제

- 1) 전례 없는 성숙사회를 맞이하며 (인구구조, 토지이용변화, 도시기반시설 정비상황)
- 2) 마을 만들기 과제
 - 밀집주택시기의 개선, 도시형 주택 대책 마련
 -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촉진, 철도 정비 추진
 - 철도역 주변지역 정비
 - 녹지와 수변의 보전과 창출, 도시농지의 보전
 - 자립분산형 에너지 사회 실현

3장 도시의 미래상

- 1) 도시의 미래상
- 2) 미래의 도시구조 (중심지, 교통·녹지 및 수변 네트워크)
- 3) 토지이용 정책

4장 마을 만들기 중점추진 전략

- 1) 새로운 성숙도시를 목표로 하는 마을 만들기
- 2) 마을 만들기 중점전략

5장 분야별 마을 만들기 정책

- 1) 안전·안심 마을 (방재, 방법)
- 2) 활동적이고 활기있는 마을 (교통, 산업)
- 3) 녹지와 물의 도시 (녹지·수변, 농지)
- 4) 환경과 공생하는 마을 (경관마을, 에너지)
- 5) 함께 사는 마을 (주거지, 지역공동체)

제2부 지역별 지침

지역별 지침에 대해 (위상과 역할, 지침의 방향, 지역 구분도)

7개 지역별 지침 (현황, 과제와 미래상, 토지이용 및 마을 만들기 방침)

제3부 실현방안

6장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실현을 향해서

- 1)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진행방식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 2)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실현 (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계획의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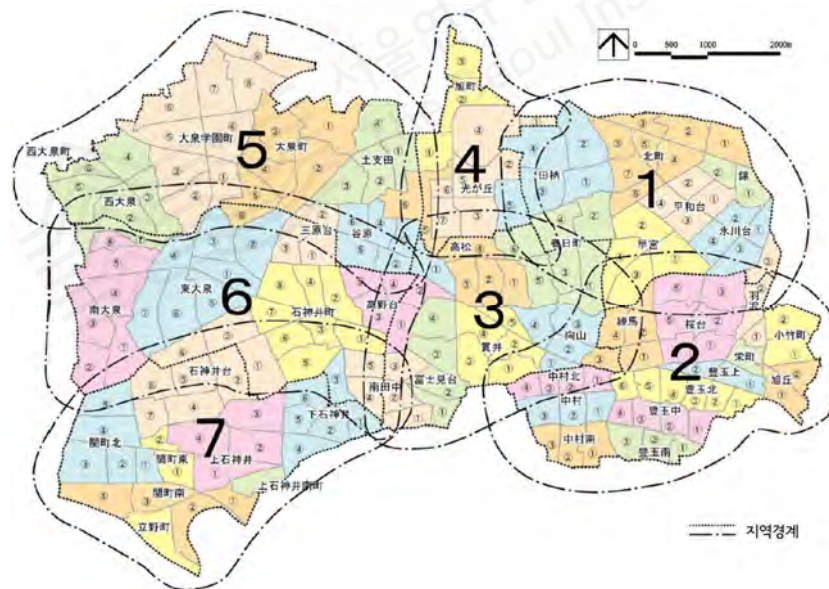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참조

2) 지역생활권 구분과 주요 계획내용

(1) 지역생활권 구분

네리마구는 구 전체를 7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 행정 경계(町) 등을 고려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의 인구가 대략 10만 명이 되도록 구분하였다.⁴²⁾ 인구규모는 지역생활권별로 다르지만 최소 5만~최대 13만 명에 이른다([표 4-2] 참조).

네리마구는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지역생활권을 구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 행정 경계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접한 지역생활권과 경계부가 중첩되도록 표현하고 있다([그림 4-7] 참조). 현향도·지침도 등 지역생활권별 도면에서도 인접한 지역생활권의 계획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II-2쪽

[그림 4-7] 네리마구 지역생활권 구분도

42) 네리마구 지역생활권은 남북 간선도로로 동서를 구분한 후 각각을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과 특성이 다른 도영주택단지(4구역)를 별도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표 4-2] 네리마구 지역생활권별 면적과 인구 현황

지역	면적(ha)	인구(인)	세대수(세대)
제1지역	691.1	111,581	54,195
제2지역	702.1	132,744	74,404
제3지역	609.9	91,430	45,438
제4지역	293.3	47,822	21,922
제5지역	920.5	100,864	43,051
제6지역	909.8	127,390	60,921
제7지역	693.1	102,825	50,801
구 전체	4,819.9	714,656	350,732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의 지역별 현황 참조하여 작성

(2) 지역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네리마구의 지역생활권계획 내용은 지역현황과 특성, 마을 만들기 방향 등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현황과 특성 분석을 토대로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상, 토지이용방침, 부문별·사업별 마을 만들기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큰 방향 위주로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도면 역시 철도와 주요 도로망을 배경으로 대략적인 위치, 범위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도면의 축척은 A4 용지에 지역 전체가 표현되는 1:25,000 정도인데, 지역생활권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축척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지역>을 사례로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네리마구 지역생활권계획 내용

1. 지역의 현황과 특성 1) 지역의 현황 (인구, 토지이용) 2) 지역의 특성 (자원과 과제) ※ 지역의 역사 2. 지역의 마을 만들기 방향 1) 지역의 미래상 2) 토지이용 방침 (중심지 및 토지이용별 방침) 3) 마을 만들기 방침 (5개 부문 : 안전안심, 활기, 녹지, 환경, 공동체) 4) 지구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지역 내 추진 중인 계획/사업 현황)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참조

○ 지역의 과제와 미래상 제시

먼저 지역 현황을 토대로 과제를 설정한다. 인구·토지이용, 생활거점·주택·교통·녹지 등의 지역 현황과 자원, 추진 중인 사업 등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예컨대, 1지역은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지역을 가로지르는 방사 35·36호선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가장 큰 이슈이다. 주요과제는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사 35·36호선 주변지구 도시재생’, ‘자전거주차장 확보’, ‘녹지 보전 및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상은 추상적인 슬로건 보다는 지역의 주요과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1지역의 미래상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병행한 연도 도시재생 추진, 철도역 주변 생활거점의 활성화 및 주변과 조화로운 토지이용 도모, 밀집주택지가 정비촉진사업으로 방재에 대비, 지구계획에 따른 마을 만들기 추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 토지이용방침, 마을 만들기 지침, 지구 만들기 추진방향 제시

다음으로 지역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이용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역세권, 상업지역, 연도환경지구, 밀집시가지, 주·상·공 공존지구, 도시형 유도지구, 중저층 주택지구 등 지역 내 용도지역별로 간략한 관리방향을 담고 있다. 예컨대, 1지역 ‘역세권’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활성화를 촉진’, ‘밀집시가지’에 대해서는 ‘방재를 고려하여 좁은 도로를 개선하고 건축물을 정비’하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높이나 밀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을 만들기 지침’은 자치구 전체구상과 마찬가지로 ‘안전·안심, 활기, 녹지, 환경, 공동체’의 5개 부문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좁은 도로의 확폭정비사업을 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공공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고, 건물의 내진화·불연화를 추진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구 만들기 추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 중인 도시계획·정비사업·마을 만들기 등의 취지와 내용,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1지

역에서는 ‘방사 35·36호선 연도주변지구’, ‘환상 8호선 연도지구’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나 역세권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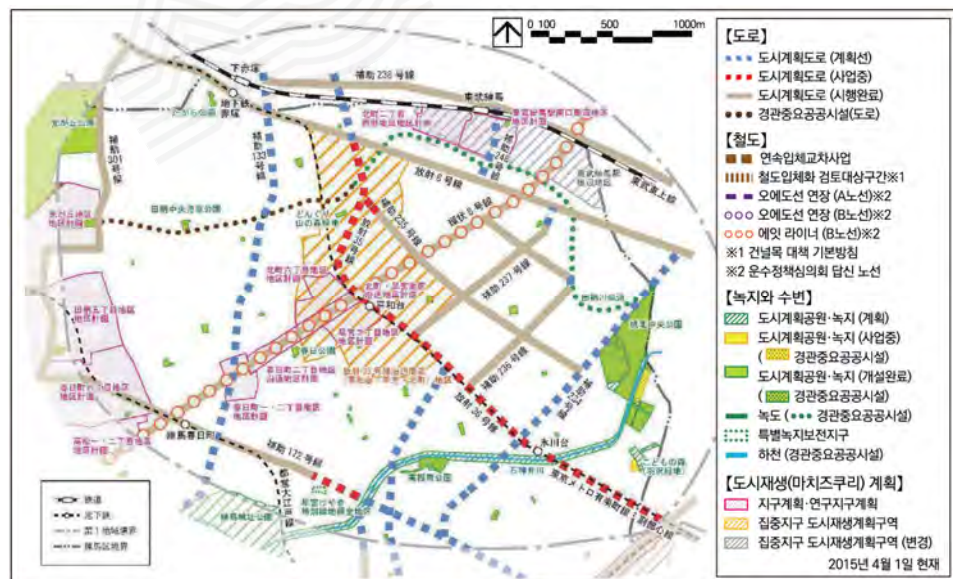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II-7号

[그림 4-8] 네리마구 1지역 장래지역구조도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II-9쪽

[그림 4-9] 네리마구 1지역 토지이용지침도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II-14쪽

[그림 4-10] 네리마구 1지역 마을 만들기 방침도

3) 주민참여단 구성 및 워크숍 운영

(1) 주민참여단 운영

○ 공모방식으로 주민참여단 63명 모집

네리마구는 자치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구 단위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였다. 자치구 신문·인터넷·동사무소 게시판·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단 모집을 홍보했고, 전화·이메일·방문접수 등의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은 50명이었지만, 지역별 워크숍 등을 위해 추가 공모를 받아 최종적으로 63명을 선정하였다.

네리마구 주민참여단의 연령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지만 50대~70대의 고령층 비율이 높고, 남성이 70%를 차지한다.⁴³⁾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대표나 기존 계획 참여 경험자에게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⁴⁴⁾, 2001년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주민대표 등 지역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63명 중 20%가 2001년 자치구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⁴⁵⁾, 지역활동 경험자, 주민단체 대표나 건축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평일 저녁시간대 2시간씩 10회 워크숍 개최

네리마구 주민참여단은 2014년 5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9일까지 한 달 간격으로 개최된 10차례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각 회차별 참여자수는

43) 네리마구는 주민참여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별과 연령 이외의 개인정보를 조사하지 않았다.

44) 네리마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를 준비하기도 하였고, 모든 주민참여단은 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활동하였다.

45) 2001년 기존 자치구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단은 총 130여 명, 지역별로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번 자치구계획은 기존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단의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다르지만 주민참여단 63명 중 최소 29명에서 최대 45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차례의 워크숍 중 1~6회는 네리마구 전체 이슈를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공동체, 생활·복지, 방재·방법, 토지이용, 산업·관광, 교통, 녹지·환경, 경관, 계획의 실현방안 등 주제별로 그룹을 나누어 토론하고 마지막에 그룹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7~9회 워크숍은 7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고, 7개 지역별로 나누어 그룹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10회 워크숍은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누락되었거나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생활권 워크숍은 ‘지역의 자원 찾기’, ‘개선할 점’, ‘필요한 제도나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네리마구는 주민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실현가능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표 4-4]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워크숍 일시 및 프로그램

구분	회차	일시		참가자수	내용
전체 구상	1	5. 15.	18:30~20:30	45명	마을공동체, 생활·복지, 방재·방법, 마을의 미래상, 토지이용 등
	2	6. 12.	18:30~20:15	41명	
	3	7. 10.	18:30~20:15	35명	
	4	7. 31.	18:30~20:15	36명	산업·관광, 교통, 경관·농업, 환경, 계획의 실현방안
	5	8. 28.	18:30~20:15	31명	
	6	9. 18.	18:30~20:15	36명	
지역별 지침	7	10. 9.	18:30~20:15	37명	7개 지역별 그룹토론
	8	10. 30.	18:30~20:30	40명	
	9	11. 20.	18:30~20:30	36명	
마무리	10	2. 19.	18:30~20:15	29명	추가/심층 토의

자료 : 네리마구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まちづくりカルテ, 147쪽

[표 4-5]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소요시간)	내용
18:30~18:45 (15분)	1. 시작하기 1) 인사말과 앞으로의 일정, 워크숍 진행방법 2)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진단 결과 공유
18:45~19:50 (65분)	2. 주제별 제안 1) 자기소개 / 이전 워크숍의 의견 돌아보기 2) 10년 후 우리마을에 대한 제안하기 - 지역에서 소중히 해야 할 자원 - 개선이 필요한 문제 -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나 활동 3) 각자의 제안 발표 및 정리하기
19:50~18:10 (20분)	3. 테이블별 의견 공유하기
18:10~18:15 (5분)	4. 마무리 및 다음워크숍 안내

자료 : 練馬区, 2013,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区民意見交換会ニュース 7호



자료 : 練馬区, 2013,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区民意見交換会ニュース 3호

[그림 4-11]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워크숍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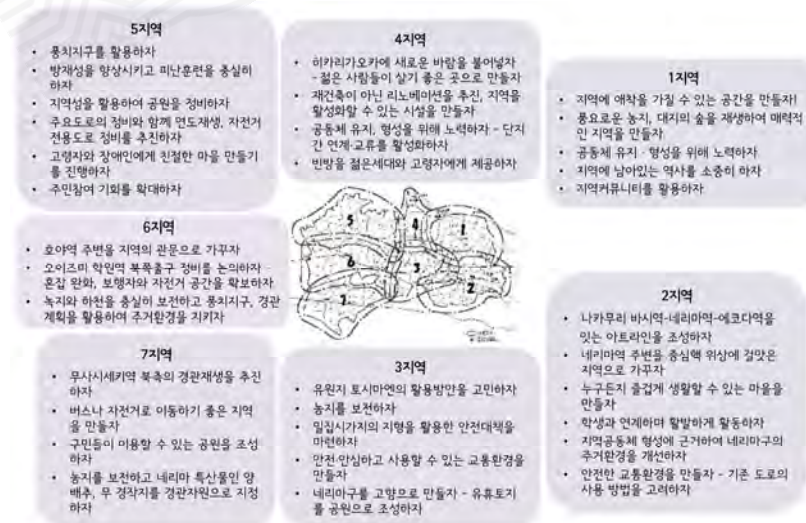
○ 주민의견 반영

워크숍이 종료된 후 네리마구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많은 사람이 제안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각 워크숍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은 뉴스레터로 정리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예컨대, 1지역에서는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지역에 남아있는 역사를 소중히 하자’,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민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네리마구는 일부 주민의견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네리마구 1지역의 주민의견 예시>

-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 유원지 토시마엔의 장래상을 주민과 함께 만들자
- 공동체 유지 및 형성을 위해 노력하자!
- 단지를 전용도로로 연결하고 교류를 도모하자
- 지역의 역사를 소중히 하자!
- 옛길, 전통여관, 구석기시대 유적을 재조명하자
-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자!
-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자료 : 練馬区, 2013,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区民意見交換会ニュース 7호

[그림 4-12] 네리마구 주민참여단 지역별 종합의견

(2) 설명회 및 일반주민 참여

- ‘지금부터 집회’와 ‘네리마 카페’를 활용해 사전홍보·참여 유도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앞서 네리마구는 마을 만들기 센터와 함께 자치구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행사를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집회’, ‘네리마 카페’ 등이 2013년 3월과 11월, 2014년 3월에 총 3차례 개최되었다.

1회와 3회는 대학 내에서 개최되어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2회는 구청에서 개최된 ‘마을 만들기 활동 최종보고회 행사’와 함께 기획되어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여기서는 자치구계획에 대한 기초정보와 마을 만들기 활동 지도, 네리마 풍경전 등을 전시하고, 지역의 과제를 주민들의 관점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変更原案, 220쪽

[그림 4-13] 네리마구 ‘지금부터 집회’ 모습

- 워크숍을 통해 수립한 계획안의 설명회 개최

네리마구는 워크숍을 통해 수립한 자치구계획안의 설명회를 7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2015년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구청과 7개 구민센터(사무소), 복지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3회, 주말 오후 4회 등 시간대를 다양화하였고,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참여를 위해 점자 자료를 제공하고 수화 설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설명회는 자치구계획안 개요 자료를 배부하고, 계획안을 설명한 후 주민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자치구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공무원 외에 녹지재생·토목·도시재생 등 관련부서에서도 참여하여 여러 분야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평일에는 5명 내외, 주말에는 20명 내외의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주로 도로망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6] 네리마구 계획안 설명회 일시

설명회 일시 (2015년)		장소
5. 15. (금)	18:30~20:00	北町 구민사무소 (1지역)
5. 16. (토)	14:00~15:30	光が丘 구민센터 (4지역)
5. 21. (목)	18:30~20:00	大泉 구립도서관 (5지역)
5. 23. (토)	14:00~15:30	練馬구청 본청사 (2지역)
	18:00~19:30	神井 구민사무소 (6지역)
5. 26. (화)	18:30~20:00	関 구민센터 (7지역)
5. 28. (목)	18:30~20:00	貫井 복지관 (3지역)

자료 : 네리마구 홈페이지(<http://www.city.nerima.tokyo.jp/>)



자료 : 정일지 촬영

[그림 4-14] 네리마구 계획안 설명회 모습(2015. 5. 23.)

2_미국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1)_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 개요

(1) 포틀랜드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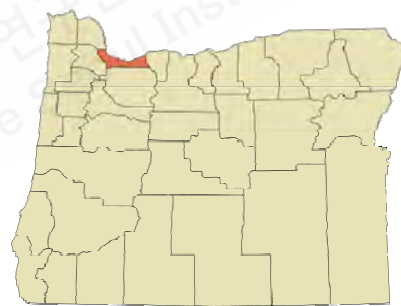
포틀랜드(Portland)는 미국의 오리건(Oregon)주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면적은 376km²이며, 58만 명(2010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관문도시로서 상업·수송·유통업이 발달하였다.

윌라멧강(Willamette river)이 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약 61m 간격의 도로로 구획된 격자형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이 풍부해 스키·윈드서핑·골프·등산 등 다양한 문화·레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 Free software foundation

[그림 4-15] 오리건주 위치



자료 : Free software foundation

[그림 4-16] 오리건주 내 포틀랜드시 위치

(2) 포틀랜드시 도시계획 체계와 커뮤니티계획

○ 도시기본계획·커뮤니티계획 등 수립

포틀랜드시 도시계획체계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과 비법정 계획인 ‘커뮤니티계획(Community Plan)’, ‘근린지구계획(Neighborhood Plan)’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오리건주 개정법」을 근거로 수립되며, 도시설계·도시개발·근린지구·교통·공공시설·주택·경제·시민참여 등 12개 부문을 다루고 있다.⁴⁶⁾ 이 중 ‘도시개발’과 ‘근린지구’ 부문이 비법정계획인 ‘커뮤니티계획’

과 ‘근린지구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도시개발’ 부문은 포틀랜드시 8개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과 관리방향을 제시하며, ‘근린지구’ 부문에서는 108개 근린지구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포틀랜드시는 ‘커뮤니티계획’과 ‘근린지구계획’을 통해 커뮤니티와 근린지구별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운영해 왔는데, 여기서는 계획의 역할과 규모가 서울의 지역생활권계획과 유사한 ‘커뮤니티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본다.

[표 4-7] 포틀랜드시의 계획체계

구분	계획 명	근거	계획 범위
법정계획	도시기본계획	오리건 주 개정법	포틀랜드 시 전체 (인구 58만)
비법정계획	커뮤니티계획	도시기본계획	8개 커뮤니티 (평균인구 7만)
	근린지구계획		108개 근린지구 (평균인구 5천)

자료 : 이여경(2015) 및 포틀랜드시 홈페이지(<http://www.portlandoregon.gov/>)를 참조하여 작성

○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의 도입목적과 수립현황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지역의 계획여건·사회·경제적 변화·사업과 재정여건·주민들의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포틀랜드시는 시 전역을 Central City, Albina, Outer Southeast, Inner Southeast, Peninsula, Northwest, Northeast 등 8개의 커뮤니티로 구분하고 있으며, 커뮤니티별 인구는 최소 4만에서 최대 15만 명이다.

1980년대 후반 커뮤니티계획을 도입한 이후 2005년까지 8개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⁴⁷⁾, 2015년에는 가장 먼저 커뮤니티계획을 수립한 도심부(Central City)의 커뮤니티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46) 포틀랜드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적 성장관리전략을 위해 1980년 처음 수립되어 승인되었고,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도시 전역에 걸친 목표와 정책,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설계, 도시개발, 근린지구, 교통, 공공시설, 대도시권 협력, 주택, 경제개발, 에너지, 환경, 시민참여, 계획검토 및 행정관련 사항’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1개 커뮤니티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3년이 소요되며, 2년 간격으로 1개씩 커뮤니티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 (<http://www.portlandoregon.gov/>)

[그림 4-17] 포틀랜드시 커뮤니티 구분

[표 4-8] 포틀랜드시 커뮤니티계획 수립현황

커뮤니티 명	계획 현황
Central city	1988년 수립 후 개정 중
Alibina	1993년 수립 완료
Outer Southeast	1995년 수립 완료
Southwest	1997년 수립 완료
Inner Southeast	1999년 수립 완료
Peninsula	2001년 수립 완료
Northwest	2003년 수립 완료
Northeast	2005년 수립 완료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 (<http://www.portlandoregon.gov/>)

2) 포틀랜드시 주민자문위원회(CAC)

(1)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참여 체계

포틀랜드시는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으로 ‘시민참여’를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이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주민참여위원회(CIC, Community Involvement Committee)가 관여하며⁴⁸⁾, 그 외 커뮤니티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민자문위원회(CAC, Citizen Advisory Committee)’가 참여한다.

주민참여위원회(CIC)와 주민자문위원회(CAC)는 시와 시민을 연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는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

주민참여위원회(CIC)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오리건주 내 모든 시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며, 도시별로 1개의 그룹이 3년 간 활동할 수 있다. 반면, 주민자문위원회(CAC)는 의무적인 조직이 아니며, 지역이나 부문·프로젝트별로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한 지역에 여러 그룹을 조직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지속적인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2) 주민자문위원회(CAC) 역할과 활동

주민자문위원회(CAC)는 포틀랜드시 지역계획국이 주관하는 지역개발·도시계획에 관련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의견을 시에 전달하고, 시 공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48) 주민참여위원회(CIC)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이다.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여 도시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가진 2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역할이 종료된다. 2009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18명의 주민참여위원이 3년 간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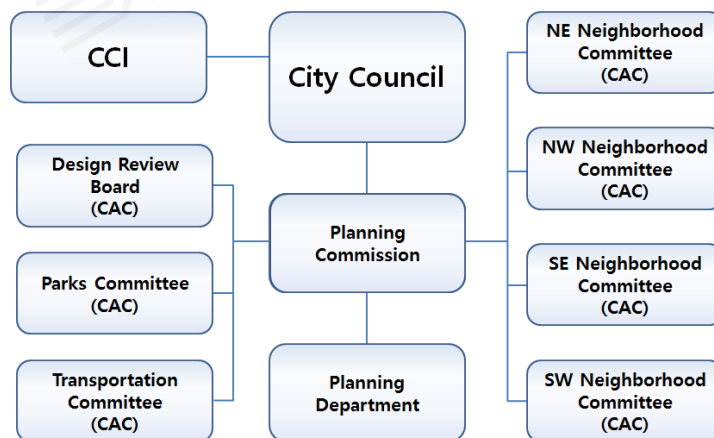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주민참여 관련 프로그램과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는데도 참여한다.

주민자문위원회와 시 담당부서 간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주민자문위원들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수립과정을 피드백하고, 주요 이슈를 검토·자문한다. 또한 일반주민들에게 계획내용과 과정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오픈하우스, 워크숍, 설문조사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표 4-9] 포틀랜드시 CAC 개요

구분	CAC (주민자문위원회)
참여시기	지역, 부문별 계획사업 추진 시
조직의 성격	지역, 부문,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
관할 부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운영기간	계획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속적/일시적 운영 가능
예시	• 부문별 : Design Review Board, Parks Committee, • 지역별 : NorthEast Neighborhood Committee, SouthEast Neighborhood Committee

자료 : Oregon's CIAC. (2008).



자료 : Oregon's CIAC. (2008).

[그림 4-18] 포틀랜드시 주민참여체계 예시

주민자문위원회(CAC)의 운영사례로 포틀랜드시가 2000년대 초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했던 ‘NE/SE 50s 자전거도로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계획 수립을 위해 10여 명의 주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대상지 답사, 정기회의, 오픈하우스,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노후지역의 재생, 공원의 유지·관리, 습지 매립과 지역개발 등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문위원회가 운영되었다.

[표 4-10] 포틀랜드시 CAC 활동사례

프로젝트 대상지	대상지 답사
	
CAC 모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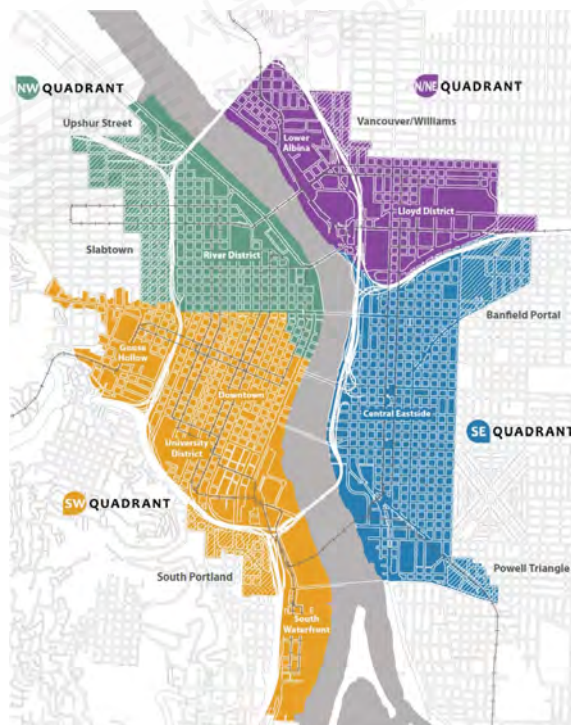
자료 : City of Portland Bureau of Transportation, 2003, 「Russell Street Improvement Planning Project Final Report」

3) 센트럴시티 플랜 2035 사례

(1) 센트럴시티 개요 및 계획수립 현황

센트럴시티(Central City)는 포틀랜드시의 8개 커뮤니티 중 하나로, 시의 정 중앙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약 11km²이며, 2010년 기준으로 4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윌라멧 강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포틀랜드 시 지역경제·예술·문화·상업·관광·교육·교통 중심지이다.

센트럴시티는 포틀랜드시의 8개 커뮤니티 중 가장 먼저 커뮤니티계획을 수립하였다. 1988년에 수립된 첫 번째 계획은 1990년 미국 도시계획협회에서 성공적인 계획으로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하였다. 2010년부터 새로운 커뮤니티계획인 ‘센트럴 시티플랜 2035(Central City Plan 2035)’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2015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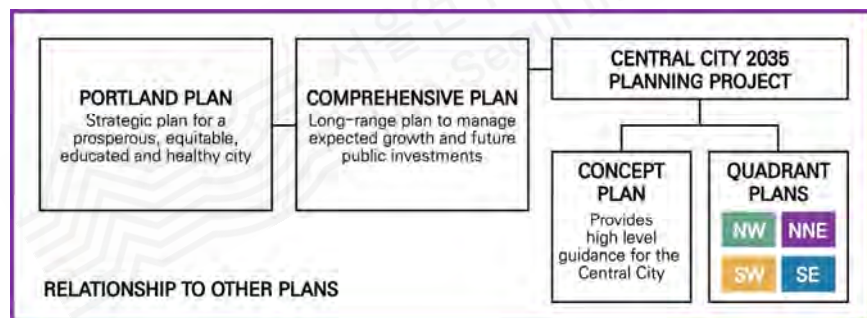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http://www.portlandoregon.gov/>)

[그림 4-19] 포틀랜드시 도심부

(2) 계획의 구성 및 수립절차

‘센트럴시티플랜 2035’는 콘셉트계획(Concept Plan)과 지역별 계획(Quadrant Plan)으로 구성된다. 콘셉트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광역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서 센트럴시티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부문별로는 경제, 주택, 도시설계, 환경 등을 다룬다. 또한 지역별 계획은 콘셉트 계획이 제시한 발전방향을 토대로 지역의 목표와 정책, 실행계획 등을 제시한다.

‘센트럴시티플랜 2035’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개 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2010년 7월부터 1년간은 이슈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1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콘셉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4년 말까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콘셉트계획과 지역별 계획을 통합·조정하여 최종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자료 : Portland city, 2012, N/NE Quadrant Plan : Recommended Draft

[그림 4-20] 포틀랜드시 센트럴시티플랜 2035의 위상과 구성

[표 4-11] Central City 2035 계획과정

기간(년도)	계획 내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1	이슈 발굴 및 목표 설정	■					
2011-2014	콘셉트계획 수립		■				
2010-2014	지역별계획 수립	■	■	■	■	■	
2014-2015	최종 계획					■	■

자료 : City of Portland, Bureau of Planning & Sustainability. (2012a).

(3) 도심부 자문그룹(CCAG) 운영

○ 도심부 자문그룹(CCAG)의 구성

도심부 자문그룹(CCAG; Central City Advisory Group)은 센트럴시티의 커뮤니티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본 주민자문위원회(CAC)와 전문가인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s), 그리고 지역 내 모든 주민들도 원칙적으로 도심부 자문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http://www.portlandoregon.gov/>) 참조

[그림 4-21] 포틀랜드시 도심부 자문그룹의 구성

이 중 주민자문위원회(CAC)는 센트럴시티플랜 2035 수립과정의 1~2차년도 작업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⁴⁹⁾ 자문위원회는 포틀랜드시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의 주관으로 구성되는데,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의 지원목적·경험·이력 등을 심사하여 10~15명을 선정한다.

주민자문위원회는 '센트럴시티 자문위원회 헌장(Central City Advisor Group Charter)'을 근거로 활동한다. 이 헌장은 워크숍을 통해 시와 주민자문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운영목적·책임·진행방식·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장에 따르면, 주민자문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된 2010년부터 최소 1년의 임기로 운영되며, 계획이 완성되면 활동도 종료된다. 또한 모든 자문위원은 무급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49) 지역별 계획(Quadrant Plan) 수립과정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별도의 주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여하였다.

○ 주민자문위원회(CAC)의 역할

주민자문위원회는 포틀랜드시와 일반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대표한다. 자문위원은 주민들에게 계획수립 과정과 계획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포틀랜드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자문위원회는 지역 내 단체·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의무가 있다. 포틀랜드시는 주민자문위원의 이름·소속·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와 주민자문위원회가 함께 만든 ‘주민자문위원회 헌장’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문위원들은 공식적인 주민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주민자문위원회(CAC)의 활동내용

주민자문위원회는 포틀랜드시, 외부 단체 등과 센트럴시티의 콘셉트계획을 위한 정기회의에 참여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해결방안·적용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데, 2010년 5월부터 1년 간 총 13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전에 회의 계획서와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종료 후 회의록도 공개된다.

주민자문위원회 회의는 주로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초반부에 개최된 1~4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존 계획과 지역의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재정비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3차 회의에서 주민자문위원회 헌장을 승인하였고, 5차 회의에서는 계획의 구성, 6차 회의부터는 부문 및 지역별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문별 논의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제별 심포지엄의 결과와 시에서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

[표 4-12] 도심부 자문위원회 회의 일시 및 내용

일시		주요 논의 사항
2010	6. 8. 오후 6시	• 도심부 자문위원회 및 계획수립과정 소개 • 기존 도심부 계획 검토 및 도심부 역할 논의
	6. 24. 오후 4시	• 포틀랜드시 계획 검토 • 도심부 현황 검토 및 과제 발굴
	7. 15. 오후 4시	• 주민자문위원회 헌장 승인 • 부문 설정 및 부문별 의견 교환
	10. 5. 오후 4시	• 계획안 개정방향과 과정 논의 • 도심부 도시설계 관련 발표 및 과제 논의
	11. 16. 오후 4시	• 콘셉트계획의 구성 논의
	12. 7. 오후 4시	• 주택·커뮤니티 개발 부문 방향 논의
2011	1. 18. 오후 4시	• 계획의 원칙, 과제 확인 및 추가 논의 • 주택·커뮤니티 개발 부문 추가 논의
	2. 15. 오후 4시	• 도심부의 역할과 과제 및 우선순위 논의
	3. 15. 오후 4시	• N/NE Quadrant의 현황과 방향 논의
	4. 5. 오후 4시	• SW, SE Quadrant의 현황과 방향 논의
	4. 9. 오후 4시	• 윌라멧 강 현황 검토 및 정책 방향 논의
	5. 17. 오후 4시	• 이동성(Mobility)와 경제활력 부문 방향 논의
	6. 7. 오후 4시	• 공공안전, 시민·문화생활 부문 방향 논의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 (<http://www.portlandoregon.gov/>)

(4) 일반주민 참여과정

포틀랜드시는 센트럴시티플랜 2035 수립과정에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오픈하우스·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 윌라멧 강, 이동성(mobility), 경제활성화 등 전문가가 선정한 7개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⁵⁰⁾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자문위원회와 포틀랜드시가 콘셉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50) 심포지엄은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2회), 윌라멧 강(2회), 이동성(Mobility, 2회), 경제활력(2회), 시민·문화생활(2회), 공공안전(1회), 역사자원(1회)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총 12회 개최되었다.

오픈하우스는 2010년 10월 12일 (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개최되었고, 1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도심부의 현황과 과제, 계획의 구성과 포틀랜드시 계획과의 연계성 등 계획수립 과정과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전시하고, 전시장에 배치된 직원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도시설계를 주제로 한 워크숍이 2010년 11월, 2011년 4월과 6월에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디자이너, 개발업자, 커뮤니티 대표자 등 12명의 이해관계자가 초청되어 도시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과정을 알리고, 약 500명에게 이메일(21회)을, 9,000명에게 전자뉴스(10회)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외 지역별로 마을 걷기, 샤렛(Charrette) 워크숍, 공식 의견수렴(public comment)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4-13] 센트럴시티플랜 2035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행사

이벤트	날짜	참석인원(명)
심포지엄	2010. 10~2011. 5	360
오픈하우스	2010. 10	100
도시 설계 워크숍	2010. 11	35
도시 설계 워크숍	2011. 4	20
도시 설계 워크숍	2011. 6	20
Central City 공공 이벤트 총 참석자 수		535

주: City of Portland, Bureau of Planning & Sustainability(2010)의 「Central City 2035 Introduction, Public Review Draft」내용 참조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 (<http://www.portlandoregon.gov/>)

[그림 4-22] 포틀랜드시 워크숍 모습

<센트럴시티 주민자문위원회 헌장>

Central City Advisory Group Charter (2010년 7월 15일)

• 목적

- 센트럴시티 자문위원회(Central City Advisory Group)는 센트럴시티플랜 2035의 1·2차 연도 작업을 주도하기 위한 조직임.
- 센트럴시티 자문위원회는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차원에서 센트럴시티 콘셉트계획을 수립함.

• 책임

- 매달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해야 함.
-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의 목적을 이해하고 따라야 함.
-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
- 주기적으로 시 위원, 자문위원과 토론해야 함.
- 센트럴시티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시 위원, 자문위원, 외부 단체들과 주기적으로 토의하고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해야 함.
- 센트럴시티 콘셉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토의해야 함.
- 센트럴시티의 발전에 관해 외부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개인적인 의견과 단체의 의견을 구분해서 수렴해야 함.
- 시의원과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과 협력하여 센트럴시티 콘셉트계획 최종안을 수립해야 함.
-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은 센트럴시티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구성하고 준비해야 함.

• 진행 및 회의

- 포틀랜드 시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 직원들은 회의 5일 전에 자문위원들에게 회의 계획서를 통지해야 함.
- 모든 회의 계획서, 요약본, 회의록 등은 포틀랜드 시 도시계획 및 환경사무국 웹사이트에 공개함.

• 금융 지원

- 모든 센트럴시티 자문위원은 무보수로 활동함.
- 단, 특별히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도시계획 및 환경 사무국에서 지원 가능함.

• 공공 참여

- 시민들은 센트럴시티 자문위원 선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모든 회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자료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 (<http://www.portlandoregon.gov/>) 참조

3_시사점

1)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구성,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

네리마구의 자치구계획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한다. 도쿄도는 도쿄도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가 주민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도쿄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 자치구계획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또한 네리마구의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수립되고 있다.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의 전반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생활권계획은 이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구체화한다. 각 지역생활권은 자치구계획 하에서 해당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자치구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지침 제시

네리마구는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과제와 미래상·토지이용방침과 마을 만들기 지침을 지역생활권별로 제시하고 있다. 도면 역시 개략적인 위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향후 계획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제시하되,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생활권계획 중 실질적인 활용성이 높은 ‘마을 만들기 지침’은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지역생활권계획은 처음 수립되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네리마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과 수준의 계획내용을 제시해야 하는지, 수립된 계획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서울시·자치구·전문가·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3)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참여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네리마구는 자치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 단위로 60명 내외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원 자발적인 참여자들로 구성하였다.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약 10개월 간 총 10차례 개최되었으며, 직장인의 참여를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약 2시간 동안 개최되었다. 또 계획안이 완성된 후 7차례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피드백하였다.

한편, 포틀랜드 시는 ‘센트럴시티플랜 2035’ 수립을 위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주민자문위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시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문위원은 주민에게 계획내용과 수립과정 등을 알리고, 상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들은 계획이 수립되는 약 1년간 활동하면서 13차례의 정기회의에 참여하였다.

향후 서울의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리마구처럼 직장인과 젊은층의 참여를 배려해야 하며,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

포틀랜드 시는 모든 도시계획과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심부 커뮤니티계획 수립과정에는 센트럴시티 주민자문위원회 헌장(Central City Advisory Group Charter) 등 명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주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헌장에는 자문위원회 운영목적, 자문위원의 책임과 의무, 진행방식, 보수 등 주민들의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의 명단은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주민자문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5년 ‘도시계획 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참여를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참여단의 구성·참여단의 권한·운영방식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도시계획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원칙, 주민참여단의 권한과 의무, 공공의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05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쟁점과 과제

- 1_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문제
- 2_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문제
- 3_자치구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 4_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 5_계획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05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쟁점과 과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문제, 2)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문제, 3) 자치구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4) 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5)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등 5개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각 쟁점별로 서울시·자치구·총괄계획가·부문계획가·기술용역사·워크숍 진행자·지역주민 등 참여주체별 입장을 살펴보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주요 쟁점

1_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문제

1) 쟁점 및 주요 의견⁵¹⁾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지역별로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중간단계계획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활권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고,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권역별 총괄계획가, 자치구 등 관련 주체별로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의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총괄계획가는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 :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 강조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이 용도지역·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개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간계획을 별도로 구성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중심지, 용도지역, 밀도·높이, 생활기반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부 자치구도 생활권계획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시기본계획에 담기 어려운 사업 구상과 실현수단을 제시하는 등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활권계획이 향후 자치구의 여건변화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총괄계획가 :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강조

총괄계획가는 생활권계획이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황을 토대로 구역·경계·숫자 등 구체적인

51) 쟁점별 주요 의견은 총괄계획가, 자치구, 기술용역사 등의 면담 및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도시관리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와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 5-1]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관련 주요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괄계획가	•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체별 이견 발생 - 생활권계획의 역할이 수립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되면서 서울시·총괄계획가·자치구가 생각하는 생활권계획의 모습이 서로 다름. - 생활권계획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모두 다르므로, 조율과 합의를 통해 계획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발전방향 제시 필요 - 생활권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미래를 예측하거나 다양한 계획내용을 담기 어려움. - 도시기본계획 성격을 가지므로, 지역생활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구체적인 구역, 경계, 숫자 등의 표기는 지양해야 함.
서울시	• 생활권계획을 통해 도시관리 원칙 및 기준 마련 필요 - 공간계획에 대한 자치구, 시·구의원 등의 관심 높은 편 -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중심지, 용도지역, 밀도, 높이, 경관, 기반시설 관리의 원칙과 기준 제시 필요
자치구	• 생활권계획의 정체성과 역할 불분명, 자치구별 기대사항 달라 - 생활권계획의 실현방안과 수단, 예산 등을 명시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함. -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다양한 변화와 정책을 포괄해야 함.
기술용역사	• 생활권계획의 내용범위가 넓어 계획의 성격이 모호 - 권역-지역생활권계획, 이슈별 계획-공간계획 등 다양한 공간범위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생활권계획의 내용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움. • 공간계획의 내용 지나치게 구체적 - 지역생활권계획의 경우, 공간계획이 지나치게 세분화·구체화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지침으로 보기 어려움.

2) 개선과제와 방향

○ 생활권계획에 대한 공론화과정 및 수립기준 작성 필요

서울에서는 2007년 「권역별 발전계획」, 2009년 「권역별 르네상스」 등 권역단위로 계획을 수립·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지역생활권계획은 처음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대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생활권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제시할 것인지, 수립된 계획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생활권계획의 수립 기준,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5개의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 등 여러 지역에서 서울시·자치구·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명확한 수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생활권계획의 명확한 위상과 실행근거 마련

생활권계획은 2014년 10월 개정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에서 생활권계획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관련계획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계획과 사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이다.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생활권계획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자치구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조례를 통해 계획의 위상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네리마구는 ‘마치즈쿠리 조례’ 중 2장 ‘마치즈쿠리 계획’에서 자치구계획의 위상, 변경절차, 계획수립 과정의 주민참여 등의 근거를 구의 여건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향후 서울에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생활권계획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⁵²⁾,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생활권계획의 위상·수립절차·실행근거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5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 ⑥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2_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문제

1) 쟁점 및 주요 의견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내용의 획일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위주로 되어 있거나 지역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지역은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이슈가 유사하거나 없는 지역생활권 문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술용역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역생활권들은 비슷한 지역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생활권과 계획이슈가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거지나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경우에는 계획이슈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노원구 하계지역생활권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주택의 97%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복지·보육시설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특별한 계획 이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도 워크숍에서 ‘주차장 부족’, ‘마을버스 확충’ 등의 불편사항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총괄 및 부문 계획가는 이처럼 계획이슈가 없는 지역생활권도 동일한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116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개별적 접근

116개 지역생활권을 일괄적·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획일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생활권에서는 주차장이나 공원, CCTV 부족, 쓰레기처리 문제 등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계획이슈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당초 권역계획을 토대로 지역생활권계획의 이슈와 계획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했지만, 3~7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권역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 간의 간극이 커서 계획요소들을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총괄 및 부문 계획가 등은 개별적인 지역생활권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자치구 단위로 지역생활권의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5-2]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 관련 주요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괄 및 부문계획가	• 자치구 단위를 활용한 계획수립 필요 - 모든 지역생활권을 동일한 형식으로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권역과 지역생활권 간 공간범위의 격차가 커서 계획내용을 상호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치구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있음.
자치구/기술용역사	• 계획이슈가 없거나, 주변지역과 이슈가 유사한 지역생활권 문제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 위주의 지역생활권과 재개발 예정지역 등은 큰 이슈가 없음. - 상당수 지역생활권에서 유사한 지역특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치구 단위로 여러 지역생활권의 현황과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필요

2) 개선과제와 방향

○ 자치구 단위를 활용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운영

자치구 단위를 활용하여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생활권별 특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구 단위로 여러 지역생활권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자치구의 공통된 이슈와 지역생활권의 개별 이슈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역계획을 구체화하여 자치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자치구는 구 단위에서 여러 지역생활권의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생활권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쿄의 네리마구는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생활권계획이 자치구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다. 향후 서울에서도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명소화 전략 등 지역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방안 모색

지역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명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자원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명소화 전략으로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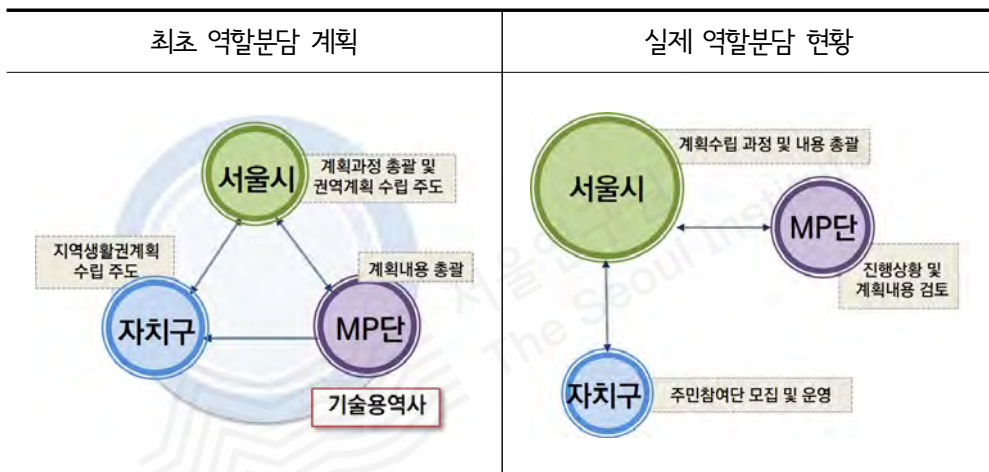
예컨대 동북권에서는 ‘명소화 전략’을 통해 지역자원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과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을 성장자원·잠재자원·쇠퇴자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명소화 전략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_자치구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1) 쟁점 및 주요의견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 총괄계획가,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은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총괄계획가의 권한도 모호한 실정이다.

[표 5-3] 역할분담 계획 및 현황



○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치구 배제

당초 시범 지역생활권(22개)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나머지 지역생활권(83개)은 자치구 주도로 수립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는 주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만 담당하고 있을 뿐,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의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계획수립 상황이나 계획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피드백 과정이 없어 계획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반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수립 권한을 이양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괄계획가도 현재는 자치구별로 계획 역량이나 관심의 격차가 커서 일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치구는 지역생활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생활권계획의 창구로서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5-4] 자치구 역할 관련 주요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괄계획가	• 자치구 역할 미흡, 향후 명확한 역할 부여 필요 - 상향식 도시계획을 지향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자치구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하향식 시스템으로 수립하고 있음. - 자치구는 내실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향후 계획의 실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함.
자치구	• 자치구 역할은 주민참여단 모집·운영뿐 - 현재 자치구의 역할은 단순 주민참여단 모집·운영에 그치고 있음. - 서울시 요청에 따라 '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 구성했으나, 명확한 역할이 없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획내용 공유도 어려워 - 참여한 주민들이 후속과정, 진행상황 등을 문의해도 답하기 어려움. - 계획안을 검토한다 해도 수립과정과 내용의 근거를 알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도 미흡함.
기술용역사	• 계획내용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간 논의 미흡, 자치구 역할에 한계 - 시-구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현재는 공식 채널이 없으며 공문을 통해서만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팀을 구성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지만,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

○ 총괄계획가의 권한 모호

당초 서울시는 권역별 총괄계획가가 생활권계획 내용을 총괄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지만, 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형식적이며,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기술용역사도 총괄계획가에 확실한 역할 부여와 권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초의 역할 분담과 달리,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개입이 커지면서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총괄계획가와 기술용역사는 지역현황을 반영한 유연한 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의 개입을 줄이고, 권역별 총괄계획가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5-5]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권한 관련 주요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 총괄계획가의 역할 모호하고 형식적 -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단순한 용역 감독인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총괄계획가인지, 확실한 역할과 권한 설정이 필요함. - 계획내용에 대한 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함. 총괄계획가보다 발주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총괄계획가 외에 부문별 계획가의 역할이 크지 않음. • 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권한 부여 필요 - 생활권계획의 유연화, 특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역별 총괄계획가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

2) 개선과제와 방향

○ 자치구 주도의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지역여건을 잘 아는 자치구 주도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수립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생활권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조직·예산 등을 확충하여 지역생활권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계획의 수립 및 실현주체로서 자치구 여건과 서울시·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간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계획을 실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을 조정·승인하고, 지원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 시·구의회에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

생활권계획의 실현 강화 및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시·구의회를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을 홍보하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서울수도 2015년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몇몇 자치구에서는 생활권계획을 모르거나 계획수립에 공감하지 않는 구의회의 반대로 주민참여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 생활권계획에 대한 설명회는 주로 자치구 도시계획 실무진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시·구의회를 비롯한 주택·교통·환경 등 관련부서의 이해를 높이는데 소홀한 면이 있었다.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추진경과·향후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고, 생활권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실질적인 ‘총괄계획가’로서의 역할과 권한 부여

향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자치구·주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향식 계획인 생활

권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주민 등의 입장이 상충하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지역현황과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각 주체별 의견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총괄계획가가 도시계획에 대한 자치구의 전문성을 보완하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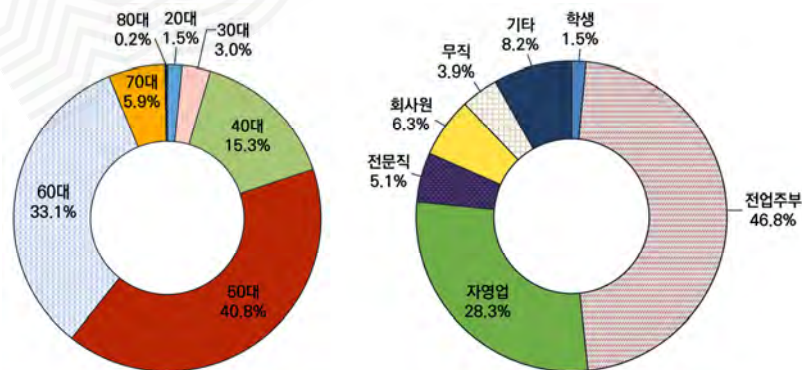
4_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1) 쟁점 및 주요의견

○ 통반장, 자치위원 위주로 주민참여단 구성

당초 주민참여단은 일반주민 5명·주민자치위원 5명 등 행정동별로 10명이 참여하고, 참여자들의 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르게 모집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민참여단의 대부분은 통반장·주민자치위원 등 지역활동 경험자와 전업주부 등 50~60대 여성 위주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집계한 22개 자치구의 주민참여단 구성을 보면⁵³⁾, 2015년 주민참여단 3,109명 중 남성(38%)보다 여성(62%)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50대(41%)와 60대(33%)가 전체의 74%를 차지하여 주민참여단 구성원의 연령 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47%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28%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회사원(6%)과 학생(2%)의 참여 비율은 소수에 그쳤다.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5년 주민참여단 조사자료

[그림 5-2]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연령 및 직업 구성

53) 2015년 주민참여단 총 3,109명의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민참여단에 대한 서울시 조사결과는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참여단 설문 조사의 응답자 특성과도 유사하다. 응답자의 대다수(91%)가 통반장·주민자치위원이었으며,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61%, 자가 거주비율이 83%로 나타나 30~40대 연령층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여성 위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마포구 용강·상암생활권)

총괄계획가와 기술용역사에 따르면,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오후에 개최되었고, 참여단의 연령과 직업이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어떤 자치구의 지역생활권은 평소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워크숍에서는 노인시설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와 워크숍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자가 거의 없는데다가, 일부 지역활동 경험자들은 왜곡된 주민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구청장 공약사항 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워크숍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 4시간씩 2회, 형식적인 워크숍 운영

대부분의 지역생활권에서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4시간씩 2회, 총 8시간 개최하였다. 지역별 여건과 주민참여단의 분위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워크숍이 개최되어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총 8시간은 지역문제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워크숍 프로그램 별로 배정된 시간에 쫓기면서 진행하다 보니 심도 있는 논의가 힘들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회 4시간 진행되는 워크숍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50~60대의 참여자들은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워크숍 횟수와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1회당 시간(4시간)은 길고 횟수(2회)는 적다는 응답도 많았다. 하지만 자치구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진행자와 주민참여단 수당 등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워크숍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워크숍 진행자는 서울시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단과 워크숍 진행자의 이해와 역량 미흡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계획에 반영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주민들은 민원성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워크숍 진행자 역시 생활권계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권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고,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5-6] 주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 관련 주요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괄계획가	• 주민의 대표성, 운영 시간, 논의 방식 등 개선 필요 -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워크숍이 운영됨.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회 8시간은 주민참여단이 논의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임. 주민참여예산제와 비교했을 때, 구성원, 운영방식, 결과물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워크숍이 형식적, 보여주기 식, 개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음.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이 대부분임.
자치구	• 자발적 참여 미흡, 50~60대 여성 위주로 편중 - 자발적 참여가 거의 없어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추천으로 선정됨.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로 구성하기 어려움. - 평일 오후에 개최되어 젊은 층의 참여가 불가능함. - 주부 등 여성비율이 높고, 지역활동 경험이 있는 50~60대 어르신들로 편중되어 있어 워크숍 결과가 지역 전체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움. 반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았음. • 심층적인 논의 어렵고, 민원성·실현 불가능한 의견이 대다수 - 워크숍에서 논의할 이슈나 구체적인 주제가 없어 논의를 어려워한 경우도 있었음. 이에 따라 민원성이거나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들이 대다수였음. - 개발사업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기술옹역사	• 형식적인 워크숍 운영 - 형식적인 워크숍 운영과 주민참여가 가장 문제임. 자발적 참여자가 거의 없었음. - 워크숍이 프로그램이나 시간 중심으로 운영됨.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단순 민원사항을 얘기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음.

[표 5-7] 워크숍 진행자 및 주민참여단 추가의견

구분	주요 의견
워크숍 진행자	• 횃수·시간 부족하고, 개선방향/자원 활용방안 등 논의 어려움 - 기존 주민참여형 사업에 비해 워크숍 횃수가 적은 편임.(마을단위 4회, 읍/면단위는 9~10회 정도 개최) - 시/구에서 다양하고 자세하면서도 창의적인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주민들이 심사숙고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시간이 부족함. - 생활권계획의 내용 범위가 너무 넓고 다루는 이슈가 많음. 전문용어가 많아서 워크숍 진행자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편임. -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상과 창의적인 자원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임. • 참여단의 대표성 부족, 고령자/지역활동경험자 등에 편중 - 참여단의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4시간 동안 참여하는 것에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음. - 참여자들 대부분이 주민참여 경험이 많은데, 이런 경험이 잘 숙련되기 보다는 워크숍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의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음. • 주민, 워크숍 진행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 주민참여단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워크숍 진행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함.
주민참여단 (추가 의견)	• 사전교육·사전자료 제공 미흡 - 사전교육·사전자료 제공이 필요함.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 - 다른 지역생활권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공유 필요 • 주민 대표성 확보, 심층적인 논의 어려워 - 한 동네 안에서도 지역별로 주민이 골고루 참여해야 함. 지역활동가·취약계층·젊은 층들의 의견도 제시되어야 함. -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운 시간에 개최되는 점이 아쉬움. - 같은 안건이 중복적으로 토론되었음.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함. - 제한된 시간에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다보니 심도 있는 제안이나 토론이 어려웠음. 또한 시간이 너무 길어 집중력이 저하되고 힘들었음. • 주민의견의 반영 요청 - 소중한 시간을 낸 만큼 주민의견이 시나 구의 정책에 반영되기 바람.

2) 개선과제와 방향

○ 주민참여단 워크숍 횟수 확대

생활권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2차례 개최된 주민참여단 워크숍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은 지역자원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미래상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에만 참여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의 역할과 참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리마구와 포틀랜드 시의 경우 1년여 간 10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 네리마구 자치구계획 수립 시에는 60여 명의 주민참여단이 10여 차례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치구 차원의 계획과제와 지역생활권별 이슈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사전교육 및 피드백 과정을 보완한 주민참여 과정 운영

주민 워크숍과는 별도로 사전교육과 설명회 등의 피드백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교육을 통해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현황 파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31%)’과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2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최종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98%가 생활권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워크숍에서 제시한 주민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

네리마구의 경우 주민참여단 워크숍 이전에 ‘지금부터 집회’라는 행사를 통해 자치구계획과 지역 현황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10차례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자치구계획안을 마련하고,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림 5-4]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개선해야 할 점



[그림 5-5] 주민설명회 필요성

- 주민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주민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외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자치구 및 지역생활권별 현안·계획과제·개선방향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주민참여단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 외에도 페이스북·트위터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포틀랜드 시처럼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지역 내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네리마구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시민 도시계획 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참여단 관련 규정 마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9월, 서울시가 선포한 「서울시 도시계획 헌장」에서도 10개의 도시계획 원칙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참여 범위, 주민의 권리, 위원의 임기 및 위촉방법, 회의 개최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여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벤치마킹하여 근거 규정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의 경험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자치구 단위의 주민참여단 운영 필요

향후 자치구 단위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참여단을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주민참여단의 구성방식 등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단의 인원과 선정 기준, 참여방식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주민들의 역량이 향상된다면 단순한 주민참여를 넘어 포틀랜드 시처럼 ‘주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⁵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예산을 뒷받침한다는 면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성북구는 서울시보다 1년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조례 제정과 동시에 1기 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5기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주민참여를 통해 7~8억 규모의 50~60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 총 60명 이내(당초 40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확대)
- 공개추첨으로 선정(당초 전문가, 당연직 공무원 등도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전원 일반시민으로 구성)
-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교육

- 주민설명회 : 주민참여 예산제도 설명 및 사업제안 유도(8개 권역별로 개최)
- 주민참여예산학교 : 주 2회 총 4회(저녁 7~9시)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정

- 3~4월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5~6월 :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접수 및 부서 검토
- 7~8월 : 각 동별 지역회의 개최(1회), 분과위원회 검토(회의2회, 현장방문 등)
- 9~11월 : 주민총회를 통한 최종 사업결정 및 예산 편성
- 12~1월 : 예산확정 및 결과공개, 운영과정 평가 등

54) 성북구청 주민참여 예산제 홈페이지
 성북구, 2012,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
 성북구, 2013,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다
 성북구, 201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재구성

5_계획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1) 쟁점 및 주요 의견

생활권계획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다가 공간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해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자치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계획수립의 연속성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 4개 권역별로 계획수립, 권역 간 일관성 확보에 한계

생활권계획은 4개 권역과 105개 지역생활권(도심권 제외) 등 서울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계획에서 다루는 부문과 내용이 방대하여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되고 있다. 각 권역별로 총괄계획가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역 간 조정과정이 미흡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총괄계획가는 계획의 내용과 범위가 방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기 어려웠고, 권역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이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교체에 따라 수립방식 변경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 사전연구를 수행했고, 2014년 9월 본격적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계획수립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생활권계획추진반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인사이동이 있었고⁵⁵⁾, 이로 인해 이전의 계획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수립방향을 재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55) 생활권계획 수립이 진행되던 2015년 1월 생활권계획추진반 반장과 팀장이 교체되었고, 2015년 말에도 생활권계획추진반 반장과 팀장·담당주관 등이 교체되는 인사이동이 있었다.

생활권계획 담당자의 교체는 자치구에서도 있었다. 2014년 이후 광진·노원·양천·관악·강남구 등 7개 자치구에서 담당자가 교체되었다. 당초 시범계획 수립은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치구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 계획 수립단계에서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시범계획의 경험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4년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설치한 13개 구 중 5개 구가 2015년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총괄계획가와 기술용역사에 따르면,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계획수립 과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표 5-8] 계획수립과정의 일관성 관련 주요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 권역 간 계획내용 조정에 한계,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 어려워 - 권역별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총괄계획가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계획내용이 다르게 구성됨. - 권역 간 협의·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일관된 계획의 결과물 도출 어려움. 특히 조정회의가 보고 위주로 진행되면서 쟁점사항 조정이 어려워짐. • 권역 간 협의·조정 방식 개선 필요 - 총괄기능 강화·권역 간 조정 및 중재·일관성 있는 계획방향 설정이 필요함. • 생활권계획 담당공무원 교체에 따른 계획수립방식 변동 - 교체된 담당자가 기존의 수립방향, 기준 등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계획의 연속성과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침. - 자치구에서도 담당자가 교체되어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음.

2) 개선과제와 방향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총괄·협의기능 강화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계획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추진반과 총괄계획가가 중심이 되어 총괄기능을 담당하되, 생활권계획 자문단을 운영하여 생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 같이 권역별로 자치구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 간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괄기능은 생활권계획 수립 이후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향후 생활권계획의 실현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연차별 리포트를 발간하고, 생활권계획 백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생활권계획 재정비 및 여타 광역시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자제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에서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계획수립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자치구에서도 생활권계획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과 이해도에 따라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방식,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달라졌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생활권계획을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의 생활권계획 추진팀이 계획의 실현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교통·도시계획·기반시설 등이 참여하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이 중심이 되어 자치구 각 부서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06

결론 및 정책제언

1_요약 및 결론

2_정책제언

06 결론 및 정책제언

1_요약 및 결론

1) 생활권계획의 단계별 수립과정

-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최초 도입, 2016년 확정 예정

생활권계획은 전략계획 성격으로 수립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25개 자치구와 약 4,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사전 준비, 계획 착수,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사전준비를 통해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2013년에는 서울시 생활권계획 추진반·자치구 생활권계획 추진팀·총괄계획가 등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권역계획의 이슈별 계획과 22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안)을 마련했고, 2015년 말 현재 권역계획의 공간계획과 83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특히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40여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2회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6년 말까지 전체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생활권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 생활권계획 수립의 의의

서울시가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은 계획의 내용과 형식, 수립과정 측면에서 기존 도시계획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도시기본계획을 자치구와 지역주

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권계획은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지역별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 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생활권 단위로 계획과제와 이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주택·경관·교통 등 부문별 계획과 사업들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생활권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각 부서와 자치구가 일관성 있게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의 예측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생활권계획을 통해 자치구 발전계획 등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함께 도시관리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자치구는 구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생활권계획을 자치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마을이나 사업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생활권계획이 처음이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주민참여단 역시 대부분 워크숍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고,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수립과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쟁점

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와 쟁점이 제기되었다. ①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 문제, ②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문제, ③ 자치구의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④ 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등이다.

첫째, 생활권계획은 ‘중간단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 서울시, 자치구 등 관련 주체들이 생활권계획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서로 달라 많은 이견이 있었다.

둘째,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이 우려된다. 주거지 위주로 되어 있거나 지역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지역은 지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미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어 계획이슈를 도출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

셋째,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지만, 실제 수립과정에서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할 뿐 계획수립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권역별 총괄계획가의 역할도 모호한 편이다.

넷째, ‘상향식 계획’으로서 4,000여 명의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워크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주민참여단이 대부분 50~60대 전업주부에 편중되어 있고, 주민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4개 권역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형식과 표현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추진반,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구성했지만, 계획수립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어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2_정책제언

1) 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실현전략 마련

○ 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위상 설정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공간적으로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되며, 내용적으로는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분된다. 생활권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이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분되지만, 핵심은 지역생활권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으로서 지역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 계획내용과 표현방법, 활용방안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생활권 단위의 상세한 공간계획은 이번에 처음 수립하는 것이므로,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을 지역생활권 단위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지역생활권계획은 공간계획보다 이슈별 계획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역할을 규정하고, 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와 실행근거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2016년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에는 이를 어떻게 운영·실현해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과 사업, 시책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실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가 추진하는 계획이나 사업 중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내용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자치구 단위를 활용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 자치구 단위의 지역별 이슈 발굴 과정 필요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생활권계획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단위로 지역생활권별 이슈를 파악하고, 자치구의 발전방향에 따라 균형감 있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네리마구처럼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소화 전략을 통해 지역생활권별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보다 명소화 전략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자치구 주도의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총괄계획가의 역할 강화

- 자치구 주도의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지역여건을 잘 아는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는 생활권계

획 추진팀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계획 내용을 조정·승인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구의회·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총괄계획가’에게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부여

총괄계획가에게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계획수립과정을 총괄하되, 총괄계획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자치구·주민의 의견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4) 주민참여 워크숍 횟수 확대 및 사전교육·피드백 강화, 주민참여 규정 마련

○ 워크숍 횟수 확대, 지역정보 제공 및 사전교육, 설명회 필요

주민참여단 워크숍 시간은 줄이되 횟수를 늘려서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워크숍과는 별도로 사전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단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정보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역생활권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역생활권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관련 규정 마련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법과 기회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 단위의 광범위한 설문조사·SNS 등 미디어 활용, 여타 행사와 연계한 전시·설명회·생활권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하여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차원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권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생활권계획의 총괄·협약기능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체계 마련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총괄 및 협약기능 강화

생활권계획이 다루는 공간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므로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추진반과 총괄계획가가 중심이 되어 총괄기능을 담당하되, 생활권계획 자문단을 운영하여 생활권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 같이 권역별로 자치구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 간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자제 및 협력 기능 강화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서울시·자치구 생활계획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활성화하여 자치구가 생활권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로구청, 2014,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자치구 운영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 _____, 2011,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2013a,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 _____, 2013b,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자료집」.
- _____,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_____, 2015,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운영 매뉴얼」.
- 이륜정·이제선, 2008,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춘계산학협동학술대회.
- 이여경, 2015, “한국 도시설계제도의 통합화 방안”,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정민·양재섭·김창기, 2006,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권 3호, pp.31~50.
- 練馬区, 2006, 練馬区まちづくり条例の あらまし.
- _____, 2013,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区民意見交換会ニュース, 1~10호.
- _____, 2015a, 練馬区勢概要.
- _____, 2015b, 練馬区都市計画 スタープランまちづくりカルテ.
- _____, 2015c,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 変更原案.
- City of Portland, Bureau of Transportation,, 2003, *‘Russell Street Improvement Planning Project Final Report’*.
- City of Portland, Bureau of Planning & Sustainability, 2010a, *‘Central City 2035 Concept Plan’*.
- _____, 2010b, *‘Central City 2035 Introduction. Public Review Draft’*.
- Oregon’s Citizen Involvement Advisory Committee(CIAC), 2008, *‘Putting the People In Planning’*.

<보도자료 및 결재문서>

- 머니투데이, 2013. 9. 9, “서울시 5개 생활권 나눠 도시계획”.
- 서울특별시, 2012. 8. 16,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으로 미래 서울 설계한다”(보도자료).
- _____, 2013. 3. 13,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보고 결과”(내부문서).
- _____, 2013. 4. 1, “서울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토대 마련하다”(기자설명회 자료).
- _____, 2013. 7. 24,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자료”.
- _____, 2013. 8. 9,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결과”(결재문서).
- _____, 2013. 8. 29, “자치구-용역사 생활권계획 교육 결과보고”(결재문서).
- _____, 2013. 9. 4,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세부 시행계획”(결재문서).
- _____, 2013. 9. 9, “서울시, ‘2~3개 행정동’ 단위 생활권계획 최초 수립”(보도자료).
- _____, 2014. 4. 15, “생활권계획 수립 도시계획 협업체계 구성 운영방안”(결재문서).
- _____, 2014. 6. 10, “생활권계획 수립 설명자료”(결재문서).
- _____, 2014. 6. 10, “생활권계획 수립 시·구 합동회의 개최 계획”(결재문서).
- _____, 2014. 7. 30, “생활권계획 홍보 계획”(결재문서).
- _____, 2014. 8. 11,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운영 계획”(결재문서).
- _____, 2014. 9. 4,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결재문서).
- _____, 2014. 12. 9, “생활권계획 홍보 모니터링 시행 계획”(결재문서).
- _____, 2015. 1. 13, “2014년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 개최결과”.
- _____, 2015. 1. 26, “2015년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 _____, 2015. 2. 23, “2015 참여단 워크숍 운영 관련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계획”.
- 영등포구청, 2014, 「서울시 생활권계획수립 워크숍 보고서 : 영등포구청 영등포생활권
- 중랑구청, 2014. 8. 29,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홈페이지>

<http://www.city.nerima.tokyo.jp/>(도쿄 네리마구)

<http://planning.seoul.go.kr/>(서울시 생활권계획)

<http://www.portlandoregon.gov/>(포틀랜드시)

<http://seoul.go.kr/>(서울시)

부록

01 | 면담조사 대상 및 일정

[표 1] 서울시·자치구 면담조사 대상 및 일정

구분	일시	대상
서울시	3. 20.	윤장혁 팀장, 원영구 주임
	3. 30.	윤장혁 팀장
	10. 19.	한선희 반장, 김현정 팀장, 원영구, 강명화 주임
	11. 16.	한선희 반장
성동구	5. 8.	이수진 주임, 조현정 주임
광진구	4. 21.	고영래 주임, 박상우 팀장
동대문구	5. 8.	최경식 주임
종로구	4. 14.	김성태 주임
성북구	4. 2.	강선주 주임
강북구	5. 8.	황성련 주임
도봉구	4. 22.	이상범 주임
노원구	4. 22.	지창희 주임
은평구	5. 6.	김일호 과장, 강성호 주임
서대문구	4. 7.	오선영 주임
마포구	6. 2.	유철응 팀장
양천구	5. 13.	박운희 주임
강서구	5. 13.	이상준 주임
구로구	4. 1.	조지선 주임(※ 이기호 과장 11. 4.)
금천구	5. 7.	김선배 주임
영등포구	5. 7.	홍석준 주임
동작구	4. 8.	김석호 팀장, 진승희 주임
관악구	5. 1.	홍동수 주임
서초구	4. 28.	신명철 주임, 임원선 주임
강남구	4. 21.	신성수 주임, 김현진 주임
송파구	4. 28.	하상덕 주임
강동구	4. 9.	이동욱 주임

[표 2] 면담조사·서면의견조사 대상 및 일정

구분	일시	대상
총괄·부문 계획가	2015. 3. 20.	이인성 교수(서울시립대, 동북권 총괄계획가) 이승주 교수(서경대, 서북권 총괄계획가) 백운수 대표(미래이엔디, 2014년 서남권 총괄계획가)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2015년 서남권 총괄계획가) 남진 교수(서울시립대, 동남권 총괄계획가)
	6월 (서면자문)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서북권 총괄계획가) 고진수 교수(광운대, 서남권 부문계획가) 김승배 대표(피데스개발, 동북권 부문계획가) 김찬호 교수(중앙대, 서북권 부문계획가) 박태원 교수(광운대, 동북권 부문계획가) 유천용 대표(엠와이이앤씨, 동남권 부문계획가) 이광환 대표(해안건축, 동남권 부문계획가) 이동민 교수(서울시립대, 동남권 부문계획가) 이동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서북권 부문계획가) 이제선 교수(연세대, 동북권 부문계획가)
	2015. 11. 4.	이인성 교수(서울시립대, 동북권 총괄계획가) 이승주 교수(서경대, 서북권 총괄계획가)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2015년 서남권 총괄계획가) 남진 교수(서울시립대, 동남권 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2015. 6. 22.	김진기 이사(동림피앤디, 서북권) 박상섭 전무(디에이그룹, 서남권) 장호순 이사(미래이엔디, 서남권)
	6월 중 (서면자문)	조완섭 상무(제일엔지니어링, 동남권) 이재홍 이사(건화엔지니어링, 동북권)
	2015. 8. 19.	박종범 부장(제일엔지니어링, 동남권) 이기복 차장(미래이엔디, 서남권) 이승진 부장(건화엔지니어링, 동북권) 한승철 이사(동림피앤디, 서북권)
	2015. 11. 4.	장호순 이사(미래이엔디, 서남권)
워크숍 진행자	2015. 7. 1.	김윤이 본부장(퍼포먼스위이) 박연수 책임연구원(쿠팡실리테이터) 박승수 이사(타운미팅)

02 | 설문조사 일정 및 질문지

1_설문조사 일정

[표 3] 자치구별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일정

자치구	지역생활권명	참여단 인원	설문 응답 수	설문 일시
노원구	월계/공릉(2)	50	33	5월 27일 오후 2시
은평구	응암	40	31	5월 28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여의도(2)	30	23	5월 29일 오후 2시
구로구	구로·신도림	40	36	6월 2일 오전 9시
송파구	송파/석촌(2)	70	39	6월 2일 오전 9시
성북구	종암·월곡	32	16	6월 4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	30	22	6월 26일 오후 2시
동작구	노량진	30	26	7월 9일 오후 2시
성동구	왕십리·행당	50	39	7월 22일 오후 2시
관악구	대학	30	14	7월 27일 오후 2시
광진구	건대입구	30	19	8월 26일 오후 2시
양천구	목동2	50	36	9월 3일 오후 2시
도봉구	쌍문/초안산(2)	60	30	9월 7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청량리	30	18	9월 14일 오후 2시
마포구	용강/상암(2)	40	32	9월 16일 오후 2시
강북구	삼각산	30	23	9월 17일 오후 2시
서대문구	가좌	40	18	9월 22일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도곡	50	25	9월 23일 오후 2시
강서구	방화·공항	40	25	10월 15일 오후 2시
중랑구	면목	70	30	10월 21일 오후 2시
20개 구	총 25개 생활권	842	535	-

2_설문조사 질문지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주민참여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최초로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생활권계획과 서울의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서울연구원

연구·조사수행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양재섭 연구위원 (jsyang@si.re.kr)

남선희 연구원 (namsun11@si.re.kr), 02-2149-1102

I. 기본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는 아래와 같은 지역활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통·반장 ② 주민자치위원 ③ 주민참여예산위원
④ 기타 지역활동 () ⑤ 활동경험 없음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전문·연구직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대학(원)생 ⑤ 전업주부 ⑥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⑦ 무직 ⑧ 기타 ()

5) 귀하는 현 자치구에 몇 년간 거주하고 계십니까? ()

- ① 5년 미만 ② 5~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년 이상

6)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기타

7) 귀하는 현 주택에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II. 생활권계획 참여현황 및 인지도

문1) 귀하께서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

- ①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 ② 자치구·주민센터 추천으로
③ 주변 이웃 또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④ 기타 ()

문2) 귀하는 1·2차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전 과정 참석	중도 귀가	불참
1차 워크숍	①	②	③
2차 워크숍	①	②	-
	▶ 문3번으로	▶ 문2-1로	▶ 문2-1로

문2-1) 1·2차 워크숍에 중도 귀가하셨거나 불참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2차()

- ①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이 어려워서
② 워크숍 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생활권계획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내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 개인적인 업무와 사정이 있어서
⑥ 기타 ()

문3) 귀하께서는 주민참여단에 지원하기 전에 생활권계획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 ① 매우 잘 알고 있었다 ② 대체로 알고 있었다
③ 잘 몰랐다 ④ 전혀 몰랐다

문4) 1차 주민워크숍에서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했다 ② 충분했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했다 ⑤ 매우 부족했다

II. 주민워크숍 개최 및 운영방식

문5) 귀하는 1·2차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어떻게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개진, 발표, 스티커, 지도 작업 등)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②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
③ 소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 ④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문6)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① 생활권계획 이해하기 ② 우리지역 그리기 및 자원 찾기
③ 2030 우리생활권 미래상 설정 ④ 우리 생활권 문제점, 개선점 살펴보기
⑤ 생활서비스 시설 선호도 조사 ⑥ 기타 ()

문7) 주민참여단 워크숍의 '지역자원과 문제점 발굴, 미래상과 개선방향 논의과정'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충분했다	충분했다	부족했다	매우 부족했다
7-1) 지역자원과 문제점 발굴과정	①	②	③	④
7-2) 지역 미래상과 개선방향 논의과정	①	②	③	④

문8) 귀하는 이번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 운영되었다 ② 대체로 잘 운영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운영되지 않았다 ⑤ 전혀 잘 운영되지 않았다

문9) 생활권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지역자원과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 ② 지역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 ③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④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⑤ 지역주민들과 공감대·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 ⑥ 기타 ()

문10)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 필요하다.
- ②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③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워크숍 횟수·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 ④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⑤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 간 유대·친밀감 형성이 필요하다.
- ⑥ 기타 ()

문11) 귀하는 이번 워크숍의 주민참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 ② 의도는 좋았지만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

문12)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총 2회, 4시간씩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동별로 10명씩, 1~2만 원의 수당(교통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많다	많다	적당하 다	적다	매우 적다
1) 워크숍 횟수 : 2회	①	②	③	④	⑤
2) 워크숍 시간 : 4시간	①	②	③	④	⑤
3) 동별 참여 인원 : 10명	①	②	③	④	⑤
4) 수당(교통비) : 1~2만원	①	②	③	④	⑤

IV. 생활권계획의 평가 및 기대하는 점

문13) 귀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생활권계획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① 중심지·역세권 등 도시공간관리 | ② 용도지역 및 높이관리 |
| ③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 ④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 ⑤ 산업 발전 및 일자리 확충 | ⑥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 |
| ⑦ 생활안전 강화 | ⑧ 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
| ⑨ 기타 () | |

문14) 귀하는 이번 워크숍이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도움이 될 것이다 |
| ③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문15) 귀하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생활권계획을 설명하는 자치구 '주민설명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반드시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16) 다음번 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다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 ①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 ② 참여할 것이다 |
| ③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V.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및 주민참여단 워크숍 관련 제안사항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 | 설문조사 결과

1_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표 4]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소계	533	100.0
	남성	180	33.8
	여성	353	66.2
연령	소계	534	100.0
	40대 이하	88	16.5
	50대	233	43.6
	60대 이상	213	39.9
지역활동 경험	소계	534	100.0
	경험 있음	487	91.2
	경험 없음	47	8.8
직업	소계	533	100.0
	전문직·회사원	58	10.9
	자영업	150	28.1
	전업주부	248	46.5
	시민단체종사자·대학(원)생·무직·기타	89	16.7
거주기간	소계	534	100.0
	10년 미만	58	10.9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27.9
	20년 이상	327	61.2
주택유형	소계	535	100.0
	단독주택	122	22.8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123	23.0
	아파트	274	51.2
	기타	16	3.0
거주유형	소계	533	100.0
	자가	444	83.3
	전세	63	11.8
	월세·기타	26	4.9

2_문항별 응답 결과

문 1. 귀하께서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표 5]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참여경로

(단위 : %)

구분		계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	자치구 주민자치 센터 추천으로	주변 이웃 또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기타
		(인)	(%)				
전체	계	529	100.0	10.8	75.0	13.2	0.9
	동북권	206	100.0	8.7	81.1	9.7	0.5
	서북권	80	100.0	8.8	75.0	16.3	0.0
	서남권	157	100.0	14.6	70.1	14.6	0.6
	동남권	86	100.0	10.5	69.8	16.3	3.5
성별	남성	179	100.0	14.5	73.7	11.2	0.6
	여성	348	100.0	8.9	75.6	14.4	1.1
연령	40대 이하	88	100.0	25.0	64.8	8.0	2.3
	50대	230	100.0	9.6	77.8	12.2	0.4
	60대 이상	210	100.0	6.2	76.7	16.2	1.0
지역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2	100.0	7.1	80.7	11.2	1.0
	경험 없음	47	100.0	48.9	17.0	34.0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1.0	58.6	10.3	0.0
	자영업	148	100.0	6.8	81.1	12.2	0.0
	전업주부	244	100.0	6.1	78.7	13.9	1.2
	학생·무직·기타 등	78	100.0	17.9	64.1	15.4	2.6
거주 기간	10년 미만	57	100.0	26.3	56.1	15.8	1.8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12.8	75.2	10.7	1.3
	20년 이상	322	100.0	7.1	78.6	13.7	0.6
주택 유형	단독주택	120	100.0	2.5	82.5	15.0	0.0
	다세대·다가구·연립	120	100.0	11.7	71.7	14.2	2.5
	아파트	273	100.0	13.2	73.6	12.8	0.4
	기타	16	100.0	25.0	68.8	0.0	6.3
거주 유형	자가	440	100.0	8.4	78.0	12.7	0.9
	전세	61	100.0	23.0	60.7	14.8	1.6
	월세·기타	26	100.0	23.1	61.5	15.4	0.0

문 2. 귀하는 1·2차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표 6] 1차 워크숍 출석

(단위 : %)

구분		계		전 과정 참석	중도 귀가	불참
		(인)	(%)			
전체	계	528	100.0	83.3	4.0	12.7
	동북권	206	100.0	82.0	2.9	15.0
	서북권	78	100.0	92.3	5.1	2.6
	서남권	160	100.0	84.4	3.8	11.9
	동남권	84	100.0	76.2	6.0	17.9
성별	남성	178	100.0	80.9	4.5	14.6
	여성	348	100.0	84.5	3.7	11.8
연령	40대 이하	87	100.0	77.0	8.0	14.9
	50대	228	100.0	81.6	2.6	15.8
	60대 이상	212	100.0	87.7	3.8	8.5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1	100.0	83.6	4.0	12.5
	경험 없음	46	100.0	80.4	4.3	15.2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82.8	5.2	12.1
	자영업	148	100.0	78.4	4.1	17.6
	전업주부	243	100.0	87.2	2.9	9.9
	학생·무직·기타 등	89	100.0	80.9	5.6	13.5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79.3	3.4	17.2
	10년 이상 20년 미만	145	100.0	80.0	5.5	14.5
	20년 이상	324	100.0	85.5	3.4	11.1
주택유형	단독주택	121	100.0	82.6	2.5	14.9
	다세대·다가구·연립	119	100.0	85.7	2.5	11.8
	아파트	272	100.0	83.1	5.1	11.8
	기타	16	100.0	75.0	6.3	18.8
거주유형	자가	441	100.0	84.1	4.1	11.8
	전세	59	100.0	78.0	5.1	16.9
	월세·기타	26	100.0	84.6	0.0	15.4

[표 7] 2차 워크숍 출석

(단위 : %)

구분		계		전 과정 참석	중도 귀가	불참
		(인)	(%)			
전체	계	530	100.0	92.5	7.4	0.2
	동북권	206	100.0	92.7	7.3	0.0
	서북권	78	100.0	89.7	9.0	1.3
	서남권	160	100.0	91.9	8.1	0.0
	동남권	86	100.0	95.3	4.7	0.0
성별	남성	178	100.0	89.9	9.6	0.6
	여성	350	100.0	93.7	6.3	0.0
연령	40대 이하	87	100.0	89.7	10.3	0.0
	50대	230	100.0	92.2	7.8	0.0
	60대 이상	212	100.0	93.9	5.7	0.5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3	100.0	93.2	6.6	0.2
	경험 없음	46	100.0	84.8	15.2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84.5	15.5	0.0
	자영업	146	100.0	93.2	6.8	0.0
	전업주부	243	100.0	94.2	5.8	0.0
	학생·무직·기타 등	81	100.0	91.4	7.4	1.2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89.7	10.3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7	100.0	92.5	7.5	0.0
	20년 이상	324	100.0	92.9	6.8	0.3
주택유형	단독주택	121	100.0	92.6	7.4	0.0
	다세대·다가구·연립	120	100.0	94.2	5.0	0.8
	아파트	273	100.0	91.6	8.4	0.0
	기타	16	100.0	93.8	6.3	0.0
거주유형	자가	442	100.0	92.1	7.7	0.2
	전세	60	100.0	96.7	3.3	0.0
	월세·기타	26	100.0	88.5	11.5	0.0

문 3. 귀하께서는 주민참여단에 지원하기 전에 생활권계획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표 8] 지원 전 생활권계획 인지도

(단위 : %)

구분		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대체로 알고 있었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인)	(%)				
전체	계	534	100.0	10.7	37.3	34.6	17.4
	동북권	207	100.0	9.7	41.1	34.3	15.0
	서북권	81	100.0	8.6	32.1	37.0	22.2
	서남권	160	100.0	11.9	38.1	33.8	16.3
	동남권	86	100.0	12.8	31.4	34.9	20.9
성별	남성	179	100.0	14.5	39.7	29.6	16.2
	여성	353	100.0	8.8	36.0	37.1	18.1
연령	40대 이하	87	100.0	6.9	20.7	39.1	33.3
	50대	233	100.0	9.0	41.6	35.2	14.2
	60대 이상	213	100.0	13.6	39.4	32.4	14.6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6	100.0	11.5	37.9	35.2	15.4
	경험 없음	47	100.0	2.1	31.9	27.7	38.3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10.3	43.1	29.3	17.2
	자영업	148	100.0	15.5	39.2	34.5	10.8
	전업주부	245	100.0	6.5	35.5	40.0	18.0
	학생·무직·기타 등	81	100.0	12.3	35.8	23.5	28.4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7.0	31.6	33.3	28.1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6.0	38.3	34.9	20.8
	20년 이상	327	100.0	13.5	37.6	34.9	14.1
주택유형	단독주택	122	100.0	18.9	36.1	34.4	10.7
	다세대·다가구·연립	123	100.0	8.9	32.5	41.5	17.1
	아파트	273	100.0	7.7	39.6	31.9	20.9
	기타	16	100.0	12.5	43.8	31.3	12.5
거주유형	자가	443	100.0	10.8	37.7	34.3	17.2
	전세	63	100.0	9.5	36.5	34.9	19.0
	월세·기타	26	100.0	11.5	34.6	34.6	19.2

문 4. 1차 주민워크숍에서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9]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설명 만족도

(단위 : %)

구분		계		매우 충분 했다	충분 했다	보통 이다	부족 했다	매우 부족 했다
		(인)	(%)					
전체	계	516	100.0	23.3	47.7	22.1	5.0	1.9
	동북권	195	100.0	25.6	43.1	22.1	6.7	2.6
	서북권	80	100.0	18.8	57.5	17.5	5.0	1.3
	서남권	155	100.0	24.5	47.7	25.2	1.9	0.6
	동남권	86	100.0	19.8	48.8	20.9	7.0	3.5
성별	남성	175	100.0	24.0	49.1	21.7	4.6	0.6
	여성	339	100.0	22.7	47.2	22.4	5.0	2.7
연령	40대 이하	81	100.0	14.8	51.9	22.2	8.6	2.5
	50대	226	100.0	21.2	47.3	23.0	6.6	1.8
	60대 이상	208	100.0	28.8	46.2	21.2	1.9	1.9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69	100.0	23.9	48.4	21.5	4.1	2.1
	경험 없음	46	100.0	15.2	41.3	28.3	15.2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6	100.0	26.8	46.4	19.6	7.1	0.0
	자영업	142	100.0	23.2	47.9	22.5	5.6	0.7
	전업주부	239	100.0	21.8	46.9	24.3	4.2	2.9
	학생·무직·기타 등	77	100.0	24.7	51.9	15.6	5.2	2.6
거주기간	10년 미만	53	100.0	18.9	50.9	22.6	5.7	1.9
	10년 이상 20년 미만	146	100.0	19.2	47.9	26.7	4.1	2.1
	20년 이상	316	100.0	25.9	46.8	19.9	5.4	1.9
주택유형	단독주택	118	100.0	24.6	49.2	22.0	3.4	0.8
	다세대·다가구·연립	116	100.0	20.7	48.3	23.3	5.2	2.6
	아파트	266	100.0	24.1	45.5	22.2	6.0	2.3
	기타	16	100.0	18.8	68.8	12.5	0.0	0.0
거주유형	자가	429	100.0	23.3	48.5	21.0	5.1	2.1
	전세	60	100.0	21.7	43.3	26.7	6.7	1.7
	월세·기타	25	100.0	28.0	44.0	28.0	0.0	0.0

문 5. 귀하는 1·2차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어떻게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0] 참여정도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했다	적극적 으로 참여한 편이다	소극적 으로 참여한 편이다	매우 소극적 으로 참여했다
		(인)	(%)				
전체	계	532	100.0	47.6	48.5	3.6	0.4
	동북권	208	100.0	49.5	46.2	3.4	1.0
	서북권	79	100.0	48.1	49.4	2.5	0.0
	서남권	159	100.0	45.3	50.9	3.8	0.0
	동남권	86	100.0	46.5	48.8	4.7	0.0
성별	남성	180	100.0	45.6	47.2	7.2	0.0
	여성	350	100.0	48.3	49.4	1.7	0.6
연령	40대 이하	88	100.0	37.5	56.8	5.7	0.0
	50대	233	100.0	49.8	46.4	3.4	0.4
	60대 이상	210	100.0	49.5	47.1	2.9	0.5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4	100.0	49.4	47.1	3.1	0.4
	경험 없음	47	100.0	27.7	63.8	8.5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48.3	44.8	6.9	0.0
	자영업	148	100.0	50.7	43.2	5.4	0.7
	전업주부	246	100.0	45.5	52.4	1.6	0.4
	학생·무직·기타 등	79	100.0	46.8	49.4	3.8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44.8	48.3	5.2	1.7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40.9	54.4	4.7	0.0
	20년 이상	324	100.0	50.9	46.0	2.8	0.3
주택유형	단독주택	120	100.0	53.3	42.5	4.2	0.0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48.4	48.4	2.5	0.8
	아파트	274	100.0	44.5	51.8	3.3	0.4
	기타	16	100.0	50.0	37.5	12.5	0.0
거주유형	자가	442	100.0	48.2	48.0	3.4	0.5
	전세	62	100.0	45.2	51.6	3.2	0.0
	월세·기타	26	100.0	42.3	50.0	7.7	0.0

문 6.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표 11]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단위 : %)

구분		계		생활권 계획 이해 하기	우리 지역 그리기 및 자원 찾기	2030 우리 생활권 미래상 설정	우리 생활권 문제점, 개선점 살펴 보기	생활 서비스 시설 선호도 조사	기타
		(인)	(%)						
전체	계	499	100.0	9.8	24.2	13.6	51.1	1.0	0.2
	동북권	200	100.0	10.5	20.5	13.0	55.0	1.0	0.0
	서북권	77	100.0	10.4	41.6	13.0	33.8	1.3	0.0
	서남권	144	100.0	9.7	20.1	16.7	52.1	1.4	0.0
	동남권	78	100.0	7.7	24.4	10.3	56.4	0.0	1.3
성별	남성	167	100.0	13.8	25.1	14.4	46.1	0.0	0.6
	여성	330	100.0	7.9	23.9	12.7	53.9	1.5	0.0
연령	40대 이하	81	100.0	6.2	30.9	4.9	58.0	0.0	0.0
	50대	217	100.0	11.1	20.7	13.4	53.5	1.4	0.0
	60대 이상	201	100.0	10.0	25.4	17.4	45.8	1.0	0.5
지역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52	100.0	10.0	24.6	13.9	50.2	1.1	0.2
	경험 없음	46	100.0	6.5	21.7	10.9	60.9	0.0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3	100.0	15.1	30.2	18.9	35.8	0.0	0.0
	자영업	134	100.0	12.7	22.4	12.7	50.0	1.5	0.7
	전업주부	234	100.0	7.3	21.8	14.1	56.0	0.9	0.0
	학생·무직·기타 등	77	100.0	9.1	31.2	10.4	48.1	1.3	0.0
거주 기간	10년 미만	56	100.0	8.9	25.0	12.5	50.0	3.6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35	100.0	8.1	25.9	11.1	54.1	0.0	0.7
	20년 이상	307	100.0	10.7	23.5	15.0	49.8	1.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9	100.0	9.2	26.1	16.0	47.1	1.7	0.0
	다세대·다가구·연립	113	100.0	11.5	15.9	15.0	56.6	0.9	0.0
	아파트	252	100.0	9.5	27.4	11.1	50.8	0.8	0.4
	기타	15	100.0	6.7	20.0	26.7	46.7	0.0	0.0
거주 유형	자가	412	100.0	9.2	23.3	14.3	51.9	1.2	0.0
	전세	59	100.0	10.2	30.5	11.9	45.8	0.0	1.7
	월세·기타	26	100.0	19.2	23.1	7.7	50.0	0.0	0.0

문 7. 주민참여단 워크숍의 ‘지역자원과 문제점 발굴, 미래상과 개선방향 논의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 지역자원과 문제점 발굴과정

[표 12] 지역자원과 문제점 발굴 논의과정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충분했다	충분했다	부족했다	매우 부족했다
		(인)	(%)				
전체	계	528	100.0	24.4	61.7	12.7	1.1
	동북권	205	100.0	25.4	58.5	14.6	1.5
	서북권	79	100.0	27.8	60.8	11.4	0.0
	서남권	158	100.0	21.5	65.8	12.0	0.6
	동남권	86	100.0	24.4	62.8	10.5	2.3
성별	남성	180	100.0	25.0	61.1	13.3	0.6
	여성	346	100.0	24.0	62.4	12.1	1.4
연령	40대 이하	87	100.0	29.9	56.3	9.2	4.6
	50대	229	100.0	24.9	61.1	13.5	0.4
	60대 이상	211	100.0	21.8	64.5	13.3	0.5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0	100.0	25.4	61.7	11.7	1.3
	경험 없음	47	100.0	14.9	63.8	21.3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1.0	55.2	12.1	1.7
	자영업	148	100.0	23.0	59.5	16.9	0.7
	전업주부	240	100.0	21.7	65.8	11.3	1.3
	학생·무직·기타 등	80	100.0	30.0	60.0	10.0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31.6	61.4	7.0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8	100.0	23.6	57.4	15.5	3.4
	20년 이상	322	100.0	23.3	64.0	12.4	0.3
주택유형	단독주택	121	100.0	18.2	67.8	13.2	0.8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25.4	63.9	9.0	1.6
	아파트	269	100.0	27.5	56.9	14.5	1.1
	기타	16	100.0	12.5	81.3	6.3	0.0
거주유형	자가	438	100.0	25.3	61.2	12.3	1.1
	전세	62	100.0	17.7	67.7	12.9	1.6
	월세·기타	26	100.0	26.9	57.7	15.4	0.0

7-2) 지역 미래상과 개선방향 논의과정

[표 13] 미래상과 개선방향 논의과정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충분했다	충분 했다	부족 했다	매우 부족 했다
		(인)	(%)				
전체	계	516	100.0	23.3	59.7	15.9	1.2
	동북권	198	100.0	23.7	58.6	16.2	1.5
	서북권	78	100.0	23.1	65.4	11.5	0.0
	서남권	156	100.0	21.8	59.0	19.2	0.0
	동남권	84	100.0	25.0	58.3	13.1	3.6
성별	남성	175	100.0	24.0	55.4	19.4	1.1
	여성	339	100.0	23.0	61.9	13.9	1.2
연령	40대 이하	87	100.0	25.3	55.2	16.1	3.4
	50대	226	100.0	24.3	57.5	17.3	0.9
	60대 이상	203	100.0	21.2	64.0	14.3	0.5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68	100.0	23.9	59.8	15.0	1.3
	경험 없음	47	100.0	17.0	59.6	23.4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1.0	46.6	22.4	0.0
	자영업	142	100.0	21.1	55.6	21.8	1.4
	전업주부	235	100.0	20.9	66.0	11.5	1.7
	학생·무직·기타 등	80	100.0	27.5	58.8	13.8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6	100.0	23.2	60.7	14.3	1.8
	10년 이상 20년 미만	146	100.0	21.2	57.5	19.2	2.1
	20년 이상	313	100.0	24.0	60.7	14.7	0.6
주택유형	단독주택	115	100.0	17.4	66.1	14.8	1.7
	다세대·다가구·연립	117	100.0	23.9	61.5	13.7	0.9
	아파트	268	100.0	26.1	54.9	17.9	1.1
	기타	16	100.0	12.5	81.3	6.3	0.0
거주유형	자가	426	100.0	23.9	60.1	14.8	1.2
	전세	63	100.0	19.0	60.3	19.0	1.6
	월세·기타	26	100.0	23.1	53.8	23.1	0.0

문 8. 귀하는 이번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4] 전반적인 워크숍 운영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잘 운영 되었다	대체로 잘 운영 되었다	그저 그렇다	잘 운영 되지 않았다	전혀 잘 운영 되지 않았다
		(인)	(%)					
전체	계	533	100.0	31.7	58.2	7.7	2.3	0.2
	동북권	208	100.0	33.7	57.7	7.2	1.0	0.5
	서북권	81	100.0	33.3	58.0	6.2	2.5	0.0
	서남권	159	100.0	31.4	57.9	6.9	3.8	0.0
	동남권	85	100.0	25.9	60.0	11.8	2.4	0.0
성별	남성	180	100.0	31.7	58.3	7.2	2.2	0.6
	여성	351	100.0	31.6	58.1	8.0	2.3	0.0
연령	40대 이하	88	100.0	23.9	58.0	13.6	3.4	1.1
	50대	232	100.0	35.8	56.0	6.0	2.2	0.0
	60대 이상	212	100.0	30.2	60.8	7.1	1.9	0.0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5	100.0	33.2	58.1	6.0	2.5	0.2
	경험 없음	47	100.0	17.0	57.4	25.5	0.0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7	100.0	36.8	49.1	12.3	0.0	1.8
	자영업	148	100.0	29.7	58.8	10.1	1.4	0.0
	전업주부	245	100.0	32.2	58.8	6.5	2.4	0.0
	학생·무직·기타 등	81	100.0	29.6	63.0	3.7	3.7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31.6	54.4	12.3	1.8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28.2	59.7	10.1	1.3	0.7
	20년 이상	326	100.0	33.4	58.0	5.8	2.8	0.0
주택유형	단독주택	121	100.0	36.4	52.9	9.9	0.8	0.0
	다세대·다가구·연립	123	100.0	26.8	61.8	6.5	4.1	0.8
	아파트	273	100.0	31.9	58.6	7.7	1.8	0.0
	기타	16	100.0	31.3	62.5	0.0	6.3	0.0
거주유형	자가	442	100.0	33.3	58.1	6.8	1.8	0.0
	전세	63	100.0	20.6	61.9	11.1	4.8	1.6
	월세·기타	26	100.0	34.6	50.0	11.5	3.8	0.0

문 9. 생활권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표 15]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

(단위 : %)

구분	계	지역 자원과 생활 환경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지역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서울시 자치구 도시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 타
		(인)	(%)									
전체	계	529	100.0	58.6	63.3	21.4	38.9	14.7	0.4			
	동북권	206	100.0	59.2	62.1	18.9	37.9	18.4	0.5			
	서북권	81	100.0	64.2	61.7	21.0	32.1	14.8	1.2			
	서남권	156	100.0	54.5	66.7	22.4	41.0	14.1	0.0			
	동남권	86	100.0	59.3	61.6	25.6	44.2	7.0	0.0			
성별	남성	178	100.0	53.9	62.9	23.0	45.5	12.9	0.0			
	여성	349	100.0	61.3	63.3	20.6	35.5	15.5	0.6			
연령	40대 이하	86	100.0	61.6	64.0	19.8	43.0	7.0	0.0			
	50대	230	100.0	58.3	64.8	24.8	36.5	13.9	0.4			
	60대 이상	212	100.0	57.5	61.8	18.4	39.6	18.9	0.5			
지역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1	100.0	58.2	64.4	21.6	38.7	14.3	0.4			
	경험 없음	47	100.0	61.7	51.1	19.1	42.6	19.1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70.7	58.6	15.5	43.1	10.3	0.0			
	자영업	143	100.0	52.4	61.5	24.5	41.3	16.8	0.7			
	전업주부	246	100.0	60.6	62.6	21.1	38.6	14.6	0.0			
	학생·무직·기타 등	81	100.0	54.3	71.6	21.0	33.3	14.8	1.2			
거주 기간	10년 미만	57	100.0	52.6	59.6	15.8	52.6	14.0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7	100.0	62.6	65.3	23.1	36.1	9.5	0.7			
	20년 이상	324	100.0	57.7	63.3	21.6	38.0	17.0	0.3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8	100.0	52.5	62.7	20.3	38.1	22.9	0.8			
	다세대·다가구·연립	121	100.0	64.5	59.5	22.3	38.0	10.7	0.8			
	아파트	274	100.0	59.1	66.4	20.4	39.4	13.1	0.0			
	기타	16	100.0	50.0	43.8	37.5	43.8	12.5	0.0			
거주 유형	자가	439	100.0	57.9	64.7	21.6	38.7	14.4	0.5			
	전세	62	100.0	66.1	61.3	21.0	38.7	12.9	0.0			
	월세·기타	26	100.0	53.8	46.2	19.2	42.3	23.1	0.0			

문 10.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표 16] 개선해야 할 점

(단위 : %)

구분		계		생활권 계획과 주민 참여단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 필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실질 적인 논의를 위해 워크숍 횟수시 간 확대 필요	다양 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 그램 필요	워크숍 참여 주민 간 유대 친밀감 형성 필요	기타
		(인)	(%)						
전체	계	530	100.0	58.5	61.9	21.3	32.6	16.6	5.8
	동북권	207	100.0	64.3	61.8	20.3	30.4	14.0	5.8
	서북권	81	100.0	55.6	59.3	27.2	29.6	16.0	6.2
	서남권	156	100.0	54.5	60.3	20.5	35.9	21.2	6.4
	동남권	86	100.0	54.7	67.4	19.8	34.9	15.1	4.7
성별	남성	180	100.0	58.9	60.0	25.0	30.6	16.7	6.7
	여성	348	100.0	58.0	62.9	19.3	33.9	16.7	5.5
연령	40대 이하	88	100.0	53.4	56.8	23.9	43.2	11.4	9.1
	50대	230	100.0	63.0	65.7	18.3	32.6	13.0	4.8
	60대 이상	211	100.0	55.5	60.2	23.7	28.0	22.7	5.7
지역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2	100.0	58.3	62.4	21.4	32.2	16.2	6.2
	경험 없음	47	100.0	59.6	57.4	19.1	38.3	21.3	2.1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63.8	60.3	25.9	27.6	10.3	12.1
	자영업	147	100.0	63.9	57.8	23.8	30.6	16.3	3.4
	전업주부	244	100.0	59.8	65.6	15.6	32.4	18.4	4.9
	학생·무직·기타 등	80	100.0	40.0	60.0	31.3	41.3	16.3	8.8
거주 기간	10년 미만	58	100.0	51.7	46.6	29.3	36.2	27.6	6.9
	10년 이상 20년 미만	147	100.0	57.8	66.7	20.4	34.7	10.2	6.8
	20년 이상	324	100.0	60.2	62.7	20.4	31.2	17.6	4.9
주택 유형	단독주택	120	100.0	60.8	57.5	22.5	25.0	20.0	5.0
	다세대·다가구·연립	123	100.0	60.2	63.4	14.6	37.4	12.2	8.1
	아파트	271	100.0	57.9	62.0	24.7	32.8	16.6	5.5
	기타	16	100.0	37.5	81.3	6.3	50.0	25.0	0.0
거주 유형	자가	439	100.0	60.1	62.9	21.9	30.5	17.1	5.5
	전세	63	100.0	49.2	57.1	20.6	42.9	15.9	7.9
	월세·기타	26	100.0	53.8	61.5	11.5	46.2	7.7	7.7

문 11. 귀하는 이번 워크숍의 주민참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 17] 주민참여 평가

(단위 : %)

구분	계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의도는 좋았지만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잘 모르겠다	기타
		(인)	(%)			
전체	계	531	100.0	72.9	21.3	4.5
	동북권	205	100.0	68.3	27.3	3.9
	서북권	81	100.0	81.5	11.1	7.4
	서남권	159	100.0	72.3	20.8	5.0
	동남권	86	100.0	76.7	17.4	2.3
성별	남성	178	100.0	70.8	24.7	2.8
	여성	351	100.0	73.8	19.7	5.4
연령	40대 이하	88	100.0	67.0	27.3	3.4
	50대	231	100.0	74.5	21.6	3.0
	60대 이상	211	100.0	73.5	18.5	6.6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4	100.0	74.4	20.0	4.1
	경험 없음	47	100.0	57.4	34.0	8.5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62.1	29.3	5.2
	자영업	149	100.0	68.5	28.2	2.7
	전업주부	246	100.0	76.0	17.1	5.3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77.3	18.2	4.5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74.1	20.7	3.4
	10년 이상 20년 미만	148	100.0	73.6	23.0	2.0
	20년 이상	324	100.0	72.2	20.7	5.9
주택유형	단독주택	119	100.0	72.3	20.2	6.7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73.8	23.0	1.6
	아파트	274	100.0	73.4	20.1	5.1
	기타	16	100.0	62.5	37.5	0.0
거주유형	자가	442	100.0	73.1	21.7	4.3
	전세	61	100.0	75.4	13.1	6.6
	월세·기타	26	100.0	69.2	30.8	0.0

문 12. 주민참여단 워크숍은 총 2회, 4시간씩 운영되며, 참여인원은 동별로 10명씩, 1~2만 원의 수당(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 워크숍 횟수(2회)

[표 18] 워크숍 횟수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계	527	100.0	4.0	5.3	65.7	20.3	4.7
	동북권	205	100.0	3.9	2.0	69.3	18.0	6.8
	서북권	81	100.0	7.4	7.4	67.9	14.8	2.5
	서남권	157	100.0	2.5	8.3	59.2	26.1	3.8
	동남권	84	100.0	3.6	6.0	66.7	20.2	3.6
성별	남성	179	100.0	4.5	5.0	59.8	27.4	3.4
	여성	346	100.0	3.5	5.5	69.1	16.8	5.2
연령	40대 이하	88	100.0	1.1	1.1	60.2	31.8	5.7
	50대	229	100.0	3.5	5.2	63.8	21.4	6.1
	60대 이상	209	100.0	5.7	7.2	70.3	14.4	2.4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79	100.0	4.2	5.4	66.8	19.2	4.4
	경험 없음	47	100.0	2.1	4.3	53.2	31.9	8.5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4	1.7	58.6	32.8	3.4
	자영업	149	100.0	4.7	6.0	59.1	23.5	6.7
	전업주부	243	100.0	2.5	6.2	72.8	14.0	4.5
	학생·무직·기타 등	87	100.0	6.9	2.3	63.2	23.0	4.6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1.7	1.7	63.8	31.0	1.7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3.4	5.4	67.1	20.1	4.0
	20년 이상	319	100.0	4.7	6.0	65.2	18.5	5.6
주택유형	단독주택	119	100.0	6.7	8.4	63.0	15.1	6.7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3.3	7.4	64.8	18.0	6.6
	아파트	271	100.0	2.6	3.0	67.5	23.6	3.3
	기타	15	100.0	13.3	6.7	60.0	20.0	0.0
거주유형	자가	438	100.0	4.1	5.9	65.5	19.6	4.8
	전세	62	100.0	3.2	3.2	64.5	24.2	4.8
	월세·기타	25	100.0	4.0	0.0	72.0	20.0	4.0

12-2) 워크숍 시간(4시간)

[표 19] 워크숍 시간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계	514	100.0	8.9	30.2	51.8	7.8	1.4
	동북권	199	100.0	9.0	32.2	50.8	6.5	1.5
	서북권	78	100.0	10.3	21.8	55.1	12.8	0.0
	서남권	155	100.0	8.4	29.7	52.9	7.7	1.3
	동남권	82	100.0	8.5	34.1	48.8	6.1	2.4
성별	남성	174	100.0	6.9	24.1	56.3	12.1	0.6
	여성	338	100.0	9.5	33.4	49.7	5.6	1.8
연령	40대 이하	88	100.0	8.0	27.3	55.7	5.7	3.4
	50대	228	100.0	9.2	32.5	48.7	8.3	1.3
	60대 이상	198	100.0	9.1	28.8	53.5	8.1	0.5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67	100.0	9.4	30.0	52.5	7.3	0.9
	경험 없음	46	100.0	4.3	32.6	45.7	10.9	6.5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5.2	29.3	50.0	12.1	3.4
	자영업	143	100.0	7.0	24.5	55.9	11.9	0.7
	전업주부	237	100.0	9.7	38.0	46.0	4.6	1.7
	학생·무직·기타 등	87	100.0	11.5	17.2	63.2	6.9	1.1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5.3	33.3	52.6	8.8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5	100.0	10.3	23.4	57.2	8.3	0.7
	20년 이상	311	100.0	9.0	32.8	48.9	7.4	1.9
주택유형	단독주택	111	100.0	8.1	31.5	51.4	6.3	2.7
	다세대·다가구·연립	116	100.0	11.2	28.4	52.6	6.0	1.7
	아파트	272	100.0	8.5	30.1	51.5	9.2	0.7
	기타	15	100.0	6.7	33.3	53.3	6.7	0.0
거주유형	자가	425	100.0	8.9	30.1	51.8	8.0	1.2
	전세	62	100.0	9.7	24.2	54.8	8.1	3.2
	월세·기타	25	100.0	8.0	44.0	48.0	0.0	0.0

12-3) 동별 참여인원(10명)

[표 20] 동별 참여인원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계	513	100.0	2.9	5.8	74.5	14.2	2.5
	동북권	197	100.0	3.0	7.1	71.1	15.7	3.0
	서북권	79	100.0	3.8	2.5	77.2	15.2	1.3
	서남권	154	100.0	1.3	3.2	79.9	12.3	3.2
	동남권	83	100.0	4.8	10.8	69.9	13.3	1.2
성별	남성	174	100.0	3.4	4.6	77.0	13.2	1.7
	여성	337	100.0	2.7	6.5	73.3	14.8	2.7
연령	40대 이하	87	100.0	2.3	4.6	73.6	16.1	3.4
	50대	228	100.0	3.1	5.3	71.9	17.1	2.6
	60대 이상	198	100.0	3.0	7.1	77.8	10.1	2.0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65	100.0	3.2	5.4	75.3	13.5	2.6
	경험 없음	47	100.0	0.0	10.6	68.1	19.1	2.1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5.2	5.2	62.1	25.9	1.7
	자영업	142	100.0	2.1	7.7	75.4	13.4	1.4
	전업주부	236	100.0	2.1	5.5	75.8	14.0	2.5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4.5	4.5	73.9	11.4	5.7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0.0	7.0	73.7	17.5	1.8
	10년 이상 20년 미만	144	100.0	0.7	3.5	73.6	19.4	2.8
	20년 이상	311	100.0	4.5	6.8	74.9	11.3	2.6
주택유형	단독주택	110	100.0	0.9	7.3	74.5	11.8	5.5
	다세대·다가구·연립	116	100.0	6.0	6.9	67.2	17.2	2.6
	아파트	271	100.0	1.8	4.4	78.2	14.4	1.1
	기타	16	100.0	12.5	12.5	62.5	6.3	6.3
거주유형	자가	423	100.0	2.8	6.6	74.5	13.9	2.1
	전세	62	100.0	1.6	1.6	72.6	19.4	4.8
	월세·기타	26	100.0	7.7	3.8	76.9	7.7	3.8

12-4) 수당(8천~2만 원)

[표 21] 참여수당(교통비) 평가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많다	많다	적당 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인)	(%)					
전체	계	514	100.0	2.1	1.2	47.3	30.9	18.5
	동북권	198	100.0	2.0	1.5	47.0	28.8	20.7
	서북권	79	100.0	2.5	0.0	46.8	39.2	11.4
	서남권	154	100.0	1.3	1.9	43.5	33.1	20.1
	동남권	83	100.0	3.6	0.0	55.4	24.1	16.9
성별	남성	174	100.0	2.9	1.7	47.1	31.0	17.2
	여성	338	100.0	1.8	0.9	47.6	31.1	18.6
연령	40대 이하	87	100.0	2.3	1.1	41.4	34.5	20.7
	50대	229	100.0	0.9	1.7	45.4	32.3	19.7
	60대 이상	198	100.0	3.5	0.5	52.0	27.8	16.2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66	100.0	2.4	1.1	46.6	31.8	18.2
	경험 없음	47	100.0	0.0	2.1	53.2	23.4	21.3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4	0.0	41.4	32.8	22.4
	자영업	142	100.0	2.1	2.1	44.4	32.4	19.0
	전업주부	237	100.0	1.3	0.8	49.4	30.8	17.7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3.4	1.1	46.6	31.8	17.0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1.8	1.8	52.6	29.8	14.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4	100.0	0.7	0.7	43.8	34.7	20.1
	20년 이상	312	100.0	2.9	1.3	47.8	29.5	18.6
주택유형	단독주택	110	100.0	1.8	2.7	52.7	27.3	15.5
	다세대·다가구·연립	117	100.0	2.6	0.0	44.4	30.8	22.2
	아파트	271	100.0	1.5	1.1	45.4	33.2	18.8
	기타	16	100.0	12.5	0.0	62.5	18.8	6.3
거주유형	자가	424	100.0	1.9	1.4	47.4	30.9	18.4
	전세	62	100.0	1.6	0.0	46.8	30.6	21.0
	월세·기타	26	100.0	7.7	0.0	46.2	34.6	11.5

문 13. 귀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생활권계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표 22] 관심 있는 생활권계획 내용

(단위 : %)

구분		계		중심지· 역세권 등 도시공간 관리	용도지역 및 높이관리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인)	(%)			
전체	계	533	100.0	28.7	15.0	58.7
	동북권	207	100.0	30.9	14.0	59.9
	서북권	80	100.0	28.8	10.0	51.3
	서남권	160	100.0	25.6	15.6	60.6
	동남권	86	100.0	29.1	20.9	59.3
성별	남성	179	100.0	29.1	19.6	61.5
	여성	352	100.0	28.1	12.5	57.4
연령	40대 이하	87	100.0	24.1	6.9	54.0
	50대	233	100.0	29.6	16.7	56.7
	60대 이상	212	100.0	29.7	16.5	62.7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5	100.0	29.7	14.2	59.0
	경험 없음	47	100.0	19.1	23.4	55.3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25.9	15.5	65.5
	자영업	150	100.0	34.0	16.0	60.7
	전업주부	247	100.0	29.1	12.1	60.7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17.0	20.5	42.0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21.1	10.5	50.9
	10년 이상 20년 미만	149	100.0	28.2	9.4	60.4
	20년 이상	326	100.0	30.4	18.4	59.5
주택유형	단독주택	122	100.0	32.0	21.3	64.8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30.3	18.0	52.5
	아파트	273	100.0	27.5	11.4	58.2
	기타	16	100.0	12.5	6.3	68.8
거주유형	자가	443	100.0	30.2	16.0	59.4
	전세	62	100.0	22.6	9.7	56.5
	월세·기타	26	100.0	19.2	11.5	50.0

<계속>

[표 23] 관심 있는 생활권계획 내용(이어서)

(단위 : %)

구분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확충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	생활안전 강화	생활서비 스시설의 확충
전체	계	29.3	9.8	21.6	11.1	22.5
	동북권	26.1	10.1	23.7	11.1	21.7
	서북권	37.5	15.0	25.0	11.3	18.8
	서남권	33.8	8.8	18.8	7.5	23.8
	동남권	20.9	5.8	18.6	17.4	25.6
성별	남성	29.6	8.9	19.0	8.4	20.1
	여성	29.3	10.2	23.0	12.5	23.9
연령	40대 이하	21.8	13.8	27.6	10.3	35.6
	50대	29.6	9.0	20.2	12.9	22.7
	60대 이상	32.1	8.5	20.8	9.4	17.0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29.7	9.3	21.0	11.8	22.3
	경험 없음	25.5	14.9	27.7	4.3	25.5
직업	전문직·회사원	22.4	6.9	24.1	5.2	31.0
	자영업	28.7	10.7	21.3	8.0	17.3
	전업주부	29.1	9.7	19.0	14.2	23.1
	학생·무직·기타 등	34.1	11.4	29.5	12.5	27.3
거주기간	10년 미만	43.9	17.5	15.8	8.8	26.3
	10년 이상 20년 미만	29.5	7.4	24.2	8.1	28.2
	20년 이상	26.4	9.5	21.2	12.9	19.3
주택유형	단독주택	24.6	10.7	16.4	10.7	16.4
	다세대·다가구·연립	32.0	11.5	19.7	9.0	24.6
	아파트	30.0	8.8	23.1	12.5	24.5
	기타	31.3	6.3	50.0	6.3	18.8
거주유형	자가	28.9	9.7	20.3	10.2	21.9
	전세	32.3	14.5	22.6	11.3	25.8
	월세·기타	30.8	0.0	42.3	23.1	23.1

문 14. 귀하는 이번 워크숍이 지역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4] 지역환경과 생활환경 개선 도움 여부

(단위 : %)

구분	계	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	(%)				
전체	계	533	100.0	33.8	63.8	2.3	0.2
	동북권	208	100.0	31.7	65.9	2.4	0.0
	서북권	80	100.0	42.5	55.0	2.5	0.0
	서남권	159	100.0	32.1	66.0	1.3	0.6
	동남권	86	100.0	33.7	62.8	3.5	0.0
성별	남성	179	100.0	34.1	62.6	3.4	0.0
	여성	352	100.0	33.2	64.8	1.7	0.3
연령	40대 이하	88	100.0	26.1	69.3	3.4	1.1
	50대	232	100.0	30.6	67.7	1.7	0.0
	60대 이상	212	100.0	40.1	57.5	2.4	0.0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5	100.0	34.6	63.1	2.3	0.0
	경험 없음	47	100.0	23.4	72.3	2.1	2.1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9.7	55.2	5.2	0.0
	자영업	149	100.0	35.6	63.1	0.7	0.7
	전업주부	248	100.0	29.0	69.0	2.0	0.0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36.4	58.0	5.7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12.1	86.2	0.0	1.7
	10년 이상 20년 미만	148	100.0	28.4	68.9	2.7	0.0
	20년 이상	326	100.0	39.9	57.7	2.5	0.0
주택유형	단독주택	121	100.0	38.8	61.2	0.0	0.0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36.1	62.3	1.6	0.0
	아파트	274	100.0	30.3	66.1	3.3	0.4
	기타	16	100.0	37.5	56.3	6.3	0.0
거주유형	자가	444	100.0	33.1	64.6	2.0	0.2
	전세	61	100.0	36.1	60.7	3.3	0.0
	월세·기타	26	100.0	42.3	53.8	3.8	0.0

문 15. 귀하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생활권계획을 설명하는 자치구 ‘주민설명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25] 주민설명회 필요성

(단위 : %)

구분		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인)	(%)				
전체	계	533	100.0	45.6	52.3	1.7	0.4
	동북권	208	100.0	48.1	50.0	1.9	0.0
	서북권	80	100.0	43.8	53.8	1.3	1.3
	서남권	159	100.0	45.9	52.2	1.9	0.0
	동남권	86	100.0	40.7	57.0	1.2	1.2
성별	남성	179	100.0	44.1	55.9	0.0	0.0
	여성	352	100.0	46.0	50.9	2.6	0.6
연령	40대 이하	88	100.0	38.6	60.2	1.1	0.0
	50대	232	100.0	47.0	50.0	3.0	0.0
	60대 이상	212	100.0	46.7	51.9	0.5	0.9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5	100.0	46.8	50.9	1.9	0.4
	경험 없음	47	100.0	34.0	66.0	0.0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41.4	58.6	0.0	0.0
	자영업	149	100.0	47.0	51.0	1.3	0.7
	전업주부	248	100.0	43.5	53.2	2.8	0.4
	학생·무직·기타 등	88	100.0	52.3	47.7	0.0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8	100.0	39.7	55.2	5.2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8	100.0	45.3	52.7	1.4	0.7
	20년 이상	326	100.0	46.6	51.8	1.2	0.3
주택유형	단독주택	121	100.0	51.2	47.9	0.0	0.8
	다세대·다가구·연립	122	100.0	46.7	49.2	3.3	0.8
	아파트	274	100.0	42.0	56.2	1.8	0.0
	기타	16	100.0	56.3	43.8	0.0	0.0
거주유형	자가	444	100.0	44.8	52.9	1.8	0.5
	전세	61	100.0	50.8	49.2	0.0	0.0
	월세·기타	26	100.0	50.0	46.2	3.8	0.0

문 16. 다음번 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다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표 26] 재참여 의향

(단위 : %)

구분	계	계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인)	(%)				
전체	계	531	100.0	33.3	59.7	5.6	1.3
	동북권	205	100.0	32.7	61.0	5.4	1.0
	서북권	80	100.0	33.8	58.8	5.0	2.5
	서남권	160	100.0	36.3	58.8	4.4	0.6
	동남권	86	100.0	29.1	59.3	9.3	2.3
성별	남성	180	100.0	31.7	63.9	3.9	0.6
	여성	349	100.0	33.8	57.9	6.6	1.7
연령	40대 이하	86	100.0	19.8	68.6	11.6	0.0
	50대	233	100.0	30.9	63.5	3.9	1.7
	60대 이상	211	100.0	41.2	52.1	5.2	1.4
지역활동 경험	경험 있음	483	100.0	35.0	58.8	4.8	1.4
	경험 없음	47	100.0	14.9	70.2	14.9	0.0
직업	전문직·회사원	58	100.0	32.8	62.1	5.2	0.0
	자영업	150	100.0	32.0	62.0	4.0	2.0
	전업주부	247	100.0	31.2	60.7	6.5	1.6
	학생·무직·기타 등	86	100.0	40.7	53.5	5.8	0.0
거주기간	10년 미만	57	100.0	31.6	56.1	12.3	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48	100.0	31.1	60.8	7.4	0.7
	20년 이상	325	100.0	34.5	60.0	3.7	1.8
주택유형	단독주택	122	100.0	37.7	55.7	5.7	0.8
	다세대·다가구·연립	121	100.0	33.9	56.2	8.3	1.7
	아파트	272	100.0	32.0	61.8	4.8	1.5
	기타	16	100.0	18.8	81.3	0.0	0.0
거주유형	자가	443	100.0	34.1	58.7	5.6	1.6
	전세	61	100.0	34.4	57.4	8.2	0.0
	월세·기타	25	100.0	20.0	80.0	0.0	0.0

3_추가 기재 의견

1) 개요

전체 의견	182건	
권역 및 자치구별 의견	동북권 (64건)	성동구(6), 광진구(4), 동대문구(4), 중랑구(19) 성북구(4), 강북구(11), 도봉구(6), 노원구(10)
	서북권 (27건)	은평구(7), 마포구(12), 서대문구(8)
	서남권 (50건)	영등포구(7), 구로구(9), 관악구(6), 동작구(9), 양천구(12), 강서구(7)
	동남권 (41건)	송파구(15), 서초구(9), 강남구(17)
항목별 의견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필요	36건
	의견 반영 및 피드백 요청	30건
	참여소감	28건
	다양한 주민의 참여 / 홍보 활성화	26건
	횟수/시간 조정	23건
	논의주제 및 방식 개선	21건
	지역관련 의견	10건
	수당 조정	8건

2) 항목별 의견(전체)

●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필요(36건)

- 주민참여단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함. 교육시간이 너무 짧.
- 지역현황에 대한 설명 필요(5건)
- 사전에 워크숍내용이나 준비사항 등을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으로 공지해주면 관심 있는 분들이 미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홍보 및 자료가 더 필요해 보임.
- 지역의 문제점, 해결방안, 자원 등을 먼저 도출해서 알려주면 좋겠음. 그리고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의 반영 과정 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길 원함.
-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워크숍에 참여를 한다면 더 많은 의견이나 안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아쉬움이 생깁니다.
-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시·구청에서 지원예산 규모설명, 주민편의, 향후 민원수령 필요
- 계획은 충분한 자료(데이터)로 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생활권의 부분적인 자료가 아니라 타 생활권의 비교 분석 가능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자료가 공람되었으면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시 보존 하고 싶은 곳을 투표할 때, 그곳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이 사진만 보니까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가 없었다. 영상을 보여주거나 차량을 섭외해 견학을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
- 참여하기 전에 사전지식이 필요함.
- 사전 자료 및 교육 부족으로 의견 개진이 부족했고, 비슷한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전에 온라인 등으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사전 예비지식 전달이 필요하며 선발인원을 잘 선별해야 함.
- 개요 및 어떠한 워크숍을 하는지 사전 교육 필요
- 사전에 토론에 대한 내용 교육 필요하며, 많은 인원 참여해야 함.
- 주민참여단에게 워크숍에 관하여 미리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 상세한 설명 없이 주민참여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처음엔 당황하였다. 참여단의 참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인원수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일이든 결과의 극대화를 보려면 사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청에서 공문을 보낼 때 취지나 목적 등을 명시하여 보냈으면 사전준비 등 워크숍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연구·조사 결과 등을 준비한 후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각계 각 층의 주민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거나 정보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
- 사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참가자에게 시간을 주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참여자 구성을 좀 세분화, 전문직 위주로 구성하였으면 좋겠다.
 - 사전교육과 워크숍 때 논의될 내용을 참여단 선정 시 미리 공지해 주시면 더 좋은 워크숍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워크숍 시작 시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목표, 의견의 반영여부 등 보다 자세하고 쉬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왔습니다. 참여단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개선사항을 알기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 4시간이라 시간이 길었다. 동네에 있는 자원경관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동네 소개가 더 필요하다.
 - 동별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다. 즉흥적인 계획은 안 된다. 현실을 파악한 후 미래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 가급적 사전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고, 주민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 주민과 함께 공통점을 이해하고 자원과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으나, 계층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경비의 지출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 검토가 요망됨.
 - 사전 계획을 연습할 기회 부여가 필요함.
 - 오기 전에 워크숍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인원도 거주 지역별로 평등하게 선별해서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사전에 어떤 토의를 할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지역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워크숍에 대한 사전 내용이 미리 고지되었다면 더 많은 내용을 인지하고 알아올 수 있었으리라 본다.
 - 참여단 사전설명이 부족했음. 횡수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의견이 미미했음.
-

● 의견 반영 및 피드백 요청(30건)

-
-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필요(5인)
 -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음.
 - 의사결정자들이 워크숍에 나온 의견들을 알아야 함. 구시의원의 형식적인 인사 필요 없음.
 - 개선사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빨리 마련되어야 함.
 - 소중한 시간 내었으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
- 컨설팅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 희망사항이 아닌 실현이 되었으면 함.
 - 교육시간도 중요하지만 전시행정이나 단순행정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서울시청이나 구청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교육받은 분들의 의견이 향후 반영되었다는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책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안된 의견은 반드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교통편의시설의 충분한 보완 필요하다.
 - 주민참여단의 의견이 반영되어 행정에 영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발표된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개발정책들이 직접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제안된 안들이 실현되도록 해주세요. 점차적이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 우리 동네 꼭 필요한 안건들이 나왔고 꼭 반영되길 바란다. 공염불이 되질 않길 바란다.
 - 의견이 적극 예산으로 반영되어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바람.
 - 우리의 의견이 반영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더 많은 인원과 토론, 소통 속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안을 가지고 조속히 실현가능한 사안을 다루어 결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의견은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할 수는 없어도 지역개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참여단 의견 반영 여부 결과 전달. 반영할 수 있는 의견 부족한 경우 추가 워크숍 진행 필요
 - 결과 회신, 향후 진행상황을 사이트에 공지하고 sns에도 알려주면 좋겠음.
 - 1~2년 후 나의 주민참여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사후 보고 요청. 연락처나 이메일이 있기에 경과보고 및 성과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전시행정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함.
 - 제안사항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미래의 양천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귀한 시간 참여해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제안한 모든 사안들이 참작되어 양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워크숍 진행, 준비 모두 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지역생활권을 다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현안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주십시오. 더욱 발전하는 일등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꼭 이루어지길 바람.
 -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함.
-

● 참여소감(28건)

- 생활권 주민들이 지역문제점 개선할 점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공유하니,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고 지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워크숍이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충분한 설명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유익했다. 향후 다시 워크숍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 주민참여 생활권계획 워크숍 2회에 참가하여 많은 현안을 발견하였다. 노량진 2동은 모든 것이 열악하다. 특히 쓰레기, 주차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뉴타운 재개발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옛날 옛 것과 현재의 발전 토론. 앞으로도 하고 싶다.
-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워크숍 진행자의 역할도 좋았다. 동네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며 어떤 경우든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공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다.
- 좀 더 자세하게 지역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 매우 효율적이다, 매우 유익했다 등(4인)
- 저희 송중동 마을 건기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 이뤄진 워크숍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구 주민으로 많은 참여와 홍보 봉사하겠습니다. 좋은 분위기와 좋은 선생님들과 봉사자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명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온 만큼 귀를 열고 마음 열어 가슴 벅찬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개선책과 향후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한 자세로 임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주 열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강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다.
-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지역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 우리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익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을 알게 돼서 마을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 다음번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2인)
-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불편함에 대해 듣게 되었다. 난 불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서로서로 이해하며 잘사는 구가 되었으면 한다.
-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1차엔 불참했지만 2차 워크숍에 참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 함께한 워크숍 진행자 분들이 주민들의 발언을 잘 조절해 주셨습니다.
- 매우 만족해서 제의할 의견이 없다.

-
- 1차는 불참했지만 2차 워크숍은 적극적으로 동주민들과 대화하고 개선점을 의논하였습니다. 정답고 친근하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함. 포럼을 통해서 지역에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내 지역의 발전과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찾게 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음.
 -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좌생활권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꼭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 지구적인 전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작은 생활권계획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속적인 계획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좀 더 탄탄한 계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

● 다양한 주민참여 / 홍보 활성화(26건)

- 참여인원 늘었으면 합니다.(2인)
 - 지역활동가가 더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참여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 주민참여단 구성 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함.
 - 어디서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취약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에 오래 더 살아갈 젊은 연령의 참여단이 없어서 시설이용과 개선안의 구체성이 부족할 것 같다. 젊은 층의 참여단이 구성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필요, 진행방향이 연령대가 높은 분들 위주로 진행하여 지루함.
 - 주민참여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임. 단 주민참여시 좀 더 내 지역에 관심 및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진행했으면 함.
 - 중도에 포기하는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참여단 선발기준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안사항들을 많은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변단체 배제해라.
 -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부족. 주민참여가 현실적이지 않음. 적극적인 주민참여 필요.
 - 참여단을 모집 할 때 각 연령대별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이민자가 있으면 그들도 각 나라별로 참여 시켜 현재 삶의 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과 연령이 높은 참여단이 다수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동에서 형식적으로 홍보하다 보니 동원인력의 참여와 참여자들의 적극성 부족 현상 발생. 또한 의결권을 가지는 세대와 청소년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주민참여위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음. 시간도 2시간정도로 총 3회가 적당하다고 봄.
-

-
- 주민들이 지역에서 골고루 참여하였으면 좋겠음.(한 동네에서만이 아닌 통별로 각 한 두 명씩)
 - 주민참여단 인원이 적습니다. 8시간 역시 적은 시간입니다.
 -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 개인적으로 서울시정학교 서울 도시아카데미, 서울 건축아카데미를 수료했다. 개인의 민원뿐 아니라 공공성에 관한 기초 개념이 없는 주민들, 특히 대표성을 갖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즉흥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느낌이 든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인원구성도 주민자치위원이 너무 많다. 관심이 없어서 결국 많이 안 나오셨다. 연령 배분도 필요한 것 같다. 내곡동은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높아 노인 이야기 위주다. 아파트가 들어서 젊은 층들도 많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양재 1동은 우면동 아파트 주민의 요구가 강하다. 조직화 된 부녀회의 힘이 느껴지나 주로 민원성 문제고 전체적인 시각이 아쉽다. 양재 1동이나 2동처럼 단독, 다세대 지역도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조직화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시설이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 차출이 필요함. 인원 수 채우는 식의 형식적 운영은 지향해야 함.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인력자원 발굴 필요함.
 - 참여자들이 대체로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으셨던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에 장기 거주자가 우선 선택되었는지, 연령대별 분포가 고루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점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추후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 시간대가 어중간하다. 직장인의 참여가 어렵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워크숍 시간대로 인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대부분이 통반장들이었음. 일반 거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함.)
 - 초기 인원 선정 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신중하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비가 너무 적다.
 - 시간을 미리 알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한 동네 안에서도 지역별로 주민들이 골고루 나오면 더 풍부한 의견이 나올 듯.
 - 미리 공지하여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참여하여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

● 회수/시간 조정(23건)

- 워크숍 시간이 너무 길다.(7인)
- 워크숍 시간이 길어 집중력이 저하됨.
-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전에 정보와 주제를 미리 알려주세요.
- 시간이 너무 길다. 2시간 3번 정도가 적당하다. 참석인원 시간 엄수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시간이 길어 바쁜 참여자들은 부담스럽다.
- 시간이 길고 오후시간이라 피곤하다. 회수를 늘리더라도 시간을 줄여야 좋을 것 같다.
- 4시간이 길다. 1차 워크숍은 3시간 정도로 충분하다.
- 약간 시간이 길어 다소 지루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너무 길다. 중간에 휴식시간 필요
- 회의시간이 길다.(4시간→3시간으로)
- 워크숍 시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듣기만 했다. 시간에 비해 휴식시간도 주지 않아 참여단에게 배려가 부족했다. 4시간가량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데 교통비 1~2만 원은 참여단을 무시하는 처사인 듯하다.
- 참여 회수를 늘리고 참여시간 줄여주세요.(2인)
- 워크숍 회수 늘렸으면 좋겠음.(2인)
- 워크숍 3회 정도가 적당할 듯.
- 2회로는 디테일한 논의 힘들. 한 프로그램에 5~10분 할당. 알고 있던 얘기하기에도 부족. 새로운 개념발굴도 불가능함.

● 논의주제 및 방식 개선(21건)

-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함.
- 같은 안건이 중복되었다. 조금 더 체계적이 진행이 필요하다.
- 주제가 비슷해서 지루했음.
- 시간에 제한된 토론 방식 지양해야 함. 참여단 간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도 대립으로 인한 긴장 조성 방지키 위해서 서면 제출(제안 및 개선책, 의견 등)방식 병행 필요함. 주제별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늘려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 번에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심도 있는 제안 및 토론이 필요함.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구청 직원의 참여가 필요함.

- 심층적인 토론을 위한 진행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랑구 전체로 육사이전을 공론화해야 할 시기이다.
- 워크숍 진행자의 쫓김형 진행. 진지토론을 위한(핸드폰 보관 등) 제한적 조치. 포스트잇 붙이는 시간 쫓김. 과제중심에서 토론우선. 단체버스라도 타고 둘러보고 난 후 현장문제를 먼저 토론 후 취합 등이 필요.
-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아니어도 평소 지역에서 지적되고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운영했으면 좀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입니다.
- 각 동에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자가 참석했으면 합니다.
- 워크숍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의견도 들어야한다.
- 주민만의 토론이 아니라, 입안자들도 참여하여 같이 토론해 보는 과정도 필요 할 것 같다.
- 워크숍 진행자가 지역에 대해 잘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워크숍 진행자 분들이 사전에 해당 동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대략적인 위치, 인구 등등.)
- 동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워크숍을 자주 했으면 합니다.
- 이런 기회 자주 마련해주세요.
- 지속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상호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겠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꼭 필요하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 관련 의견(10건)

- 재개발, 재정비 사업 필요 등(2인)
- 생활권이 지역적인 현황을 반영하여 구분되길 바랍니다.
- 군부대 꼭 이전해야.
- 재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주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지역으로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오래 될수록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해 구도심권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
- 제안사항이 다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정비사업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제안한 것들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 숨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살기 좋은 공방·방화 지역이 되었으면.
-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무엇이 될것인가에 대한...
- 2030 미래지향적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 신사가지 아파트의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의 발전적 계획 등

● 수당 조정(8건)

- 수당이 적음. (3인)
- 참여수당 부족, 사전 교육과 시간활용 부족
- 시간에 비해 수당이 적고, 지역 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었지만 매우 지루했다.
- 8시간, 프로그램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다.
- 8시간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2일 썩이나 시간을 빼앗아서 고작. 유감입니다.
- 교통비 1~2만원은 적다.



Abstract

A Planning Monitoring Study on the Community Plan of Seoul

Jae-Seob Yang · Seon-Hui Nam

The Community Plan of Seoul plays the role of both an intermediate plan and a bottom-up pla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n intermediate plan, the Seoul Community Plan not only materializes the 2030 Seoul Plan or the Urban Comprehensive Plan, but also sets up the guidelines for the Urban Management Plan of Seoul. The Seoul Community Plan consists of a two-tier planning system: the sub-regional plan and the community pla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prepared for introducing the planning system since 2012. Currently, it has started the course of establishing the plan throughout the metropolitan area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approximately 4,000 residents. The pla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planning method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is study aims to monitor the planning process and outcomes of the Seoul Community Plan. We will analyse the process and outcomes while focusing on the following four major events and issues through the planning process: 1) preliminary proposal or advance preparation; 2) outset of plan making; 3) establishing the Sub-regional plan and Community plans; 4) Public Participation. We will suggest the issues and tasks for the Seoul Community Plan. They consist of five parts: 1) Status and Role of the plan; 2) uniformity of planning contents; 3)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y of master planners; 4) representativeness of resident participation groups and management of public workshops; and 5) consistency of the planning process.

The suggestions for policy and planning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essential to define the role of the Seoul Community Plan based on the consensu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group. It is useful to refer to case studies from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set the legal status of the pla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mmunity plans in a consecutive order which prioritizes the communities based on significant and urgent planning issues. To streamline the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ssess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issues of the communities at the local scale.

Third, the local government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the community plans in the long term. It is also necessary to authorize the master planners to organize and manage the overall planning contents.

Fourth, a variety of events and programs should be prepared and offered in order to raise public concerns and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More preliminary education programs and feedback planning process are required.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or chartering public involvement to make the residents feel mo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process can be consider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personnel transfer in the plan-making process for maintaining planning consistency.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ntrol tower should also be strengthened.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s
- 2_Scope and Methodology

02 Understanding and On-going Progress of the Seoul Community Plan

- 1_Historical Background and Purposes
- 2_Organization and Contents
- 3_Planning Method and Resident Participation
- 4_An Overview of On-going Progress of the Plan

03 Monitoring the Planning Process of the Seoul Community Plan

- 1_Steps of the Planning Process
- 2_A Step of Preliminary Proposal and the Outset of Plan Making
- 3_A Step of Establishing the Sub-regional and Community Plan
- 4_A Step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A Survey Analysis
- 5_Summary

04 Case Studies: Portland, Oregon and Nerima-gu, Toyko

- 1_The Local Development Plan of Nerima-gu, Tokyo in Japan
- 2_The Community Plan of the City of Portland, Oregon in the U.S.
- 3_Policy Implications

05 Issues and Tasks in the Planning Process of the Seoul Community Plan

1_Status and Role of the Plan

2_Uniformity of Planning Contents

3_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y of Master Planners

4_Representativeness of Resident Participation Groups and Management of Public Workshops

5_Consistency of Planning Process

06 Conclusions and Suggestions

1_Summary and Conclusions

2_Policy Suggestions

References

Appendix



서울연 2015-PR-12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1월 3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123-1 93530 12,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